

# 麟 蹄 文 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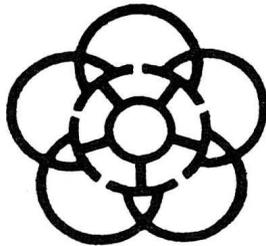
1996 第11輯



麟 蹄 文 化 院

# 麟蹄文化

第 11 輯



麟蹄文化院

## \* 지역문화선언 \*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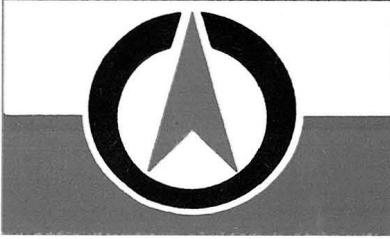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 (郡旗)

- 상단의 흰색은 온순청렴 결백한 군민성을 표시
- 하단 녹색판은 무한한 자원과 생동하는 증산의욕
- 중앙의 원은 군민의 뭉쳐진 힘을 바탕으로 발전과 전진을 향한 의욕적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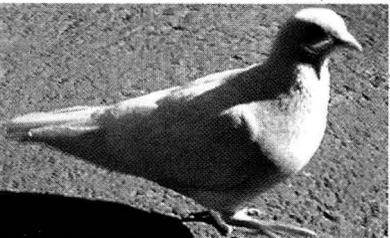
### (郡木 : 주목)

- 항상 푸르른 진녹색은 청렴하고 끈기가 있으며 변함없는 군민성을 상징
- 잎의 정타원형은 모나지 않는 원만성과 둥글게 살아가는 화목한 군민성 상징
- 홍색종자의 결실은 무궁한 발전과 번영 기약



### (郡花 : 철쭉)

- 삼목이나 실생으로 번식력이 강한은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저력을 상징
- 4~6월에 일시에 개화하는 것은 협동과 단결로 전진하는 활력을 상징
- 꽃색의 분홍임은 군민의 우아하고 따뜻한 인정과 순박성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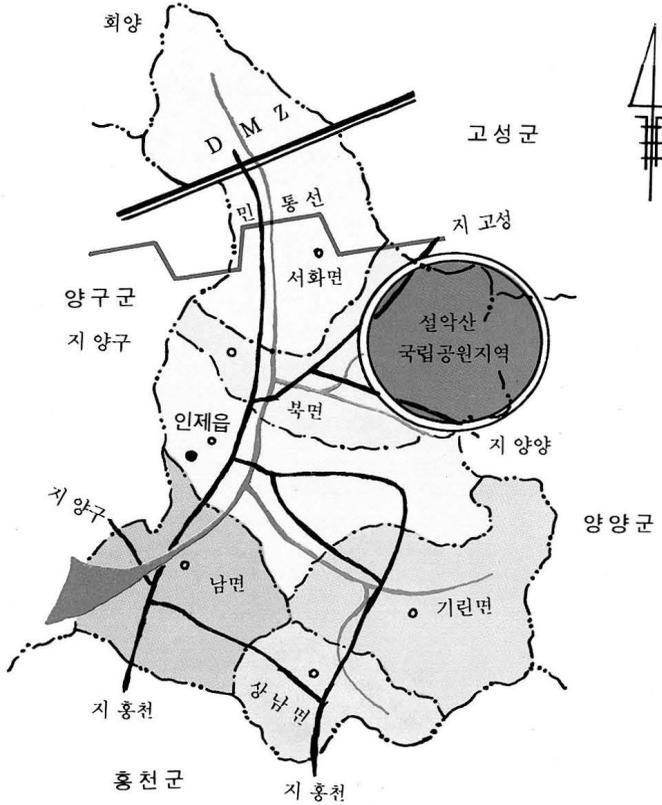
### (郡鳥 : 백비둘기)

- 성질이 온순하고 지혜로움은 군민성을 상징
- 떼를 지어살며 협동심이 강한은 협동단결하며 상부상조하는 군민성을 상징
- 사람과 잘 어울림은 따뜻한 인정과 화목한 군민성을 상징

# 郡政現況

## ● 관내도

읍	1	
면	5	
출장소	1	
리	행정	88
	법정	41
반수	428	
자연부락	301	



## ● 위치

군청 소재지	위치			거리(km)		인접지역
	단	지명	극점	동서	남북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극동	기린면 진동2리 동단	동경 128° 31'	51.5	721	양양군 춘천시 홍천군 민통선
	극서	남면 수산리 서단	동경 127° 58'			
	극남	상남면 상남3리 남단	북위 37° 49'			
	극북	서화면 서화2리 북단	북위 38° 30'			

# 인 제 군 가

♩ = 100(정중하고 힘차게)

전현권 작사  
박재훈 작곡



금 강 산 정 기 받 은 설 악 의 을 안  
합 강 정 대 승 폭 포 자 랑 스 럽 고  
조 상 의 지 나 오 던 자 취 를 밟 고



소 양 강 맑 은 물 이 굽 이 치 는 곳  
봄 철 쪽 가 을 단 풍 친 하 의 질 경  
가 난 과 시 련 에 서 일 어 선 우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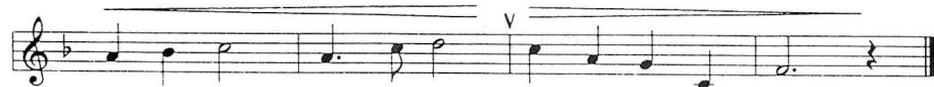
기 룡 산 옛 고 을 에 다 저 온 역 사  
산 수 도 아 름 답 다 정 든 내 고 향  
손 잡 고 너 도 나 도 함 께 힘 모 아



대 대 로 물 려 받 은 충 효 의 고 장  
불 수 록 흥 겨 워 라 자 연 의 보 고  
땀 흘 려 꽃 피 우 세 번 영 의 동 산



(후렴) 우 리 는 인 제 군 민 세 시 대 일 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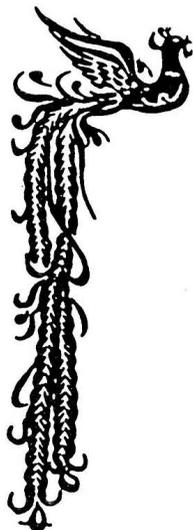


내 일 의 낙 원 을 꾸 며 나 가 세

制定日 : 1980. 3. 1(3·1節 61週年을 맞이하여)

作 詞 : 前 麟蹄宗高校 校監이며 藏書家인 北靑出身 全鉉權(1927 ~ )

作 曲 : 春川教育大學教授이며 作曲家인 通川出身 朴在薰(1924 ~ )



祝



續

刊

내린문학동인회장	한 용 운
내설악사진동우회장	오 정 진
인제미술인회장	정 규 련
인제서예인회장	유 제 영
내설악수석회장	김 기 호
향토민속보존회장	박 해 순



## “함께 공감하며 참여하는 문화로 가꾸자”

인제문화원  
원 장 박 해 순

인제군민의 관심속에 매년 발간되는 「인제문화」가 올해로서 열한 번째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발전상은 그 나라의 건강한 수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수도의 건강한 발전은 지방의 충실한 발전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방이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문화가 꽃피려면 그 지역의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이 주체이므로 문화적 소양을 갖추려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며 따라서 ‘마음의 문화’부터 가꾸는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다행이 우리 인제 지역에는 최근 문화예술단체(동호회)가 활발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많은 동참속에서 인제문화학교 운영이 금년도에 잘 이루어져 인제문화는 돋보일 만큼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끝으로 더욱 진정한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심도 높은 관심속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제문화」 제11집 발간을 위해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편집에 수고를 해 준 직원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 예술은 곧 국민 정서 순화와 애향심을 고취 시킨다.

인제군수 이승호

인제의 문화와 예술의 혼이 담겨있는 인제문화지의 열한 번째 탄생을 축하드리며, 제11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땀흘리신 인제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자기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소중한 작품 그리고 자료 제공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아름다운 그림, 수준높은 음악을 감상하며 좋은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각박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퇴색해가는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좋은 자양분이라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의 정서와 가장 가까울 수 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져 외래문화를 좋아하고 따르며 외제상품, 외국노래, 영화, 문학작품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모습과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데 인제문화지가 빛과 소금으로서 일조를 한다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구가하는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건설이 앞당겨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인제문화지 제11호의 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문화지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역할

인제군 의회  
의 장 정재복

인제문화지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제 그 연륜을 더하여 벌써 제11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제문화지의 발간을 위해 해마다 노력하시는 인제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장은 그동안 많은 물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변화에 가려 오히려 우리 고장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선인들의 숨결이 스며드는 향토자료들은 그 옛 모습을 상실하고만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제문화지가 창간된 이 후 지금까지 잊혀져 왔던 우리 고장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데에 있어서 실로 이 책이 많은 기여를 해오면서 인제 군민의 자부심과 애향심 그리고 문화역량을 고취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알리는 귀중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새시대 새문화 창달에 앞장서리라 믿으며, 제11집을 발간하기까지 노력하시고 애쓰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인제문화원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원 고 모 집 ◇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12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 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소재와 애향심을 담은 육고로 꾸며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모집부문

-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소재
-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 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 라. 경로효친수기 : 실천수기, 효행사례담
- 마. 기타 : 옛 사진, 관광사진, 옛 문헌, 사료집 등
- 바. 그 밖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12호'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접수기간 :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3. 접수처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사무국

☎ (0365) 461-6678 · 4173

'96 문화 사업 화보



이임원장 임 광 준 / 취임원장 박 해 순



좌로부터 : 사무국장 이만철 / 취임원장 박해순 / 이임원장 임광준 / 간사 장미향

'96 문화 사업 화보



마을 농악기 전시('96.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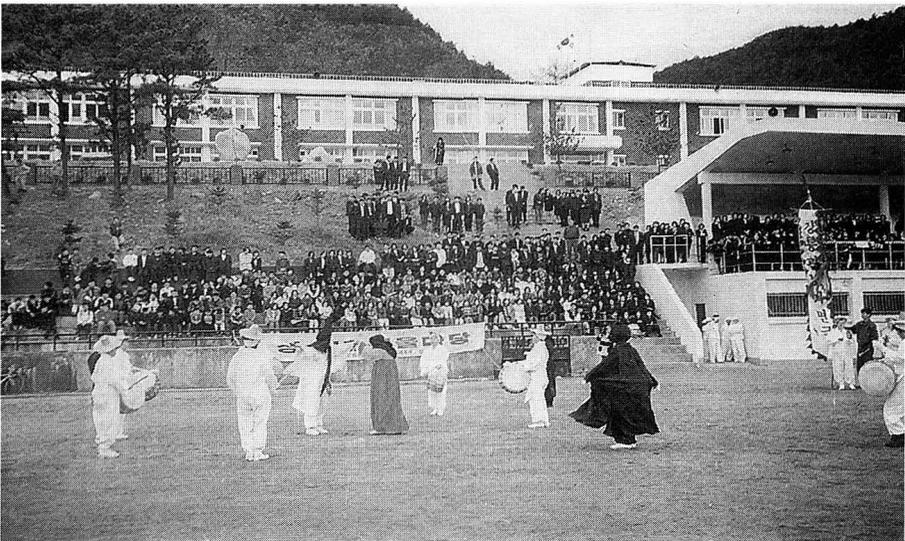


신춘음악회('96. 3. 30)

## '96 문화 사업 화보



청소년 어울마당('96. 1월 ~ 6월)



청소년 어울마당('96. 1월 ~ 6월)

## '96 문화 사업 화보



문화유적지 순례('96. 4. 29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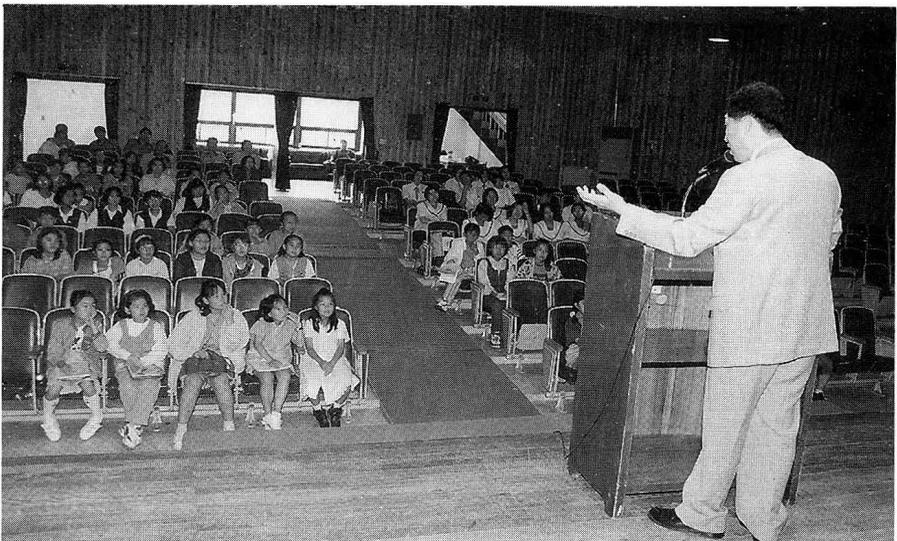


문화예술제 학생백일장('96. 6. 18)

## '96 문화 사업 화보



“시” 낭송회('96. 10. 10)



문학예술제 문학강좌('96. 6. 18)

## '96 문화 사업 화보



전통 종합예술단 초청 공연('96. 7. 1)



민속 예술 발굴('96. 9. 1 ~ 9. 20)

'96 문화 사업 화보



합강 문화제 개회식



사진 및 수석전시

# '96 문화 사업 화보



미술전시



서예전시

## '96 문화 사업 화보



제1회 차커리 아가씨



인제문화학교 수료식 및 개강식('96. 7. 5)

## '96 문화 사업 화보



꽃꽂이 강좌('96. 4. 1 ~ 9. 30)



홈패션 강좌('96. 4. 1 ~ 9. 30)

'96 문화 사업 화보



풍물 강좌('96. 4. 1 ~ 11. 30)



플룻 강좌('96. 4. 1 ~ 9. 30)

## '96 문화 사업 화보



주부가요 교실('96. 4. 1 ~ 6. 30)



전통의례 강좌('96. 4. 1 ~ 11. 30)

# 목 차

* 발간사 / 박해순 .....	7
* 축간사 / 이승호 .....	8
* 축간사 / 정재복 .....	9
* '96 문화 사업 화보 .....	11

## 제1장 기고문편

• 麟蹄郷校 建立 年代에 關한 研究 / 최병현 .....	31
• 효행하는 모범가정 / 최병권 .....	39

<b>기획평론</b> '님'의 철학, 그 이별과 희망의 변증법 / 손흥기 .....	44
--	----

•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복지 실현 / 이만철 .....	56
---------------------------------	----

## 제2장 교양편

•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는 .....	75
• 바르게 살아야 .....	76
• 배운것은 늘 익혀야 .....	77
• 삶의 명배우가 되어 .....	78
•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	79
• 시비는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	80
• 정신을 가다듬으면 .....	81
• 참 마음은 참 맛을 .....	82
• 고난은 기도를 가르쳐 준다 .....	83
•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	84
• 사람의 명은 마침이 있는 법 .....	85
• 예의가 아니거든 의가 아니거든 .....	86
• 옛 것을 찾아 잘 익혀 보면 .....	87
• 인간의 기본중심을 끌고 바르게 .....	88
• 전쟁은 그 나라의 중대한 일 .....	89
•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	90
•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	91
• 간교한 말은 이롭지 못하다 .....	92
• 배움의 인간은 망각 속에 .....	93
•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	94
• 사색은 산 지식, 난폭은 원망을 .....	95
•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	96

# 목 차

-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는 ..... 97
- 칭찬이 잘못되면 훼손되는 수도 ..... 98
- 하루 세 번씩 내 몸을 살펴본다 ..... 99
- 옷 차림으로 마음을 본다 ..... 100
- 인간은 욕심투성이다 ..... 101
- 죄와 벌은 미웁다 ..... 102
- 독서생활은 희망을 ..... 103
- 말 한 마디가 천금을 ..... 104
- 미련없이 물러 설 줄도 ..... 105
- 벗은 인정이 얽힌 대화자 ..... 106
- 부모님께 효도를 ..... 107
- 사람은 죽을 때야 철이 든다 ..... 108
- 색(色)은 가까이, 멀리 해서도 ..... 109
- 체험은 삶의 스승이다 ..... 110
- 충고하여 벗을 선도한다 ..... 111
- 환경에 적응해야 ..... 112
- 금은 진흙속에 있어도 금이다 ..... 113
- 용서는 곧 사랑이다 ..... 114
- ‘우정’이라는 나무는 꽃핀다 ..... 115
- 입을 조심하라! 병들어 간다 ..... 116
-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한다 ..... 117
- 젊음은 귀하다 ..... 118
- 지혜는 듣고 후회는 말한다 ..... 119
- 화가 있으면 복도 있다 ..... 121
- 용기는 위인을 만든다 ..... 122
- 가정을 일으키는 네 가지 근본 ..... 123
- 내 한 몸이 큰 몫을 ..... 124
- 재물은 분명하게 ..... 125
-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 126
-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 ..... 127
-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 128
-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 129
- 선덕을 쌓아 베푸는 집안에는 ..... 130
-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 131
- 내가 남에게 공을 베풀었거든 ..... 132

## 목 차

• 독서는 양식인 갈 길이다 .....	133
• 만사를 잘 다스리면 .....	134
• 살아 이별, 슬픈 마음 아프다 .....	135
•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	136
• 치솟는 불을 보고도 .....	137
• 풍문은 듣는 사람 마음대로 .....	138
• 허영은 인생을 추하게 한다 .....	139
• 가난을 물리쳐야 산다 .....	140
• 감정있는 곳에 생존있다 .....	141
• 때를 잃고 뒷북친다 .....	142
• 물이 와야 배가 간다 .....	143
• 사랑은 힘이 아니고 타는 정열 .....	144
• 아침은 푸른 희망을 .....	145
• 영예의 길도 무덤으로 통한다 .....	146
•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 .....	147
• 펜은 칼보다 강하다 .....	148
• 교육을 배제한다면 짐승 .....	149
•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	150
• 도움과 해로움을 주는 벗 .....	151
• 말은 삶의 긴요한 도구이다 .....	152
• 법도는 넓은 길 .....	153
• 사랑하는 사람은 못만나 괴롭다 .....	154
• 윗 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	155
• 인간만사는 새옹지마 .....	156
• 천하를 돌아보며 세상을 걱정 .....	157
• 탐욕은 걱정과 두려움을 .....	158
• 망각은 마음에서 떠남이다 .....	159
• 무소식이 회소식이다 .....	161
• 밤은 사색의 어머니다 .....	162
• 버릇이 잘 들어야 한다 .....	163
• 연애는 신성하다 .....	164
• 오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	165
• 의인의 마음은 정정당당하다 .....	166
•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다 .....	167
• 관찰은 문명의 눈을 뜨게 한다 .....	168

# 목 차

• 나쁜 말을 들었어도 .....	169
• 달 뜨면 오마든 입 .....	170
• 대장부의 목숨 바쳐 충성을 .....	171
• 물을 감상하려면 물결을 .....	172
• 반성은 마음의 밝은 거울 .....	173
• 상대가 방심할 때 공격한다 .....	174
•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	175
• 천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은 .....	176
• 똑바른 나무도 굽은 뿌리를 .....	177
• 돌로 맞고 숨으로 때린다 .....	178
• 복종심은 성공의 길로 .....	179
• 술은 근심을 몰아 낸다 .....	180
•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다 .....	181
• 일에는 순서가 있다 .....	182
• 자기 척도로 남을 판단한다 .....	183
• 처음이 좋아야 끝이 좋다 .....	184
•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평안 .....	186
• 남에게 수고와 괴로움을 .....	187
• 단결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	188
•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교제 .....	189
• 사랑으로 덕을 기른다 .....	190
• 상대방의 군대를 굴복 .....	191
• 어리석음은 병중의 병 .....	192
• 었지러진 물은 담지 못한다 .....	193
• 음악은 승리의 환성이다 .....	194
• 탐욕과 탐심은 버려야 한다 .....	195
• 갈 길, 지킬 길, 살 길 .....	196

## 제3장 꽃전설편

• 개나리 .....	199
• 국화 .....	200
• 나팔꽃 .....	203
• 달맞이꽃 .....	203
• 동백꽃 .....	205

# 목 차

• 도라지 .....	208
• 물망초 .....	208
• 무궁화 .....	210
• 민들레 .....	213
• 맨드라미 .....	214
• 목련 .....	216
• 모란 .....	217
• 백합 .....	219
• 봉숭아 .....	221
• 벗꽃 .....	224
• 백일홍 .....	225
• 오랑캐꽃 .....	227
• 장미 .....	229
• 진달래 .....	232
• 제비붓꽃 .....	234
• 철쭉 .....	235
• 패랭이꽃 .....	236
• 할미꽃 .....	238
• 해당화 .....	240
• 해바라기 .....	241
• 카네이션 .....	243
• 코스모스 .....	245

## 제4장 향토문예편

• 바람과 강물소리 외3편 / 한용운 .....	250
• 탈고, 혹은 출발선 외4편 / 손흥기 .....	256
• 일출 외2편 / 윤영희 .....	262

### ~~ 제1회 '95년 환경 문예 교실 ~~

수필	바위를 박차고 나온 새싹처럼 / 박정은 .....	269
	충혼탑을 청소하고 / 장윤주 .....	272
	우리 아빤 환경처장관 / 이윤경 .....	274
	환경보호 / 김현숙 .....	277
	대청봉의 하소연 / 한혜정 .....	280
시	재활용품 우체국 / 김옥희 .....	282

# 목 차

<b>시</b>	버들붕어가 한 말 / 김지연 .....	283
	내 고향에는 / 이동근 .....	285
	이상한 꽃나무 / 장미경 .....	286
	하늘 / 서정훈 .....	288
	지구가 살려달래요 / 김은순 .....	289
	이곳엔, 그곳엔 / 신환수 .....	291

## 〰 제2회 '96년 환경 문예 작품 〰

<b>수필</b>	우리들의 작은 실천 / 손진숙 .....	295
	자연사랑 / 정민영 .....	298
	환경숙제 / 정수정 .....	300
	나라 사랑하는 첫 걸음 / 이정선 .....	302
	해맑은 하늘이 있는 아침 / 조은미 .....	304
	자연을 통해 꽃핀 우정 / 김성은 .....	307
	할머니의 유산 / 고해숙 .....	311
	환경보존 우리의 책임 / 오미진 .....	314
	우리들의 푸른쉼터 / 김정복 .....	317
	무소유 / 심우찬 .....	322
우리와 함께 한 자연 / 노득희 .....	326	

<b>시</b>	힘을 모으자 / 김은성 .....	329
	보러오세요 / 장하늬 .....	330
	사람들의 무관심 / 임연신 .....	331
	작은 생명 / 이윤희 .....	332
	환경보호 / 김지희 .....	333
	아이에게 / 박경원 .....	334
	실개천 / 김운섭 .....	336
	꿈먹는 비둘기 / 김종규 .....	337

- \* 인재문화원 임직원 .....
- \* 인재문화원 회원현황 .....
- \* '96년 문화사업 추진실적 .....
- \* '97년 문화사업 계획 .....
- \* 인재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
- \* 향토사 연구회 회원모집 안내 .....
- \* 편집후기 .....

제 1 장

기 고 문 편



## 麟蹄鄉校 建立 年代에 關한 研究

최 병 현

---

### 1. 머리말

향교라 함은 문묘(文廟)와 거기에 부속된 과거의 학교(일명 교궁[校宮])로서, 제궁(齊宮)과 더불어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까지 계승된 지방교육 기관이다.

교육이 한 나라의 간성(干城)과 인재(人材)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그 역사와 뿌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인제지방의 유일한 교육 기관이었던 인제향교의 건립연대나 변천과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선조들의 기록관리에 소홀함도 원인이 되겠으나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수한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재해(災害)로 인하여 근거가 멸실된데 기인한다고 여겨져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제향교 건립연대를 살펴보면 1980년에 인제군에서 발행한 「麟蹄郡誌」에는 “이조시대 광해군 2년 경술(1610)에 금성(金城)향교와 함께 현감 이빙(李馮:1609~1611)재임 중에 인제면 남북리 동쪽에다 창건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1996년 인제향교에서 발행한 「麟蹄鄉校誌」에도 “조선조 광해 2년 경술(1610)에 당시 현감 이빙(李馮:1609~1611)이 재임중에 인제면 남북리 동쪽에다 창건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95년 강원도가 발행한 「江原道史」

---

에는 “향교의 창건연대는 광해군 2년에 창건 되었다고 하나 이것이 창건(創建)인지 중창(重創)인지 불확실하다. 당시의 위치는 인제면 서북리(西北里)였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東國輿地勝覽」이나 「新增東國輿地勝覽」 「關東邑誌」 「麟蹄邑誌」 「江原道誌」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1610년 보다 130년이나 앞서 향교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1610년에 향교가 창건 되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후학(後學)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줄 것인바 이에 실증적(實證的)인 면에서 인제 향교의 건립연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향교의 연혁

### 가. 교육 기관의 변천

고구려 시대에는 중앙에 관립(官立)으로 태학(太學)을 설치 운영 하였으나 특권계층 자녀의 교육만을 전담 하였으며, 지방에는 사숙(私塾)이 있어 경전(經典)과 궁술(弓術)을 교육시켰지만 이는 사립(私立)으로 운영되었다.

신라 시대에는 3국을 통일 한 후 공자(孔子) 10철(哲)과 72제자의 화상을 수입 안치하고 석존의 예(禮)를 행하다가 태학감(太學監)으로 고쳐 논어(論語)와 소경(素經)을 필수로 교육시켰다.

고려 시대에는 태조 13년(930)에 서경(西京)에 관립학교를 창립하고 의복 2과(醫卜二科)를 증설하였다. 성종 12년(992)에는 대규모 교사를 짓고 국자감(國字監)을 창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학당(東西學堂)을 두었다. 인종 5년(1127)에는 제주(諸州)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확충하라는 어명(御命)에 따라 각 주에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인씩을 두어 향리(鄉吏) 자제의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 인종 20년(1142)에는 “지방의 유생들이 향교(鄉校)에 모여 글을 지었다”는 기록도

---

전해지고 있다.

이로 보아 향교는 사실상 고려 인종시 부터 지방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그 보급이 확산되게 되었으나, 외세의 잦은 침입과 무인(武人)들의 난(亂), 원(元)나라의 내정간섭 등으로 폐절(廢絶)되었다가 공민왕(恭愍王)때 이후부터 향교가 재건되고 지방의 향교수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송유배불(崇儒排佛)을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한 조선왕조 개창(開創)이후다. 태조는 즉위교서(卽位敎書)에서 외방향교(外方鄕校)의 설치를 강조하였고, 흥학(興學)을 치국(治國)의 근본으로 유학진흥책(儒學振興策)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태조 1년(1392)에 중앙에 성균관(成均官)이란 최고학부를 설치하고 경내(京內) 4개소에는 4부학당(四部學堂)을 설치하였으며, 각 지방 목(牧) 부(府) 군(郡) 현(縣)에 1개소씩 교육 기관을 설치하였다. 태조 7년(1398) 7월에는 성균관 문묘완성 이후 각 도의 안찰사(按察使)에 명(命)하여 학교의 흥쇠(興衰)로서 지방 관고과(官考課)를 법으로 삼고 크게 학교의 쇠신을 꾀하기도 하였다.

#### 나. 인제향교의 연혁 고찰

인제향교의 건립연대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여러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이것이 잘못된 기록임을 쉽게 발견 할 수가 있다.

첫째 : 「麟蹄郡誌」를 보면 향교설립이 타 지역에 비하여 늦어진 요인이 “지역사적(地歷史的)으로 빚어진 제요인(諸要因)이라”고 하였다. 제요인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군·현에 향교를 설치하도록 지시된 것이 태조 1년(1392)인 만큼 2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1471년에 간행된 「경국대전」 이전(吏典) 외관직조(外官職條)에 지방 향교에 교수 및 훈도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동국여지승람」 인제현편에 훈도(訓導)가 배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바 지금까지 인제향교가 1610년에 창건(創建)하였다고 전해오는 것은 명백한 착오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 인제향교가 있었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 되는데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자료〉

자 료 명	간행연도	내 용
동국여지승람	1481	현의 동쪽 1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현의 동쪽 1리에 있다
관 동 읍 지	1871	현의 동쪽 1리에 있으며 20간이다
인 제 읍 지	1843	현의 동쪽 1리에 있으며 20간이다

이 외에도 1959년 강원도에서 간행한 「江原道誌」에는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鄉校 : 在郡東初在郡北光海乙卯縣監李峙移建于郡西純祖甲子縣監申鎭夏移建于郡東昭和甲戌因水災郡守鄭河亨移建于此……〉

즉 지금은 동쪽에 있으나 처음에는 군의 북쪽에 있던 것을 광해군 을묘년에 현감 이치(李峙)가 서쪽으로 옮겨 지었다. 또 순조 갑자년에는 현감 신진하(申鎭夏)가 군의 동쪽으로 옮겨 지었으며, 소화(昭和)갑술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군수 정하형(鄭河亨)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하여 인제향교의 유지(遺址)를 살펴 보면 별표와 같다.

셋째 : 인제향교의 창건(創建)을 했거나 중건(重建)을 했다는 당시의 현감(縣監)이나 군수도 각종 자료나 재임연대를 살펴 볼 때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감 이빙(李馮)은 이빙(李馮) 또는 이치(李峙)로 각기 다

르게 표기 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 료 명	관동읍지	강원도지	인제읍지	인제향토지	인제군지
간행연도	1871	1959	1843	1996	1980
표기내용	李 憑	李 峙	李 馮	李 馮	李 馮
판 본	필사판	인쇄판	인쇄판	인쇄판	인쇄판

또 한 연대별 재임자(在任者)를 살펴 보면

자 료 명	이건연대	현감·군수	재 임 기 간	비 고
인제군지	광해경술	李 馮	1609. 10~1612. 7	
인제향교지	광해경술	李 馮	" "	
강원도지	광해을묘	李 峙	" "	
인제군지	광해을묘	具 仁 基	1612. 11~1616. 6	
강원도지	순조갑자	申 鎭 夏	1742. 9~1745. 1	趙鎭大 1802. 8~1804. 6 洪 赫 1804. 7~1806. 12

표와 같으므로 당시 재임한 현감이나 군수가 잘못 표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 ① 「麟蹄鄉校誌」에는 “광해 2년 경술(1610)에 현감 이빙(李馮 : 1609. 10 ~1612. 7)이 창건(創建)하였다”고 되어 있고, 「麟蹄郡誌」에는 “광해 2년 경술에 현감 이빙이 창건하고, 광해 7년 을묘(1615)에 현감 구인기(具仁基 : 1612. 11~1616. 6)가 이진(移建)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江原道誌」에는 “광해 을묘년에 현감 이치(李峙 : 1609. 10~1612. 7)가 이진(移建)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감 이빙(李馮)과 이치(李峙)를 동일 인물이라고 볼 때 「麟蹄郡誌」와 「麟蹄鄉校誌」의 기록으로 보면 연대와 당시 재임 현감이 일치하고 있으

---

나, 「江原道誌」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건연대를 맞추자면 현감이 구인기(具仁基 : 1612. 11~1616. 6)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현감을 맞추자면 이건연대가 광해 2년 경술(1610)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록에 착오가 있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될 일이다.

- ② 또 「江原道誌」에 “순조 갑자년에 현감 신진하(申鎭夏 : 1742. 9~1745. 1)가 군의 동쪽으로 옮겨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도 잘못되었다. 순조 갑자(1804)년에 재임한 현감으로는 조진대(趙鎭大 : 1802. 8~1804. 6)와 홍혁(洪赫 : 1804. 7~1806. 12)일 뿐만 아니라, 현감 신진하(申鎭夏)의 재임연대로 보면 영조(英祖)20년 갑자(1744)에 해당되므로 큰 오류(誤謬)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情況)을 고려해서 “광해 2년 경술(1610)에 현감 이빙(李馮)이 기존의 향교를 중건(重建)하고, 광해 7년 을묘(1615)에 현감 구인기(具仁基)가 군의 서쪽으로 이건(移建)하였으며, 순조 4년 갑자(1804)에는 현감 홍혁(洪赫)이 군의 동쪽으로 이건(移建)하였다”로 바로 잡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인제향교의 건립연대를 확실히 밝힐 수 없듯이 다른 지역의 향교도 마찬가지로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이 최초로 간행된 1481년 그 이전에 이미 전국 각 지방에 향교가 있었음을 전해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만큼 인제향교가 광해 2년 경술(1610)에 건립되었다는 내용은 바로잡아야 한다.

### 3. 맺는 말

인제향교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앞으로 인제향교의 연혁을 논(論)하려면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80년 이전에 창건한 것으로 보아지며, 광해 2년 경술에 현감 이빙(李馮)이 중건(重建)하고, 광해 7년 을묘에 현감 구인기(具仁基)

---

가 군의 서쪽으로 이건(移建)하였으며, 순조 4년 갑자에는 현감 홍혁(洪赫)이 군의 동쪽으로 이건(移建)하였다. 또 소화(昭和)갑술(1934)에는 수해로 인하여 군수 정하형(鄭河亨)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라고 해야 옳다. 또 광해 2년 경술에 재임한 현감의 이름이 이빙(李馮), 이치(李峙), 이빙(李憑)으로 달리 표기되고 있는데 유일한 필사본으로 전해오는 「關東邑誌」에 이빙(李憑)으로 표기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 이름이 가장 올바른 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관련자료〉

경국대전(1471)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관동읍지(1871)

인제읍지(1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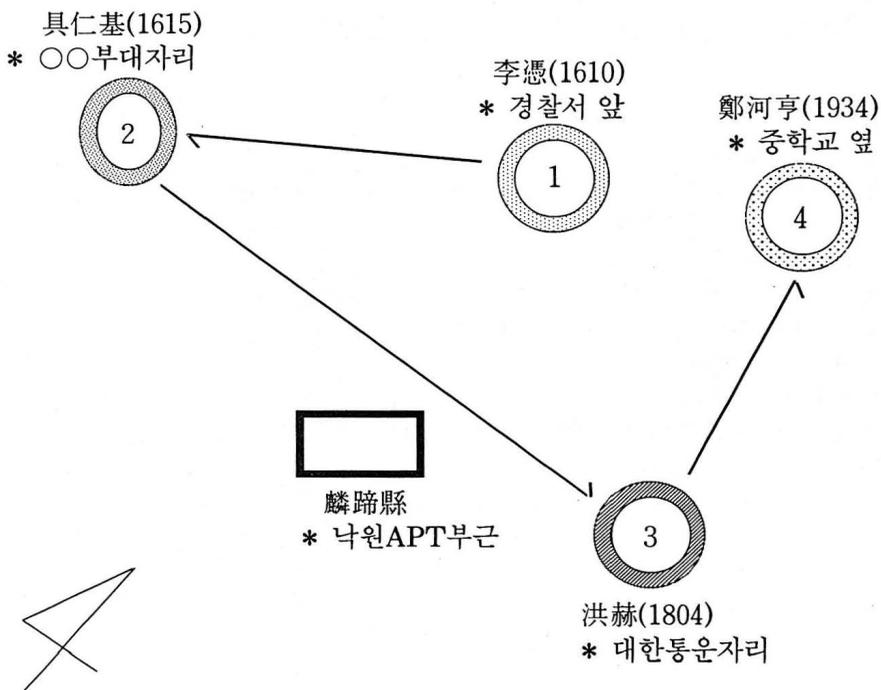
강원도지(1959)

인제향교지(1996)

인제군지(1980)

조선후기 향토조사 연구(충청남·북도 및 강원도편·김호일<金鎬逸>)

## 麟蹄鄉校位置變更圖





## 효행하는 모범가정 (慶州 崔氏 4대가 오손도손)

인제군 북면 한계2리 2반 최 병 권

일찌기 한 시대를 대표했던 율곡은 “孝”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한탄 한 적이 있다.

孝는 실천 윤리으로써 과거와 오늘은 그 생활 방식과 그 가치기준을 삼는 일도 달라져야 한다고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오래 전에 생활이거나 현 시대의 생활이거나 또 종교적인 윤리관에 있어서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족 윤리관인孝 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孝는 생명의 존엄성에 그 가치가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 문화중 효행의 전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이 간직한 고유한 전통의 풍습인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효행은 과거와 달리 자연스럽게 인간의 가치있는 덕목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효행을 과거처럼 수직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관계로만 이루어 진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요즈음은 고도의 산업 발달과 함께 우리들의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져 단순 가족의 단위인 핵가족의 가정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와 함께 효성속에 무한한 인정의 샘이 있고 화목한 인간 생활이 있는 것이다.

이제 한 편생을 효행으로 일관한 삶을 살아 오면서 한 가정 4대가 오손도손 모여 한 지붕 밑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과의 상호 보완과 상호 존중과 평등의 사상이 담긴 효를 실천해 가는 우리 한국 전통 모범 가정의 가장이신 최병권(67세)씨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씨는 “전통 모범 가정”으

---

로 1995년도 강원도지사의 표창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다.

최병권씨는 1929년 4월 7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480번지에서 부崔今龍, 모 金福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 하였으며 1958년 4월 29일 許元子(60세)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 2녀, 그리고 손까지 4대 8명의 식구를 거느린 다복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위로 모친(86세)을 모시고 선조 대대로 현 거주지인 인제군 북면 한계2리 2반에서 농업을 생계 수단으로 하여 전담 9,000여평을 손수 경작하며 살아오고 있다.

최병권씨는 남달리 한국 고유 전래의 미풍 양속에 따른 유교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조부 및 부친에게서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가족 관념이 두터워 위로 노모를 극진히 모실뿐만 아니라 아래로 자녀들에게 가족 사랑과 이웃 어른 공경하기 생활화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된다.

일제 시대의 소학교를 졸업 후 한학과 독학을 꾸준히 하여 6.25 사변 후에 면 서기 시험을 거쳐 인제군 북면 사무소에 산업주임으로 다년간 근무하였으며, 뜻한바가 있어 그 면서기를 그만두고 농촌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 하였다.

우리 나라의 농촌 재건과 국가 경제 부흥을 부르짖던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마을 리장으로(지금의 원통8리에서 부터 한계3리까지) 그 넓은 지역을 발이 부르뜨도록 누비면서 8년동안 불철주야로 새마을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교량가설, 마을 안길 포장, 한가정 한통장 갖기운동, 절미 저축운동과 소득작목 개발등에 힘써 왔음은 물론 부녀회 활성화, 청소년 선도등 한계리를 군 관내 최우수 마을로 육성하는데 크게 공헌 하였다.

또한 한계초등학교 육성 회장으로 5년간 학교 육성 발전과 어린 꿈나무가꾸기에 정성을 쏟았으며, 특히 학교 토지 조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지대한 공적을 지양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인제군 북면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또 한계2리 정화 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헌신하여 왔으며, 지금은 후진 양성을 위해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청소년 선도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

1986년도에는 「내고향 좋을지구」 KBS TV 프로에 주역으로 출연하여 인제 백담사를 중심으로 한 “인제 심마니” 방송이 전국 생방송을 통하여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방영된바도 있었다.

30여년간 주기적으로 봄, 가을이면 내설악산을 중심으로한 심심유곡을 찾아 며칠씩 야영을 하며 해마다 산삼(5구)를 캐는등, 그럴때면 으레히 불우이웃과 가까운 친·인척들에게도 다소의 도움을 주는 일을 걸르는 일이 없었다.

부친 崔今龍씨는 1984년 6월 5일 사망 하였으며, 현재 모친 金福씨는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매우 좋으시며 밖의 출입은 물론 집안의 잔일도 잘하고 계시다. 이는 오직 가족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것이다. 일제 시대와 6.25 등 한국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옛 이야기 같은 보릿고개를 몸소 겪어오신 모친으로서의 한편생의 고생이야 오죽 했을까마는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는데에는 부인 許元子씨의 극진 하고도 인간적인 효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金福 할머니는 1994년도에 KBS 제1라디오 “홀리건 옛 노래가락”프로에 이웃 할머니 한 분과 들어서 출연하여 잊혀가는 노랫말의 자료를 후세에 전하게 하는 등 신·구시대의 할머니로서 건강을 과시 한 적도 있었다.

부인 許元子씨는 인제군 인제읍 함강리 38번지 許興鎭씨 가에 둘째 딸로 태어나 역시 가정 교육을 잘 받은 규수로 1958년 4월에 가까운 친척의 중매로 최병권씨에게 시집온 후 38도 이북 지역으로 폐허가 된 가계를 일으켜 세우는데 수 없는 고생을 무릅쓴 희생으로 오늘까지 한 가문을 지탱해 왔을뿐만 아니라 남편의 각별한 뜻을 잘 받들어 시부모를 극진히 모셔왔으며, 시부께서 사망 하시자 시부에게 못다한 효성을 시모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 효부중의 효부요 이웃의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는 부덕(婦德)의 산 증인이라 할 것이다.

장남 崔相範(39세)는 1985년 5월에 徐明姬와 결혼하여 현재 속초시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삼남인 崔相熙(33세)도 1989년 3월 李点順과 혼인하여 양양에서 대리석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막내딸 崔承姬(21

세)는 한계리에 있는 내설악 생수 공장에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최병권씨의 유일한 농업을 계승한 차남 崔相鎭(35세)은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소재한 원통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친의 뜻을 받들어 외지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농업에 종사하며 인제군 북면 청년회 부회장으로 웃어른 공경하기, 인사잘하기, 기초질서 지키기,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 청소년 선도에 솔선수범 할뿐만 아니라 내설악 산악구조대 총무로서 인제 내설악 등산객을 통한 산화경방 자연보호 홍보와 인명구조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들의 작목개발과 영농개선에 앞장서 오고있는 모범 청년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한계2리 마을 총무, 한계2리 반장까지도 겸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심혈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그간 받은 표창만해도 대한적십자 총재표창, 강원도지사 표창, 인제군수 표창, 인제경찰서장 표창, 인제군 북면장 표창, 마을효도상과 각종 감사장(패)을 무려 15회나 수상한 바 있다.

자부 金智淑(32세)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613번지에서 1989년 3월 10일 최씨가(崔相鎭)에 시집온 층층시하의 며느리로서 평소 심덕이 매우 착한 명문가의 딸로 조금도 부족함이나 손색이 없이 웃어른을 잘 모실뿐만 아니라 특히 조모 봉양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므로 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은 물론 가게 운영을 슬기롭게 잘 꾸려 가므로써 이웃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모범 주부이기도 하며 조기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이 며느리에 대하여 조모와 시모의 칭찬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다. 필자를 붙들고 시간 가는줄도 모르게 그 칭찬이 대단하다.

그리고 손자 최태진(7세), 손녀 최선진(5세)은 어려서부터 모범 가정에서 전통적인 예의 범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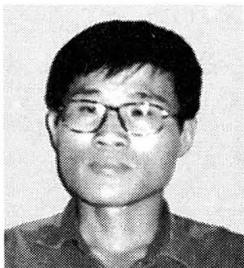
지난 95년도에 필자가 인제군청 가정복지계장으로 재직 할 당시 최병권씨의 공적을 심의한바 있었고, 그동안 4대의 대가족이 어떻게 살아 가실까 몹시도 궁금하여 근간에 방문한바 있었다.

요즈음 차츰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 너무 심화되어 사회적인 병리를 낳고, 노인네들이 가족들로부터 내 쫓기어 거리에 나 앉는 현실에

---

서 4대가 한 지붕 밑에서 아주 오랜 옛날같이 정답게 살아가고 있음은 물론 전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등 한국 전통의 미풍양속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모범 가정을 보아 지면에 소개하게 되어 기쁠 뿐만아니라 오늘의 모든 가정들의 귀감이 되고도 남으리라 믿는다.

(필자 : 내린문화회 韓 龍 雲)



## ‘님’의 철학, 그 이별과 희망의 변증법

— 萬海 한용운의 생애와 文學 —

글 / 손 홍 기(시인·내린문학회원)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衆生)이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薔薇花)의 님이 봄이라면 MATCHINI의 님은 이태리(伊太利)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羊)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 「군말」 전문

만해 한용운, 그를 어느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실로 어렵다.

고결한 지조와 대쪽같은 정열로 민족정기를 지킨 실천적인 민족 운동가 이었고 불교의 선각자적인 대강백, 대선사였으며 사랑의 증도가(證道歌)를 노래한 근대 시성(詩聖), 민족 시인이었는가 하면 자유·평등사상, 민족·민중사상, 진보·통일사상을 실천한 대사가가 이기도 했다.

한용운은 1879년 8월 29일(음력 7월 12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청주인 한응준과 온양인 방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출생했다. 그는 향리에서 전통적인 서당 교육을 받았으며, 9세에는 서상기(西廂記)를 독파하고 「통감」, 「서경」의 삼백주(三百註)를 통달하여 신동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1904년 그의 나이 19세에 부인 천안 전씨와 결혼하여 그해 말에 첫아들 보국(保國)이 태어났으나 그의 삶의 목표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륜적 고리에 묶여 있기보다 깊게 고뇌하는 자로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으로 처자를 등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1905년 1월 설악산 백담사에서 김연곡(金蓮谷) 스님의 간곡한 권고로 불도에 뜻을 가질 결심을 하고 법호 만해(萬海)와 법명 용운(龍雲)을 받아 승려 생활을 시작하였다.

1910년 을사년(乙巳年)에 일제의 강압으로 망국의 조약이 성립되어 국내의 민심이 소란해지고 사방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그는 산사(山寺)의 문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너 남북만주를 돌아다니다가 30세가 되던 해에 신문물을 시찰하고 불교를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토쿄등지를 순유하였으며 駒澤大學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청강했다. 이때 우리나라 유학생들과도 사귄 기회를 가졌는데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최린과 특별한 교분을 갖게 되었다.

33세가 되던 해 조선 총독부는 ‘조선 사찰령’을 공포하고 우리 나라 불교를 일본 불교에 예속시키는 동시에 사찰에 대한 권리를 장악하려 하였다. 그는 박한영등과 손을 잡고 반대 운동을 벌이는 한편 백담사에서 「조선 불교 유신론」과 「불교 대전」을 집필하여 이 땅의 불교를 근대화하는데 전력하였으며 ‘불교 총본산’을 창설하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사찰 내에 있는 산신각과 칠성각 철폐 운동을 벌이고 대처승 제도를 주장하여 불교의 일대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1운동에는 옥당 최남선이 초안한 「기미 독립선언서」를 검토하여 ‘공약삼장’을 첨가하고 경성 명월관 지점에서 민족 대표 33인을 대신하여 만세 삼창을 선창한 다음 ‘이제 내 나라에서 죽으니 여한이 없다’는 요지의 말을 남기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변호사·사식·보석을 거부하고 3년의 형기를 마치는 중에 옥중에서 ‘독립의 서’를 써 독립선언서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명문을 남겼다.

1925년 47세가 되던 해에 다시 설악산으로 들어가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88편으로 된 시집을 탈고하여 생명 사상, 사랑의 철학을 겨레의

가슴에 심어 주었다.

1944년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 냉돌위에서 끝내 지조를 지키며 순국하기까지 그가 선구한 실천적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중한 민족 사적 덕목이 되고 있다.

풍난화(風蘭花) 매운 향기  
    님에게야 건줄 손가.  
이 날에 님 계시면  
    불도 아니 더 빛날까.  
    불토(佛土)가 이 위 없으니  
    혼자 돌아오소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남긴 추모의 시처럼, ‘風蘭花 매운 향내’ 그것은 그의 인격·절조·예술, 그리고 생애 모두였다.

선생의 생애와 사상은 스님의 정신의 요람이고 문학의 고향인 백담사와 더불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오래도록 민족의 가슴에 빛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 ‘님’에의 송가(頌歌), 희망에의 영가(靈歌)

— 詩人으로서의 萬海 —

3·1운동의 주동자로 3년여에 걸친 만기 복역을 마치고 그는 설악산으로 향하는 행장을 꾸렸다. 황토 먼지 이는 강원도 고갯마루 길을 두벅두벅 걸어서 그의 정신의 고향인 내설악 백담사를 향했다.

1925년 10월 16일 마침내 우리 시 문학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님의 침묵」을 탈고한다. 무엇보다 그는 ‘군세계 생각하여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하는 슬기로운 시심(詩心)의 눈동자를 선보인다.

한용운만이 창시할 수 있었던 큰 깨우침의 막힘 없는 증도가(證道歌)인, 한국 시문학(詩文學)의 놀라운 기적, 곧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닌 사

상의 노래로 날개를 펼친 님의 침묵의 세계라는 지평이 한국 문학사에 활짝 열리게 된다.

시집 「님의 침묵」의 서시(序詩)인 ‘군말’에서 만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찌니의 님은 이태리다./님은 내가 사랑 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 -종락

자신의 시가 ‘님의 노래’임을 선언하는 대목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기룬 것은 다 님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자 나를 사랑하는 실체가 곧 님이다. 그가 석가라면 그의 님은 중생이며, 그가 마찌니와 같은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그의 님은 한국이다. 칸트의 님이 철학이라면 만해의 문학이 님과 다를 것일 수는 없다. 장미꽃의 님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님이 되는 봄비는 그의 님이 아니 될 수 없다. 그가 사랑하여 기리는 일체 존재는 그 대로 님이 되어 준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만해의 님이 있다.

시집 <님의 침묵>이 우리 문학사의 성전의 하나인 것은 조금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은 한용운의 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 그의 시에 나타난 ‘님’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족·조국·불타·중생 그리고 불교의 진리 등으로 님은 해석되어 왔다. 이와 같이 님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풀이되는 이유는 그의 시집에 수록된 거의 모든 시가 님을 중심으로 커다란 의미의 그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님은 떠나가고, 시인은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님이 다시 되돌아 올 것을 호소하는 기다림에 가득차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 기다림이 님과의 이별로부터 비롯되며, ‘이별은 기다림

을 통해'더 크고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 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 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님의 침묵」 전문

님이 떠나감을 부정함으로써 한용운의 기다림은 역설적인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슬픔의 힘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심적 근거는 만남과 헤어짐, 헤어짐과 만남, 삶과 죽음의 변증법으로 뻗어 나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게 된다. 삶의 무상함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시적 통찰은 사랑의 덧없음을 말하는 동시에 헤어짐과 무상함도 드러내어, 헤어짐이 만남으로,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집 「님의 침묵」은 시편 전체가 이별과 만남을 상대측으로한 존재론적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다. 이별은 만해시 전체의 대전제로서, 생성에 이르는 방법적인 원리이며 사랑을 완성하는 자율적인 법칙인 것이다. 님을 이별한 시대는 바로 침묵의 시대, 상실의 시대인 것이며 따라서 언젠가 맞이하게 되는 만남의 시간은 바로 참된 낙원 회복의 시대, 즉 광복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만해의 시는 ‘기다림의 시’ 또는 ‘희망의 시’인 것이다.

## 부정과 역설의 미학

만해의 시는 도처에서 부정적 세계관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부정적 사유와 비극적 세계 인식은 만해가 당대 사회를 모순의 시대로 파악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하 식민지 상황이라는 시대에는 정상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의 시대를 침묵의 시대, 부재의 시대로 파악하여 이별의 모티브를 설정한 것과 함께 부정적 세계 인식을 통하여 그에 대한 부정적 저항을 시도한 것이나, 이별이 더 큰 만남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적인 원리였던 것과 같이 부정은 참다운 긍정을 이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저항시로서의 만해시의 참된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波紋)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루한 장마 끝에 서풍이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틈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  
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알수없어요」 전문

위의 시 〈알수 없어요〉를 비롯한 〈나룻배와 행인〉 〈복종〉 〈사랑의 존재〉 〈님의 침묵〉등 만해의 시 전반에 여성적인 수동적 정서와 표현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사랑을 호소하는 주체는 여성으로 나타나 있으며 시적 분위기 또한 여성적인 정감으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여성 주의는 불교의 관음사상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한국 전통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왜냐 하면 고려가요는 물론 많은 시조·한시·가사·민요등의 저변을 이루는 것이 여성적인 분위기와 주체, 그리고 이와 상통하는 ‘한과 눈물’의 애상적 정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강 정철이 왕권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사미인곡」을 쓴 것처럼, 만해도 님이 침묵하는 시대에 잃어버린 조국과 민족에 대한 광복의 소망을 역설화한 여성주의적 방법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즉, 일제라는 지배적 폭력에 대항하는 길은 직접적인 독립 투쟁이 있을 수 있는 한편 문학적으로는 우회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만해시의 여성주의는 정감적인 호소력을 유발하기 위한 표면적 기법일 뿐 그 내면에는 저항과 극복 정신이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해시는 여성 주의로 특징 지워지는 표면적 정서와 극복이라는 심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만해시가 전통시로서의 면모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 혁명의 시인, 민족 문학의 횃불

3·1운동을 전후로 하여 이 땅의 근대 지식인들이나 독립 운동가들은 만해와 달리 민족 역량이나 민중의 저력을 믿지 않았다. 열강에 독립을 청원한다거나 외교에 의한 위임 통치를 내세우는가 하면 준비론(準備論)을 들고 나오고, 민족 개조론이라는 것을 전개하여 외세의 강권 통치에 동조

하거나 자치론(自治論)으로 투항하며 식민정책 수행을 합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신문화 운동이나 문예 운동까지도 봉건적인 사고 체제를 불식하지 못한 채 식민지 열강의 새로운 멋을 도입하기 일쑤였고, 단순하게도 식민지 지식인의 허무 의식을 전파하는 데 그친 실정이었다. 국초 이인직,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의 신문학과 그 아류의 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1920년대 들어오면서 활기를 띤 동인지(同人誌)활동이라는 것도 참된 민중 문학이나 민족 문학 전개에 그다지 큰 구실을 하지 못했다. 식민지 식자 청년들의 발성만 다소 새로워진 정도인데, 그나마 외래 문학의 모방 수준이 고작이었다.

한편 만해 한용운은 그들 식민지 문학도처럼 이렇다 할 무슨 주의나 서구 지향의 문예사조로의 홍수 속에 휩쓸리지 않고 전통적인 시정신의 심화와 확대를 통해서 창조적 계승을 성취한 것이다. 향가에서의 종교적 깊이와 고려가요에서의 서민적 정한, 그리고 황진이 등의 시조에서 고도한 은유법과 송강, 매천 등의 탁월한 전통시에서 그 정신과 방법상의 맥락을 계승하여 민족주체성을 시적으로 탁월하게 형상화한 민족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일부 그릇된 모더니즘이나 이미지즘에 중독된 문사들에게만 이별의 시인이요, 혹은 신비주의 시인이 된다. 만해야말로 한국 문학 사상 리얼리즘 시문학의 확실한 선봉이며, 꺼지지 않는 역사의 발전을 노래한 혁명 시인이며, 민족 문학의 햇불이라 아니할 수 없다.

## 한국 문학사의 거대한 산맥

만해 한용운은 그 생애에 ‘님’의 마음과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2백여편의 시와 30여편의 시조, 160여편의 한시를 발표하였다.

한국 신문학사를 논하는데 있어 그의 문학은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봉우리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것은 단지 그의 문학이 지닌 예술적 형상성의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문학은 험난한 역사를 살아가는 예지와 용기를 가르쳐 주며, 현실적인 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과 희망을 불러 일으켜 준다는 점에서 참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용운의 문학사적 연구와 평가는 널리 진행되어 왔지만 특히 송옥은 현대시에서의 한 전범으로서 한용운은 “타고올을 능가하는 시성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송옥, 「시학 평전」, 일조각, 1963.)고 강조하고, 이에 “신 문학사상 가장 높고 넓으며, 깊은 인간성을 표현한 작품이며, 「님의 침묵」은 이 세계에서 오직 한 권밖에 없는 사랑의 증도가이다.”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나아가 송옥은 “장차 이 나라의 시인들은 ‘시학’을 배우려고 님의 침묵을 읽는 것은 드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전통을 생생하게 몸에 지니고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여 ‘사느냐’이 문제와 맞설 때마다 「님의 침묵」이 지닌 사자후에 귀를 기울이리라”고 예언적 평가까지 내렸다.

만해의 생애는 역사와 민족을 위하여 즐기차게 싸운 하루였고, 그의 정신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성스러운 불꽃이었다. 영생토록 불타는 만해의 열은 오늘도 민족 운동과 문화 운동의 지표가 되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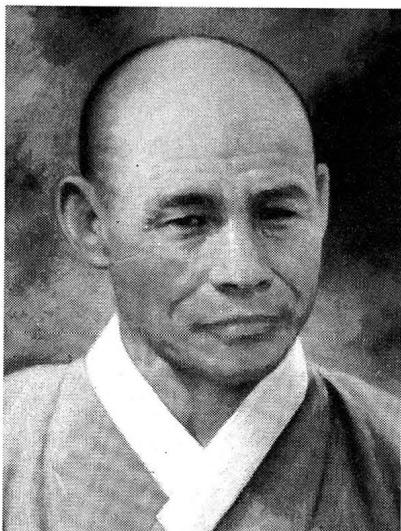
비록 불우한 삶속에서 선생은 가셨지만, 그의 높은 사상과 일관성 있는 행동에 따른 실천 의지와 고결한 예술혼은 우리가 되살려야 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며 어려운 시대일수록 ‘풍난의 매운 향내’로서 겨레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그 빛과 향기를 더해 갈 것이다.

#### 참고문헌

1. 박노준·인권환, 「만해 한용운 연구」, 통문관, 1960.
2. 송옥, 「시학평전」, 일조각, 1963.
3.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 비평사, 1979.
4. 최동호, 「한용운」, 건대출판부, 1996.
5. 임중빈, 「만해 한용운」, 명지사, 1993.

## 한용운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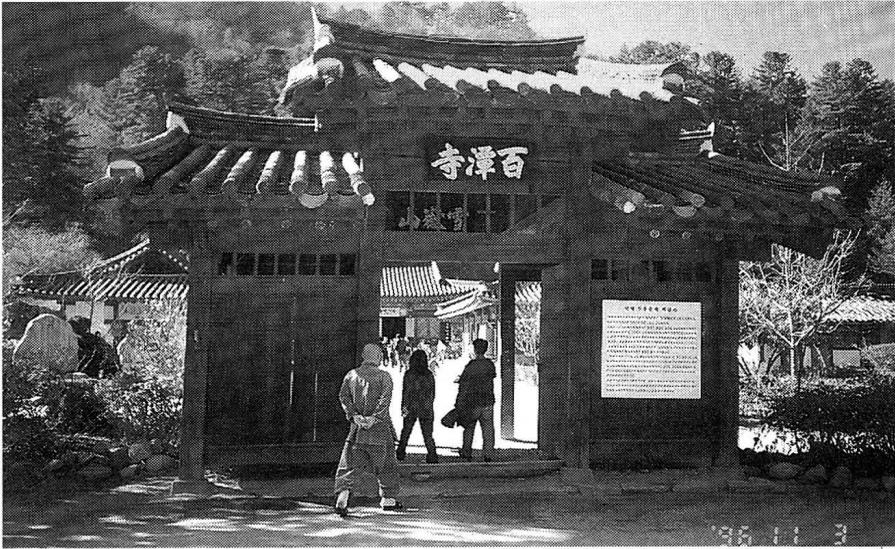
- 1879 8월 29일 :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한응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 1905년 : 설악산 백담사에서 승려로 입문 이후 블라디보스톡 일본 등을 여행하며 세계사의 큰 변화를 파악
- 1910년 : 한·일 불교동맹조약 체결을 분쇄 그 후 만주에 망명하여 독립운동 지원
- 1913년 : [조선불교유신론]을 발간하여 인간정신의 개혁을 부르짖음.
- 1914년 : [불교대전]발간
- 1917년 : 정선강의 [채근담]발간
- 1917년 12월 : 설악산 오세암에서 참선중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 <오도송>을 남김
- 1918년 : [유심지]창간, 민중의 귀와 눈을 뜨게 함.
- 1919년 : 3·1운동의 선봉에 서서 행동강령으로 공약삼장을 첨가  
옥중에서 독립선언서인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발표
- 1923년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1924년 : 조선 불교 청년회 조직
- 1925년 : 설악산 오세암에서 [십현담 주해]와 사랑의 중도가 [님의 침묵]을 남김
- 1927년 : 신간회 발기
- 1933년 : 서울 성북동에 심우장이란 그의 생애 최초의 집을 지음.  
총독부를 마주하기 싫다고 북향으로 집을 지어 더욱 유명.
- 1935년 : 신문 연재소설 [흑풍]발표
- 1936년 : 신문 연재소설 [후회]발표
- 1938년 : 신문 연재소설 [박명]발표  
그외, 수많은 논설문과 번역문, 수필 등을 발표.
- 1944년 6월 29일 : 심우장에서 입적, 그의 나이 6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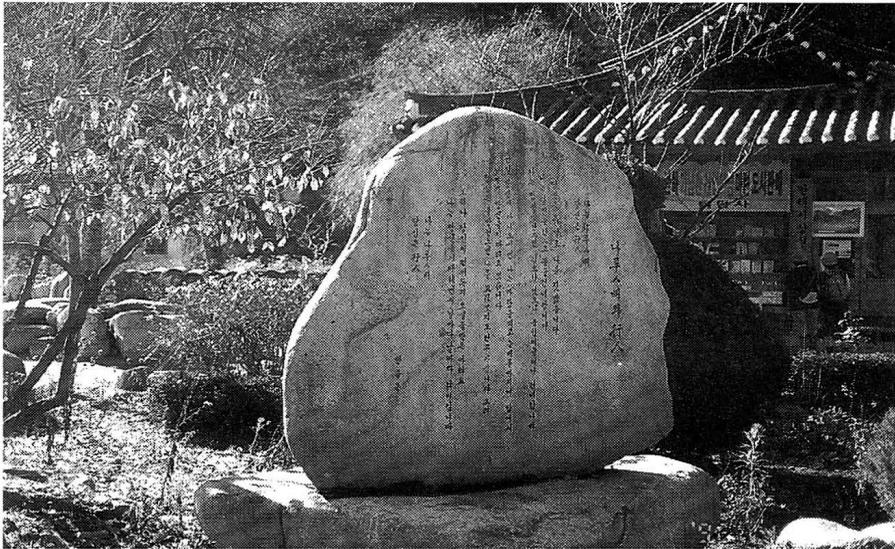
■ 만해 한용운 선생 영정



■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에서 최초 건립한 <만해당>



■ 만해 문학의 고향, 사상의 거처인 백담사



■ 만해 시비 “나룻배와 행인”



##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복지 실현

인제 문화원 사무국장 이만철

- |                        |                  |
|------------------------|------------------|
| 1. 머릿말                 | 4) 정부재정지원의 확대    |
| 2. 문화정책의 과제와 문화학교 운영방향 | 3. 인제문화학교 운영     |
| 1) 문화정책과 문화교육          | 1) 인제문화학교 설립배경   |
| 2) 문화정책과 문화학교          | 2) 인제문화학교 사업현황   |
| 3) 문화학교의 운영방향          | 3) 인제문화학교 운영 문제점 |
|                        | 4. 결 론           |

### 1. 머릿말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매우 바쁘고 보람을 느끼는 한 해였다.

그것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되는 한정된 보조금으로 매년 틀에박힌 몇 가지 문화사업을 전개해 오던 해와는 달리 금년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취미생활로 문화소양을 높이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통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깊은 뜻을 두고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제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제2기로 하여 6개월 동안 꽃꽂이/홈패션/풍물/플룻/주부가요교실/전통의례(상가의례) 강좌를 매일 주야로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문화교육 사업을 전개해 온 것이다.

---

이와같은 문화교육 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강좌를 받았던 많은 주민의 수강생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취미생활과 정서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지혜를 얻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매우 반응이 좋았으며 계속 사업으로 모두 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치있고 보람있는 문화교육 사업은 90년에 출범한 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국민 문화진흥사업의 전환인 것으로서 전국 어느 지역이나 주관처만 다를뿐, 사회교육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참여속에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문화교육 촉매사업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과 그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에 관하여 먼저 좀더 깊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에 거쳐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문화체육부와 한국문화학교에서 주관하였던 문화학교 운영관계자 연수교재를 인용하여 좀더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

## 2. 문화정책의 관계와 문화학교의 운영방향<sup>1)</sup>

### 1) 문화정책과 문화교육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발전에 관련된 보다 좁고 세련화된 분야에 한정된다.

그런데 문화발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념과 이상 및 여러 창작품들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제반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발전을 이러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로 이해할 경우 문화발전에는 세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예술적 차원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적 요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사회적

---

1) 이 증인 :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연구실장

층을 예술로부터 소외시켰던 경제적·심리적 장애들을 감소시킴으로써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을 전달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의 차원은 실존하는 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존하는 문화란 문화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경이 개인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환경에는 자연적·건축학적인 도시화된 환경의 개선과 문화시설 정보·오락·예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가의 선용 등이 포함된다.

셋째의 차원은 지식과 문화의 관계로서 국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양있는 국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양있는 국민은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가 아는 모든것을 자기의 개인적 철학속에 통합시킨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화발전의 내용과 결부시켜 문화정책의 영역을 대별해 보면

- ① 문학적 및 예술적부분
- ② 일상생활의 환경
- ③ 교육과 문화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포함된다.

한편, 문화정책의 기능은

- ① 문학적 예술적 유물의 보존 전승
- ② 문학적 예술적 역사적 유물의 교육 훈련
- ③ 문학적 예술적 및 역사적 유물의 연구 훈련
- ④ 문학적 예술적 및 역사적 유물의 보급 확산의 네가지 기능이 있으며 이들 기능 가운데서 보급과 확산 기능이 많은 사람들을 예술적, 지적 활동이나 예술작품에 접근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나라들의 문화정책 목표를 종합해 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는 예술적 자원을 널리 보급해서 일반대중이 문화에 접근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목표는 문화생활의 민주화를 지향하며 문화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 둘째는 문화매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셋째는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하는 것
- 넷째는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
- 다섯째는 문화 생산을 위한 국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 여섯째는 문화의 국제 교류와 자주문화 형성이다.

이상에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과 실제들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거니와 문화정책의 각 부문에서 문화교육의 필연성과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그것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문화교육은 문화발전의 차원에서는 실존하는 문화(특히 여가생활)와 교양있는 문화국민의 수준향상에 필요하고 문화정책의 영역에서는 교육과 문화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문화정책의 기능에서는 문화예술의 보급과 확산기능에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교육은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문화생활의 민주화와 문화수요 창출 및 문화적 생산을 위한 국민의 잠재력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교육은 문화정책의 새로운 과제로서 개척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국가 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불가결하다.

모두를 위한 문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문화교육”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겠으며, 문화교육은 문화적 실체를 수동적으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 문화를 직접 접촉하여 획득하고 확보하는 자율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교육은 특정 대상집단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창의적이고 의미있고 독립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문화교육은 지역문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의 황량함”에 대응해야 한다.
- 문화교육은 새로운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고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상실된 의사소통 연계에 대응해야 한다.
- 문화교육은 지나치게 인지적 지식을 강조하고 “무거운 머리”와 “감수성의 상실”을 초래한 교육제도에 대응해야 한다.
- 문화교육은 비판적인 판단과 기준을 교육하고 매체를 다루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미디어”의 보편화에 대응해야 한다.
- 문화교육은 “여가생활”에 대응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짧아지고 작업시간에서 배제됨에 따라서 근무형태로 구조화 되지 않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상적인 근무외에 가치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
- 문화교육은 “여가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응해야 한다.  
여가산업의 프로그램은 소비자를 활동적인 수혜자 또는 생산자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
- 문화교육은 “노동산업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즉 문화교육은 문화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늘어나는 실업과 그로인한 심리적 사회적 결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교육은 오늘날의 “노동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여가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가의 문화적 기능이

- ① 개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 ② 문화예술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 ③ 예술을 통한 특수집단의 창조적 가능성을 제고하고
- ④ 조직화된 기술과 경험을 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 2) 문화정책과 문화학교

1991년 5월 당시 문화부 관련 12개 기관이 그동안 “문화축매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시행해 오고 있던 “문화예술강좌”를 총괄 운영하는 「한국문화학교」 본부를 설치함으로써 「문화학교」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문화학교를 설립하게 된 목적은

- ① 후기 산업사회의 병리현상 치유 및 한국적 가치관과 도덕성 회복
- ② 문화예술의 사회교육과 예술적 감상교육을 통한 지역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 ③ 문화의 생활을 통한 한국적 교양주의 확립 및 문화창조력 제고 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학교운동”이 대두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우리 문화정책의 흐름속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990년 문화부가 독립 신설되면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의 중요한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90년대의 새로운 문화전략으로 문화주의를 내세우고 그 실천수단으로 문화교육 즉 문화학교 운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이전까지의 문화정책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조역량의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과 그 기반의 확산에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를 들어와 계층간·세대간·지역간의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문화예술의 수용자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보겠다.

이런 정책방향의 전환은 예술창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문화보급운동의 활성화와 문화정보의 확산에 걸맞는 문화접촉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는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즉 문화주의 문화전략의 정책과제는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국민적 차원의 문화발전 시책을 강화하여 새로운 문화수요 계층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과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예술의 사회교육과 예술적 감성훈련을 통한 국민문화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학교 운동이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1992년에 수립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의 문화 부문 계획에 의하면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항목가운데

- ① 한국문화학교 운영
- ② 여가 문화 프로그램 개발
- ③ 국민을 찾아가는 이동 문화 프로그램 운영
- ④ 문화가족 운동의 확산 등 네개의 시책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 계획서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사회병리 현상의 문제점을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한국적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적 문화교양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화학교는 올바른 문화를 보급 확산하여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여 국민의 정서적 공감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참여 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립된 「문화창달 5개년 계획」(1993~1997)에서도 문화학교는 “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라는 주요항목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과거에는 일부에 국한된 계층만이 문화예술을 즐기거나 관심을 가졌지만 오늘날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교육을 실

시하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문화보급 운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과제가

- ① 문화학교의 확대지원
- ② 문화학교 운영지원
- ③ 문화학교 홍보강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학교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겠다.

1995년 10월 문화체육부가 세계화 추진과제로서 마련한 「국민 문화예술 생활화 방안」에 의하면 문화 우위시대에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게 뿌리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세계문화의 슬기로운 수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하여 일반 국민과 정부 및 기업 등이

-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세계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며
- 향락·과소비 풍조와 사업적 외래문화를 극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생활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은 물론
- 물질만능주의 풍조로 인하여 야기된 세대간·계층간·지역간의 갈등 현상을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통하여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 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배양
- ② 문화예술 전달체계의 개선
- ③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④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촉진
- 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문화의 활성화
- ⑥ 국가차원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문화정책의 과제를 고려한다면 문화학교 운동은 ①항과는 직접적인 관계이 있으며 ②③④⑤항과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학교 운동은 문화주의 문화전략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문화학교 운동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보급·확산하는 문화권 신장운동이고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시키는 국민정서 함양운동이며 질적인 삶의 길을 추구하는 문화복지 운동이고 국민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문화운동이라고 하겠다.

### 3) 문화학교의 운영방향

앞으로의 문화학교는 국민들 스스로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문화 교육의 거점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학교가 그러한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하고
-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소집단화된 문화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에 부응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변화와 변모를 파괴가 아닌 성장으로 인식하고 개인과 집단의 창조능력과 비판능력을 고양시키며
- 문화교육이 일상적인 생산활동과 여가속에 편입되어 생활화 할 수 있

게하고

- 개인을 감수성을 함양시켜 인간적인 교류와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하는 인간성 회복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문화학교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는 지역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문화학교는 지역을 문화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① 지역에 문화활동의 씨를 뿌리고 싹을 피운다.
- ② 지역에 아마추어 문화활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넓힌다.
- ③ 예술 예능과의 접촉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④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문화적인 지역환경을 가꾼다.
- ⑤ 자유롭고 자주적인 주민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주민들의 감성이 너그러워지고 생활태도가 바뀌어 지역이 문화적으로 탈바꿈되게 한다.

#### 4) 정부재정지원의 확대

후기 산업화 시대의 국민문화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국민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전국의 각급 문화학교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문화학교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재정문제이다.

#### 95년도 문화학교 운영목표를 보면

- ①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 ②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감상능력 제고
- ③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로 문화균점화 도모이다.

국민문화 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학교의 예산이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태에서 겨우 2억 5천만원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이와같은 문화학교 운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가치관의 혼돈과 윤리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만으로 불충분하다.

이제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실천전략은 바로 문화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발전시키는 일이다.

정부가 체육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문화부문 특히 문화학교 육성은 프로그램만 있지 예산은 거의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문화학교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급 문화학교에 국가보조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경우 일정한 비율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못지 않게 문화학교 육성에 대한 관심을 기여할 것임은 여기자 없다.

또한 문화학교는 지역문화학교와 연대하여 모금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그 고장 출신의 기업인 또는 독지가의 기금출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문화학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분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문화학교의 재정은 원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문화학교 예산항목을 설정하여 문화학교를 종래의 새마을운동처럼 국민적 열기가 실감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는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빈약한 강사료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시설확장·프로그램 개발·홍보물제작·연구조사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전국적 지원을 위해서 단위학교의 지원액을 최소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3. 인제문화학교 운영

#### 1) 인제문화학교 설립배경

인제문화학교의 운영 주체는 인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제문화원은 1984년도에 정부로부터 지방문화원으로 인가를 받고 설립되어 원장 1명, 부원장 1명,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임원 구성을 하고 직원 2명과 회원 몇 십명으로 갖추어 출범된 독립 법인체이다.

그간 12년동안 명실상부한 지방문화 구심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되는 사업보조금으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문화사업을 나름대로 전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전개해 온 문화사업은 적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가운데 매우 빈약한 문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90년도에 출범한 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수립을 통해서 종합적인 국민문화 진흥사업이 전개되면서 전국문화원의 사업보조금 지원이 조금씩 증액되었고 또한 시범문화원으로 많이 지정해 주면서 문화원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주는데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다.

이에 힘입어 인제문화원은 93년도 9월 28일에 문화부로 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을 받고 94년도에 1억1천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으로 문화시설과 장비를 나름대로 갖추어 놓게 되었으며 95년도 9월에 또한 인제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아 96년도 4월부터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6가지의 강좌를 개최하여 왔다.

#### 2) 인제문화학교 사업현황

인제문화학교는 군민정서 함양과 여가를 통한 취미생활로 문화소양을 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가운데 문화복지 시대를 실현하는데 깊은 뜻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속에 9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제2기로 하여 강좌를 개최하였다.

수강대상은 지역주민 남녀노소로써 수강신청을 먼저 접수받아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강사진은 인제관내에 거주자로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진과 강좌부문에 경력이 있는 강사진을 초청하였으며 사업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과 한국문화학교에서 지원된 일부 보조금으로 운영하였다.

96년도 인제문화학교 운영사업은 다음과 같다.

■ 96년 인제문화학교 강좌현황

강좌내용	운영횟수·일수·인원		요일 및 시간	지도강사명
전통의례강좌	운영횟수	24	매주 수요일 20시~22시	박 경 옥 (인제읍 상동5리)
	운영일수	24		
	참가인원	32		
주부가요교실	운영횟수	12	매주 화·금요일 20시~22시	김 상 복 (원통고 음악교사)
	운영일수	12		
	참가인원	21		
꽃꽂이강좌	운영횟수	24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최 은 희 (인제읍 상동4리)
	운영일수	24		
	참가인원	46		
흙패션강좌	운영횟수	24	매주 화요일 10시~13시	김 영 숙 (인제읍 합강3리)
	운영일수	24		
	참가인원	45		
풍물강좌	운영횟수	48	매주 목·금요일 20시~22시	김 종 호 (인제읍 고사리)
	운영일수	48		
	참가인원	51		
플룻강좌	운영횟수	48	매주 화·목요일 20시~22시	황 영 희 (인제읍 상동리)
	운영일수	48		
	참가인원	61		

### 3) 인제문화학교 운영문제점

인제문화원은 84년도 설립, 당시서부터 매우 빈약한 가운데 본연의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그것은 당초부터 한푼의 출연금도 없이 문화원 원사도 없이 다만 임원직과 회원 몇 십명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군청 청사 사무실 한구석에 책상과 캐비닛 1개로서 출범된 것이다.

문화사업이란 국고금과 문예진흥기금 지방비로 지원되는 매우 작은 보조금에만 의존하면서 1년에 몇 가지 단일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중 90년도 문화부가 출범하면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 93년도에 시범문화원을 지정받게 되었고 95년도에 인제문화학교로 지정을 받게되는 가운데 국고 및 지방비보조금도 조금씩 증액되어 왔다.

이러므로써 96년도에는 군민이 여가를 이용하여 직접 참여하는 속에 취미생활과 정서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문화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학교 운영이란 지내고 보니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수강생 참여도가 매우 낮은 관계이다. 누구나 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문제와 문화생활에 대한 의식관계로 눈앞에 보이는 생산적이고 생기는 일에 부합적인 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라는 의식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강사진 확보문제로서 대도시에는 전문적이고 자격있는 강사진과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수들 용이하게 초청할 수 있으나 우리 지역의 여건은 그러하지 못한 관계로 강사진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관리 운영하는 직원이 부족하다. 현재로써 고작 문화원에는 2명의 직원만이 모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모든

사업 모두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할 일을 찾아서 하는데는 현재 문화원에도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만도 바쁜가운데 낮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밤에도 강좌가 이루어지므로 근무를 하여야 한다. 금년의 실례로 보아 1주일에 5회가 밤에 강좌가 이루어지므로 낮에 정상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늦어도 10시까지지는 또 근무를 해 왔다.

넷째는 야간에 강좌가 이루어지므로 관리운영에 문제가 따른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셋째 항목의 문제점과 상관되는 내용으로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이 대부분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모든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맞추어 금년에 문화학교에서는 각종 강좌를 전개하였지만 역시 관리운영에 2명의 직원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문제이다.

다섯째는 문화학교운영 재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문화학교의 강사진은 지역에서 봉사정신으로 임할 수 있는 강사진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것을 원치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좌용 재료 및 기구가 부족한 문제이다. 금년의 예를 들어보면 홈패션 강좌에 미싱이 부족하여 춘천브라더 미싱회사에서 7대를 강좌시 마다 임차하여 실시하여 왔다.

위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이나 모든 문제들은 지역주민의 관심 깊은 의식전환과 보조기관의 관심과 문화학교를 주체하는 문화원의 노력과 봉사정신이 따를때 모든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 4. 끝맺는 말

지역사회는 문화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지역사회 발전은 지역문화 발전없이 불가능하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경제개발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지역 사회는 문화공동체로서 인식은 점점 소멸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화 분위기를 직시하고 정부 직제개편을 통하여 문화체육부를 설치하여 문화예술 및 국민체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문화는 나아가 국민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문화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문화의 교육을 기능상으로 분리하여 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교육부의 교육기능은 학교교육을 위해서 존재하고 문화체육부의 문화기능은 사회교육을 위해서 존재한다.

90년에 출범한 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종합적인 문화발전이 크게 기대하는 가운데 국민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학교가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또한 문화의 욕구는 단순한 구매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참여와 창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 있는 참여속에 인제문화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강좌 수강생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주체하는 문화원의 끊임없는 노력속에 발전적인 창조성을 개발하여 가꾸어 나갈것을 다짐해 본다.



## 제2장

# 교양편



---

##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는



子孝雙親樂 / 家和萬事成

---

어버리와 자식의 정은 친함에 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버이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어 낸다. 또한 자식의 문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치 않고 좋은 방향으로 행동한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남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부자가 있고, 형제가 있다. 때문에 인륜대사(人倫大事)는 한 집안을 둘러싸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돈독한 우애와 단란한 화목으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친해야 한다. 자식이 효도를 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즐거워진다. 온 집안이 즐거우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진다.

---

### \* 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

효심이 지극한 아들 딸을 두면 아버지 또한 즐겁고, 온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 진다.

---

## 바르게 살아야



### 見利思義 / 見危授命

---

인간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혹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옳은 데서 오는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야 하며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초개(草芥)와 가이 여겨야 한다. 청정한 풍토를 바탕으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다지면서 아름다운 강산을 가꿔 너도나도 온 정성을 쏟으면서 소의(小義)를 버리고 대의(大義)의 눈을 활짝 떠야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이 구제된다.”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정의 앞에는 천하 만물이라도 굽힌다. 옥중에서도 이 글(서예)를 써서 나라사랑 길을 다지며 겨레 앞에 산 교훈으로 장하게 남기셨다.

---

#### \*견리사의 / 견위수명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보거든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야 하다.

---

## 배운것은 늘 익혀야

공 자

學二時習之 不亦說乎 /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

우리들 학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이 아닌가 싶다. 착실한 배움을 통하여 참된 지식을 갈고 닦아야 한다. 참된 벗을 사귀어 한 평생 살아가는 데에 고운 마음을 다지는 우정을 키우면서 의기가 투합된 친근한 반려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 임하여 자기가 소외된다 하더라도 굳센 의지를 곧고 바르게 세워야 한다. 큰 화근을 물리치면서 참고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대담하게 군자상(君子像)을 가꿔야 한다.

지식과 정서, 그리고 의지를 조화시키면서 밝은 사회를 향하여 양식인이 되어야 한다.

---

\*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유봉자원방래 불역락호 /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배운 것을 늘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 주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 아니겠는가?

---

# 삶의 명배우가 되어



宇宙劇場 萬象背景 / 世間舞臺 人生俳優

---

하늘 아래, 땅 위이 모든 우주공간을 극장삼아 활동하고 삼라만상의 고운 비경을 배경삼아 둘러쳐 놓고 온 정성을 쏟으면서 기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 인간들은 곱게 가꾼 무대를 펼쳐 놓고 자유를 누리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명배우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 멋진 인생이 되어 명기를 펼치며, 활기찬 예술의 꽃을 피우며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 가는 곳마다 우리이 마당이요, 움직이는 것마다 우리의 슬기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마련하여 힘찬 내일을 맞이하여야 한다.

---

\* 우주극장 만상배경 / 세간무대 인생배우

우주를 극장삼아 삼라만상 배경삼아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무대삼은 우리 인생은 하나의 명 배우이다.

---

##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도연명

盛年不中來 一日難再晨 / 及時當勉勵 歲月不待人

---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배움의 교훈이 반짝인다. 청춘도 평생을 통하여 단 한 번이고, 하루의 새벽도 단 한 번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임해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 자세로 힘써 이룩해내야 한다. 모든 시간을 쪼개어 학업에 열중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피끓는 젊은 시절에 신언서판(身言書判)을 끈고 바르게 세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 도연명(365-427)은 중국 동진 말기에서부터 송나라 초기에까지 걸쳐 살았던, 술과 국화를 벗 삼아 즐긴 중국의 대표적 시인이다.

---

\* 성년부중래 일일난재신 / 급시당면려 세월부대인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고, 하루의 새벽도 두 번씩 찾아오지 않는다. 젊었을 때 배움에 힘써야 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

## 시비는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是非終日有 / 不聽自然無

---

필요없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 남의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 남의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사람, 남의 일에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 남의 일에 이해관계를 짚어보는 사람 등 참으로 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옳은 일이 아니면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다. 자기와 무관한 일이면 마주앉아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 상대가 없으면 혼자 지껄이다 제풀에 죽어 사라질 것이다.

---

\* 시비종일유 / 불청자연무

시비가 온 종일 있을지라도 듣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

## 정신을 가다듬으면

주 자

精神一到 何事不成

---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다. 정신은 확고한 신념이다. 신념은 굳게 세운 의지다. 굳건한 의지는 참 마음이다. 참 마음은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한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사상에 있다. 건전한 사상은 맑은 정신이다. 여기 정신이 바로 서면 거기에 사랑도 깃든다. 참 사랑은 강한 생명력을 갖는다. 강한 생명력은 역발장사(力拔壯士)와도 같은 굳센 힘을 솟구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많은 강한 체험과 끊임없는 수련을 거쳐야 한다. 노력을 쌓고 많은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성공의 길은 자연히 트게 마련이다.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일에만 정진하면 모든것을 이뤄 낼 수가 있다.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된다.

인간이 가는 길 앞에 불가능은 없다.

---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가다듬고 모든 일에 힘쓰면 무슨 일이든 이뤄내지 못 할 일이 없다.

---

## 참 마음은 참 맛을

대 학

心不在焉 觀而不見 / 聽而不聞 食而不知味

---

사람이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그것을 마음에 대하지 않으면 보았어도 본 것 같지를 않고, 보이는 것도 보이질 않고, 들어도 들려오지 않고, 들리는 것도 듣지를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매운지, 쓴지를 알 수가 없다. 모든 일에 임해서 착실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관찰력이나 사고력이 있을 리 없다. 어떤 일에 임해서도 참 마음이 앞서야 한다. 모든 일은 참 마음으로 대할 때에야 만이 그 일을 바로 꿰뚫을 수가 있다.

---

\* 심부재언 관이불견 / 청이불문 식이부지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본 것 같지 않고,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

## 고난은 기도를 가르쳐 준다.

영광은  
영광은

After crosses and losses men grow humbler and wiser.

---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크다. 인간에게는 고생과 역경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고통과 고뇌를 이겨 넘긴 후에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괴로움이 지나간 뒤에 그것이 남기고 간 것을 맛보면 거기에는 달콤함이 있다. 또한 고난은 기도를 가르쳐 준다. 화를 당하는 날이 있으면 복이 오는 날도 있다. 조금씩 생각하지 말고 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비가 온 뒤의 하늘이 더욱 맑고 깨끗한 것처럼 고난의 눈물은 나를 높은 경지로 이끌어 준다. 환희에 타오르는 태양을 가슴에 안기 위하여 고난을 용감하게 박차야 한다. 자신의 역경은 참아야 하고, 남의 고통은 돌봐줄 줄 알아야 한다. 온갖 고난을 겪고나면 삶의 자신이 솟는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참을 줄 알게 된다. 깨끗한 천심을 모아 순리를 따르게 되고 모든 일에 겸손할 줄 알게 된다.

---

\* After crosses and losses men grow humbler and wiser.

고난과 손실을 겪고나야 사람은 더욱 겸손하고 현명해진다.

---

##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사명대사

三日公行 不逆君命 / 夜半歸山 不負師訓

---

우리 인간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 필사의 정신으로 그 임젠왜란을 극복한 사명대사는 왕명에 의하여 영의정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았다. 부임하는 날! 근무하며 생각하는 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날! 대권을 버리고 본분을 지킨 그 유명한 어른의 일화를 다시 한번 새겨 본다. 우리는 각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면학의 금자탑을 높이 쌓아야 한다. 사명대사(1544<중종39년>-1610년<광해군 2년>)는 조선 임진왜란 때 위태로운 조국의 운명 앞에서 의병을 일으킨 위대한 승려이다.

---

\* 삼일공행 불역군명 / 야반귀산 불부사훈

삼일동안 공부를 집행했음은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으며, 한밤중에 산으로 돌아감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음이라.

---

## 사람의 명은 마침이 있는 법

원효대사

喫甘愛養 此身定壞 / 着柔守護 命必有終

---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그말 가운데는 인간은 인간 그자체로서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존경해야 할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는 차디 찬 얼음이고, 허위(虛僞)에 대해서는 활활 타는 불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사람은 정의(正義)를 표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작은 사람은 이익(利益)을 표준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 행과 불행의 갈림길에 선과 악을 나눠 무관심을 벗어나야 한다. 한평생 정직을 바탕으로 삶을 누려야 한다.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보살피며 후회없는 인간 생활을 늘 영위하여야 한다. 원효대사(617-686)는 신라의 승려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 선 한국 불교의 상징이다.

---

\* 깍감애양 차신정괴 / 착유수호 명필유종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이 몸은 결국 없어지고, 좋은 옷으로 이 몸을 보호하  
여도 사람의 명은 마침이 있는 법이다.

---

## 예의가 아니거든 의가 아니거든



非禮之禮 非義之義 / 大人弗爲

---

오늘의 사회를 눈 앞에 그려보라. 윤리 도덕이 허물어지고 인심과 천심(天心)이 흉흉하니 모두가 답답하기만 하다. 삭막한 사회에 어지러운 난리만이 세상을 어수선하게 몰고 가는 무지의 교양은 예의가 아니고 난폭한 행동은 정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정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너와 나 서로가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나라사랑, 겨레사랑 모두를 위하여 앞장 서야겠다.

곧고 바른 마음으로 예의의 꽃을 피우고 젊음의 힘찬 정기는 외로움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

\* 비례지례 비의지의 / 대인불위

예의가 아니면 예의와 정의가 아닌 정의를 대인은 하지 않는다.

---

## 옛 것을 찾아 잘 익혀 보면

공 자

溫故而知新 / 可以爲師矣

---

옛 것은 깊은 뿌리가 있다. 그것은 새해마다 새로운 눈을 뜬다. 우리의 지식은 무한대의 진보를 한다. 진보를 한다는 말은 곧 앞서 간다는 말이다. 그리고 역사가 있다는 말이다. 싱싱한 가지에 하늘을 향해 솟는 잎파리가 돌아난다는 말이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찾아 권위있는 고전(古典)에 뿌리를 두고 옛 것을 찾아야 한다. 기름진 옛 터를 갈고 닦아 새로운 학풍을 일으키면서 몸소 체득하여 참된 배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개척하는 정신을 가다듬어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

---

\* 온고이지신 / 가이위사의

옛 것을 찾아 되새겨 보며 새로움을 찾아 살필 줄 알면 곧 큰 스승이 될 것이다.

---

## 인간의 기본중심을 곧고 바르게



仁者不憂 知者不惑 / 勇者不懼

---

지식, 정의, 의지를 곧고 바르게 세운 덕인이 되어 모든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중심을 바로 잡아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인생, 윤리와 도덕의 법통을 순리적으로 풀면서 잘 지켜야 한다.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 그리고 복부 부분을 아무 탈 없이 용감하게, 편안하게, 슬기롭게 꿰뚫는 인자, 지자, 용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한 세대의 운명으로 돌리면서 한 시대의 산물로 모든 일에 중심을 잡아 행하는 교양인이 되어 합리적으로 풀어 넘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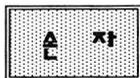
---

\* 인자불우 지자불혹 / 용자불구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되지 않고, 용맹한 사람은 두려워 하지 않는다.

---

## 전쟁은 그 나라의 중대한 일



兵者 國之大事 / 死生之地 存亡之道 / 不可不察也

---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니, 살기 위해서 너와 나, 모두가 경쟁대열에 서야만 한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은 승산이 뻔하게 드러나 보인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는 철칙을 다지며 매사에 심사숙고 해야 함은 잊어서는 안된다. 손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전략가로 이름은 무이다. 그의 저서 「손자병법」은 전투의 작전 및 국가경제의 요지, 승패의 기미, 인사의 성패 등에 관한 유명한 책이다.

---

\* 병자 국지대사 / 사생지지 존망지도 / 불가불찰야

전쟁은 그 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분기점이며,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이다.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

##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家和貧也好 不義富如何 / 但存一字孝 何用子孫多

---

모든 식구가 화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 안빈낙도(安貧樂道)는 생의 영광이다. 정의롭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가정은 밝아질 것이다. 많은 아들이 있어 불효를 하면 차라리 자식이 없는 편이 나올 것이다. 건실하게 자라서 명량한 가풍을 진작시키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도를 닦아야 한다. 효자상을 다지면서 효도의 장한 길을 걸어야 한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자녀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사회가 밝아지려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화합의 꽃을 피우고, 나라가 편안하려면 온 겨레가 사랑의 열매를 안아야 한다.

---

\* 가화빈야호 불의부여하 / 단존일자효 하용자손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다. 하지만 의롭지 못하면 부자인들 무엇하겠는가?  
단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는 아들이 있다면 어찌 자손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는가?

---

##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고 서

一日不讀書 / 口中生荊棘

---

독서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은 씹지 않고 식사하는 것과 같다. 악서(惡書)를 읽지 않는 것은 양서를 읽기위한 조건이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독서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육체적 성장을 위하여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 정신적 성장을 위하여는 독서를 해야 한다. 남의 글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남의 고된 체험을 통하여 고생은 쉽게 자기를 개선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독서를 통하여 우리 선인들의 참된 체험을 거울 삼아 배우면서 또 그것을 몸소 체득하며 살아가야 한다. 8시간의 독서시간은 정신의 영양제 되어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한다.

우리 모두는 꼭 지켜야 한다.

---

\* 일일불독서 /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서 가시가 돌아난다.

---

## 간교한 말은 이롭지 못하다



巧言令色 / 鮮矣仁

---

외모치레나 간교한 말을 하는 사람은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다. 미끈한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접근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살살 맞추는 사람은 무엇인가 속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꾸밈이 없는 본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순수한 그대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간 참 마음을 털어놓고 피차간의 진실을 주고 받아야 한다.

---

\* 교언영색 / 선의인

간사한 말로 살살 대거나 얼굴 빛을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

---

## 배움의 인간은 망각 속에

공 자

學而不思則罔 / 思而不學則殆

---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서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인간은 망각을 잘하는 동물이다. 여기 망각한다는 말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어찌되었든 학문에 힘써야 한다. 틈만 있으면 자연과 인생, 그리고 예술의 푸른 빛을 갈고 닦으면서 맑고 깨끗한 정서를 함양하여야 한다.

---

\* 학이불사즉망 / 사이불학즉태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만다. 그리고 사색에 잠기기만 하고 배우지 않음도 위태로운 일이다.

---

##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고 석

歲歲年年 花相似 / 年年歲歲 人不同

---

산 빛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인데,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무심한 자연을 바라보며 무정한 세태를 한하며 살아간다. 해마다 피는 꽃은 철따라 요염한데 한 번 가신 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유한한 인생은 어차피 가는 것이다. 만난 자에게는 이별이 따른다. 이별은 슬픔을 낳는다. 슬픔은 괴롭다. 어찌 하겠는가?

그래도 내일을 바라고 살아야 한다.

---

\* 세세연년 화상사 / 연년세세 인부동

해마다 피는 꽃은 그 꽃이런만 사람의 마음은 해마다 변하여 가지가 아니로다.

---

# 사색은 산 지식을, 난폭은 원망을

관 자

思索生知 / 暴傲生怨

---

인간의 삶은 행동의 연속이다. 감각과 관념의 집합이기도 하다. 예민한 지각과 풍성한 정서는 삶의 맛있는 향약(香藥)이 되지만, 난폭하고 오만한 행동은 비참한 운명의 독약이 된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사람들의 아집과 난무하는 속에서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 때가 많다. 밝은 거울로 자신의 참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이 아쉽다.

---

\* 사색생지 / 폭오생원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 사고력을 심도있게 파헤치면서 진리를 깨우치면 산 지식을 얻을 것이다. 반면에 난폭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면 가슴아픈 원망만을 낳을 것이다.

---

##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법구경

惡自受罪 善自受福 / 亦各須熟 彼不相代

---

모질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덕있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행과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뇌만이 따를 것이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만이 깃들 것이다. 우리 인생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말없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 여기 선은 이기는 편에 서야 하고, 악은 지는 편에서 물러가야 한다.

일일일선(一日一善)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악을 몰아내야 한다.

---

\* 악자수죄 선자수복 / 역각수숙 피불상대

스스로 악을 행하면 그 죄를 받고 스스로 선을 행하면 그 복을 받는다. 죄도 복도 내게 있거니와 그 누구도 대신해서 받을 사람은 없다.

---

##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는



知者樂水 仁者樂山 / 知者動 仁者靜 / 知者樂 仁者壽

---

인간은 시운을 타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리고 세운(世運)을 물고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때때로 기회의 운을 잘 타면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 반면 늪같은 산처럼 변함없는 마음이 되어 언제나 그 움직임이 한결 같아야 한다. 만고에 어진 사람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다지며 많은 수복을 누린다.

---

### \* 지자요수 인자요산 / 지자동 인자정 / 지자락 인자수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때때로 물길을 따라 움직이지만 어진 사람은 한결같이 늪같은 산처럼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고요하다. 슬기로운 자는 그때 그때를 즐기고 어진 자는 오래도록 장수를 누린다.

---

## 칭찬이 잘못되면 훼손되는 수도



有不虞之譽 / 有求全之毀

---

우리 주변에는 세상사 모를 일들이 많다. 희비애락이 교차되는 의외의 일들이 많기도 하다. 나 스스로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들이 가깝게 친숙해오지 않는다면 인자(仁者)의 자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그들이 나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다면 지자(智者)의 편에서 반성해 봐야 한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예의를 바르게 하여 역지사지(易之思之)하는 즉, 타인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 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끈고 바르게 세워 양식인의 명예로움을 간직하여야 한다.

---

\* 유불우지에 / 유구전지혜

예기치 않다가 뜻밖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러는 온전하기를 바라는데 잘못되거나 훼손되는 수도 있다.

---

## 하루 세 번씩 내 몸을 살펴본다.

중 자

吾日三省吾身 / 爲人謀而不忠乎 / 與朋友交而不神乎 / 傳不習乎

---

새벽, 낮, 밤을 두고 세 차례씩 항상 주위를 살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남과는 서로가 돈독한 유대를 맺어 믿음으로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 성실성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은 만인의 등불인 것이다. 증자(전505-436?)는 중국 춘추시대의 유가로 공자의 제자이다. ‘효(孝)’가 우주를 다스리는 가장 큰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

\* 오일삼성오신 / 위인모이불충호 / 여붕우교이불신호 / 전불습호

하루에 내 몸을 세 번 살핀다. 남을 위하여 일을 꾸미면서 만에 하나라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는가? 벗과 벗끼리 교제함에 있어서 피차간 신의를 잃지는 않았는가? 모든 것을 잘 배워 잘 통하도록 잘 익혔는가?

---

## 옷 차림으로 마음을 본다.

영금언

---

사람은 옷을 입는다. 나무 등걸이에다도 옷을 입히면 아름다워진다. 좋은 옷을 입었을 때는 맑은 정신과 밝은 기분이 난다. 옷이나 몸가짐은 과거의 정돈된 경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 시대의 유행을 알려면 그 시대 젊은 이들의 옷차림을 보면 된다. 옷은 새 옷을 입었을 때부터, 명예는 젊었을 때부터 알맞도록 가꾸어야 한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은 오히려 귀한 몸에 파멸을 몰고 온다. 외모에서 풍기는 멋이 그 사람안에 내재하고 있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옷은 사람에게 있어서 더없는 날개다. 옷은 사람의 역사다. 의복을 제대로 갖추서 입은 사람은 체면을 유지할 줄 아는 덕인이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은 그 여자가 입은 옷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 동방의 예의나라 백의겨레의 옷차림은 온 누리에 덕인으로서의 본보기이다.

---

\* 옷이 날개란 뜻이다.

---

## 인간은 욕심투성이다

영문

---

인간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 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의 인간은 온통 욕심투성이다. 인간은 누구나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거기에 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많은 것을 탐내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든 불만스럽게 여긴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터전 속에서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은 언제나 풍성하다. 불만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큰 독이 아닐 수 없다.

불만의 짝이 든다는 것은 결코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 스스로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자기 의지의 쇠약에서 오는 큰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설새 없이 자라게 할 뿐, 삶에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 과도한 욕심은 불만을 몰고, 고달픈 가난은 불평과 아픔을 준다. 한 사무실에서 윗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아랫 사람이라면 서로 의논을 해야 한다. 윗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마음놓고 털어 놓으면 그 아랫 사람도 윗 사람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좋은 자료를 주게 될 것이다. 웃는 얼굴로 고운 말로 상대적인 욕구 불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건설적으로 진언하고, 토론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좋은 설계를 곱게 꾸며 나가면 불만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희망찬 용기와 슬기찬 욕망이 솟아오를 것이다.

\* 불만은 결핍에서 오는 것보다 욕망에서 생기는 일이 많다.

---

## 죄와 벌은 미웁다

영광언

---

사람은 죄 의식으로 인해 범행을 멀리하고 있다. 탕녀는 자기의 관능을 만족시키려고 죄없는 상대를 쉽게 끌어들인다. 한 번 지은 죄는 또 다시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그 유혹의 바람에 나 부끼는 마음을 절제해야 한다. 슬픔과 아픔은 악행의 쌓임에서 오는 것이다. 한 번 지은 죄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모든 것,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해오면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벌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죄인을 위해서 슬퍼할 뿐이다. 죄인은 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앞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죄업은 선업으로 뒤엎고 정심(正心)을 쌓아야 한다. 죄는 깨끗이 씻어야 하고 벌은 조용히 받아야 한다.

---

\* 모든 죄는 벌을 함께 갖고 온다.

---

## 독서생활은 희망을

교 서

讀書三道 - 口到, 眼到, 心到

---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독서생활을 익혀야 한다. 정독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갈고 닦아야 한다. 좋은 책을 읽음은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양식은 독서에 있다. 독서는 지식의 재료를 제공해 주고 사색(思索)의 큰 힘을 준다. 체험 중의 좋은 체험은 독서에 있다.

---

### \* 독서삼도 - 구도, 안도, 심도

글을 읽는 데는 세 가지 독서법이 있다. 첫째는 입으로 속달될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이고, 둘째는 한눈을 팔지 말고 책상이 뚫어져라 똑똑히 보면서 묵독하는 것이고, 세째는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이다.

---

## 말 한 마디가 천금을



一言不中 / 千語無用

---

인간 사회는 믿음만이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 움질일 수 있는 사회이다. 자기의 입으로부터 쏟은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불신은 암흑이다. 존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고운 말로, 살맛 나는 말로 전해져 그 값어치를 나타내며 밝은 태양을 안게 한다. 사랑의 말 한 마디로 신용있는 사회를 자랑스럽게 맞이하여 내일의 희망찬 원동력을 삼아야 한다. 때문에 각 사람의 믿음있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밝은 사회, 믿음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다.

---

\* 일언부중 / 천어무용

알찬 말 한마디가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다 소용 없다.

---

## 미련없이 물러 설 줄도

노 자

功遂身退 / 天之道也

---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을 다했으면 미련없이 물러가야 한다. 맡은 바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했으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내가 없으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렵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공사를 구분하여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또 넘겨 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

\* 공수신퇴 / 천지도야

공을 세운 뒤에는 물러가는 것이 하늘의 길이요, 사람의 도리이다.

---

## 벗은 인정이 얽힌 대화자



酒食兄弟千個有 / 急難之友一個無

---

사람은 누구나 친구와 사귀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마련인데 때로는 이해 관계에 얽혀 들게 된다. 그러나 충실을 다지며 아름다운 우정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함께 넘을 수 있는 벗을 사귀었으면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친구는 좋지 않다. 벗은 덕으로써 얽힌 하나의 인정(人情)이면서 대화자이다. 우정의 관계는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짚어봐야 한다.

---

\* 주식형제천개유 / 급난지우일개무

서로 술이나 음식을 함께 할 때에는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친구가 수 천명이 있어도 위급하고 곤란한 경지에서 있을 때 도와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다.

---

## 부모님께 효도를

한시외전

樹欲靜而風不止 / 子欲養而親不待

---

객지 타향에서 여러 해 동안 공부를 마친 선비가 있었다. 금의환향(錦衣還鄉)하여 고향 산천 부모님께 있는 정성을 다하여 효도를 펴볼까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부모님은 벌써 타계하시고 만 것이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효도할 때가 있다고 생각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그때 그때 부모님의 가슴에 따뜻한 평안을 안겨 드려야 한다. 마음껏 수(壽)아 복(福)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

---

\* 수옥정이풍부지 / 지옥양이친부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해도 그 아버지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

## 사람은 죽을 때야 철이 든다



吾十有五而志于學 / 三十而立志 / 四十而不惑 /  
五十而知天命 / 六十而耳順 /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

인생은 고해이다. 체험의 세계이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철이 든다는 말도 있다. 태어난 인간은 자신의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참 삶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덕행을 갈고 닦아야 한다. 늘어가는 연륜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체험의 교훈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는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다.

---

\* 오십유오이지우학 / 삼십이입지 / 사십이불혹 / 오십이지천명 / 육십이이순 / 칠십이중심소욕불유구

15세 때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을 세웠다. 40세에 미혹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50세에 하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잘 알았다. 60세에 가서야 남의 말이 귀에 순하여 알아들을 수 있었고 거슬림이 없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보니 70세가 되어서는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

## 색(色)은 가까이, 멀리 해서도

명심보감  
영심

色不迷人 / 人自迷

---

이성간을 두고 사람들은 정신을 잃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에게서 오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다. 미소, 눈동자, 얼굴, 목소리 등 떠오르는 모습 하나 하나가 정신을 잃게 한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환상만이 남아 떠오른다. 색정, 욕정 따위는 탕아를 울릴 뿐이다. 하지만 기억의 깊은 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그 많은 시간 속에 떠오르는 환상을 모진 바람과 함께 날려 버려야 한다. 잊어 버리겠다고 마디마디 외친 강한 의지는 상대의 색정을 쫓고 상심(傷心)을 낳는다.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

\* 색불미인 / 인자미

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색에 미혹되는 것이다.

---

## 체험은 삶의 스승이다



大海不渡 不知波濤之險 / 太山不登 不知溪谷之險

---

체험은 스승이다. 모든 것은 본인 자신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인생은 고해이다. 남이 하는 일은 다 쉽게 보이고, 자신이 하는 일은 전부 어렵게만 느껴진다. 모든 것은 자신의 몸으로 부터 안아야 한다.

나의 일은 나 스스로가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면서 이룩 해 내야 한다는 진리를 거울삼아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

\* 대해부도 부지파도지험 / 태산부등 부지계곡지험

넓고 넓은 바다를 건너보지 못한 사람은 파도의 위태로움을 알 리 없고, 높고 큰 산을 올라가보지 못한 사람은 깎아지른 듯한 골짜기의 위험함을 알지 못한다.

---

## 충고하여 벗을 선도한다

공 자

忠告而善導之 / 不可則止 毋自辱焉

---

벗과 벗끼리 한 시대에서 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정이 있어야 한다. 우정이란 서로가 도와가는 일종의 차원 높은 사랑이다. 불행할 때 맺어진 우정은 행복할 때 맺어진 우정보다 오래도록 지속된다. 우정을 나눔에 있어 서로에게 빈틈이 나지 않도록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을 때는 충고를 하고, 잘했을 때는 격려를 해주는, 그래서 서로의 앞 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벗이 되어야 한다.

---

\* 충고이선도지 / 불가즉지 무자욕언

충고하여 벗을 선도하고 듣지 아니하면 곧 중지하여 욕됨이 없게 해야 한다.

---

## 환경에 적응해야



適者生存 / 不適者不生存

---

모든 일을 맞이하여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자립하려는 인간생활의 삶 앞에는 항상 무서운 시련이 따르게 마련이다. 때문에 몸가짐을 끈고 바르게 하면서 모든 일에 적응할 줄 아는 처세술은 지상의 향약이다. 옳은 일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고 받는 작용을 서로가 펴며 나아가야 한다. 좋은 환경, 좋은 풍토, 좋은 생활은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잘 누려야 한다. 세상은 적응하는 자가 강한 의지로 굳세게 서 갈때 승리를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

\* 적자생존 / 부적자불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삶을 누릴 수 없다.

---

## 금은 진흙속에 있어도 금이다



---

금, 은, 동의 보석은 우리 인간에게 신비감을 안겨주는 것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서로 물물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금전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으로 모든 매매수수(賣買授受)의 행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 황금은 그 빛이 황홀하다. 때문에 황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 인간은 황금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려야 한다. 황금 앞에 황금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것이다.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황금의 빛에 별다른 매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텅빈 사람은 황금의 그 현란한 빛에 끌리고 만다. 금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곳에는 빈부의 차 뿐만 아니라 필요이외의 악덕이 난무하다. 금, 은의 참다운 값어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노력의 댓가로 얻어질 때 빛나게 드러나는 것이다. 운동선수가 피땀어린 노력 끝에 따낸 금메달처럼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물이 되어 영원한 가보로 빛날 것이다.

---

\* '금은 진흙속에 있어도 금이다'라는 내용

---

## 용서는 곧 사랑이다

영광인

---

상대가 자기에게 잘못을 범하였다가 이를 깨닫고, 후회하고 용서를 빌 때에는 용서하는 것이 상례이다. 분노에 떨지 말고 한 순간을 잘 넘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슬기있는 행동이다. 진실을 고해 올 때 그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기의 영광이기도 하다. 그리고 난 후에 최선의 책을 강구하고 치유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로부터 잊는 것이 더욱 좋다. 여자는 자신의 미소때문에 범해진 행위라면 나쁜 행위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윤리 도덕관을 무시하고 탐욕에 빠진 여인은 최선의 책이 없다. 사랑은 사랑으로 식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거울 삼아 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아마 최대의 덕목이 될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한 어떠한 죄든지 간에 용서해야 한다.

---

\* '용서는 가장 고귀한 승리다'라는 내용이다.

---

## ‘우정’이라는 나무는 꽃핀다

영국인

---

우정은 사랑을 받는 쪽 보다는 사랑을 하는, 사랑을 주는 쪽에 있다. 우정은 서로의 마음을 한 자리에 모으는 큰 작업을 거쳐 이뤄진다. 진정한 믿음의 정원을 마련하여 우정이라고 하는 진, 선, 미의 상록수를 끈고 바르게 심어야 한다. 마음의 생생한 활력소를 온통 불러 일으키는 푸르른 덕목의 거목(巨木)으로 키워야 한다. 우정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진실을 논하는 알찬 밀어가 되어 삶의 생기를 몰고 온다. 그래서 우정이란 나무의 꽃을 맑고 밝게, 곱게 피우며 오랜 세월동안 과실을 맺게 해야 한다.

---

\* ‘우정이란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

## 입을 조심하라! 병들어 간다

영양인

---

우리의 입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하기 위해서, 먹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기 위한 궁합의 달콤한 입맞춤은 고운 정을 낳는다. 고운 정은 아름다운 말, 바른 말, 참된 말로 표현돼 모두가 힘이 솟는다. 힘은 맛있는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양제가 된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나쁜 말, 맛있는 음식 등은 큰 병이 되어 우리 인체에 독소를 퍼부을 것이다. 입을 조심해야 한다.

밀어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구미에 맞는 음식과 영양을 섭취하여야 한다.

---

\* 입을 조심하라. 병은 그곳으로부터 들어가는 법이다.

---

##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한다

영금언

---

자기 인생은 자신의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다 의지해야 한다. 남을 의지해서는 안된다. 자립정신을 키워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풀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뢰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필요 이외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된다. 나 자신의 주권을 내주어서도 안된다. 무엇이든 가능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내야 하고 성취해야 한다.

밝은 사회에서 자작자활(自作自活) 할 수 있는, 살맛나는 자신의 힘을 모든 사람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참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자아를 발견, 완성시키면서 말이다. 자기 자신의 문제는 자기의 관리에 있다. 밝은 생활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생명을 지탱해야 한다. 산 자는 생명이 있고, 죽은 자는 정지 상태에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결실을 시험하는 시련을 이겨 넘겨야 한다. 바른 길을 걸어가며 상대적인 수수작용을 펴면서 삶을 지탱해야 한다.

---

\* 자기의 힘으로 빛나는 사람만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 젊음은 귀하다

영국인

---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젊음은 온통 일생을 위하여 투쟁한다. 젊었을 때는 배우고, 늙어서는 이해를 한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증오의 가정을 멀리 해야 한다. 젊음은 소중한 것이다. 동시에 무서운 것이다.

젊음은 인생의 꽃이며 노년은 삶의 열매이다. 우리는 배움의 오늘을 살고, 그것을 통하여 내일의 힘을 몰아야 한다. 젊음은 순진하고 감동하기 쉽다. 사랑찬 젊음과 알찬 배움의 시간은 한 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때를 만나 피땀어린 노동으로 사랑의 보금자리와 배움의 금자탑을 높이 세워 만인 앞에 떳떳한 삶을 누려야 한다. 노년은 눈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젊은 시절의 심한 노동은 노년기에 안락을 가져온다.

---

## 지혜는 듣고 후회는 말한다

영국문학

---

어떠한 행위를 후회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불행을 이중으로 맞게 된다. 또 그런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일단 모든 일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결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을 탓하거나 꾸짖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극기(克己)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실수나 과실이 있게 마련이다. 범죄에 대한 후회는 악으로부터 벗어나 어진 덕을 갈고 닦는 데 그 목적을 뒤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서둘러 고칠 줄 아는 밝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 행위에 후회만 하고 있으면 더 큰 불행을 불러 일으켜 결국은 무능만을 탓하게 된다. 애당초 불합리한 용맹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을 맞게 되는 못난 사람이 되고마는 것이다. 세상에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후회는 쾌락이 낳은 운명의 말이다. 무슨 일이든 후회를 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사실 후회만큼 우리에게 좋은 교육은 없다. 후회하는 그 마음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때 발견된다. 모든 일을 둘러싸고 뉘우치는 문제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전해야 한다.

---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지혜를 얻어 우리 모두는 뉘우침이 없는 삶을 바라 볼 수 있도록 밝은 눈을 떠야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후한(後恨)중의 큰 회한(悔恨)을 맞게 될 것이다. 때문에 모든 일중의 가장 큰 일은 건강할 때에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회없는 삶을 통하여 밝은 내일의 타는 태양을 힘껏 안아야 한다. 후회없는 사랑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 후회없는 명랑한 복지의 낙원을 고운 말, 바른 말로 풀어 넘겨야 한다.

---

\*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

## 화가 있으면 복도 있다

역경언

---

고통을 딛고 역경을 이겨 낸다면 그것은 더없이 좋은 값진 체험이다. 그것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큰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을 동반한다. 만일 괴로움을 참지 못한다면 결국 불행을 만나고 말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행은 자초하기 쉬운 고난의 길로 가로 놓인다. 고난의 길에 따르는 눈물, 그것은 고통(苦樂)의 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자신에게 부딪친 고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태산준령(泰山峻嶺)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한다. 또한 남의 고통은 덜어 주면서 도와 주어야 한다. 생존경쟁을 피부로 느끼는 이 사회에서 인생이 목적을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거기에는 천신만고(天辛萬苦)의 명암이 따르게 마련이다. 괴로움이 남기고 간 맛은 아주 쓰다. 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는 달콤함이 있을 것이다. “고생은 돈을 주고 산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고난을 딛고 일어서 화를 멀리 물리치고 복을 찾아 힘차게 노력해야 한다.

---

\* 화가 있으면 복도 있다는 내용.

---

## 용기는 위인을 만든다

영감언

---

희망은 강한 용기이다. 용기는 새로운 의지를 심어준다. 새로운 의지는 큰 포부를 키운다. 큰 포부는 사상을 낳는다. 사상을 생명의 불꽃이다. 생명이 불꽃은 희망의 꿈이다. 희망의 꿈은 행복을 불러 일으킨다. 행복은 노력의 댓가이다. 노력은 성공을 크게 안겨준다. 성공은 인생의 참된 가치이다. 위대한 사람은 큰 희망을 안고 대지 위에 푸른 싹을 곱게 키운다. 젊음은 믿음으로 용기를 심어준다. 진실된 삶은 배움으로 사랑을 안겨준다.

손에 손을 잡고 희망찬 내일의 꿈을 키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희망찬 큰 포부를 가지고 대성을 다진 위인으로 용맹을 떨치면서 정의에 용감해야 한다. 태양의 빛속에 대성의 위인상(偉人 像)을 갈고 닦아야 한다.

---

\* 용기는 위인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

## 가정을 일으키는 네 가지 근본



讀書起家之本 / 循理保家之本 / 勤儉治家之本 / 和順齊家之本

---

글 읽는 식구가 많으면 그 집은 장래가 있기에 흥하고 유망하다.  
모든 일에 임해서 온 식구가 서로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집안은 밝아온다.

근검 절약하면 착실하게 다진 살림은 내일의 희망을 안겨 준다.  
모든 일에 있어서 순리를 따르면 가정을 보존하는 방법이 된다.  
이 네 가지 근본을 바탕으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한다.

---

\* 독서기가지본 / 순리보가지본 / 근검치가지본 / 화순제가지본

글을 잘 읽음은 그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모든 이치에 따름은 집을 잘 보호하는 근본이다. 부지런하고 절약함은 집을 잘 다스리는 근본이다. 화목하고 순종함은 집안을 잘 정제하는 근본이다.

---

## 내 한 몸이 큰 몫을

김유신

一塵泰山無所增 / 一葉沒林無所損

---

중대한 일에 임하여 나 하나가 있다고 해서 큰 일에 도움이 될 리 없고, 작은 일에 있어서 나 하나가 없다가 해서 큰 지장이 있을 까닭이 없다.

모두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백 사람이 모인 큰 단체가 이뤄진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에 임해서 나 하나의 위치가 큰 일을 이뤄낼 수도 있고, 그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좋은 일에는 내가 묻혀 들어가고, 잘못된 일에는 나 한사람의 비중이 크게 드러나는 법이다. 우리는 나 하나의 위치가 아무런 존재가치 없는 자리가 아니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일진태산무소증 / 일엽몰림무소손

높고 높은 산 위에 티끌 하나를 보탠다고 해서 그 산이 더 높아질 리 없고, 우거진 숲속에 낙엽 한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숲이 줄어들 바 없다.

---

## 재물은 분명하게

명심보감

酒中不語 眞君子 / 財上分明 大丈夫

---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해 관계에 얽힌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어떠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재산문제는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후일을 위하여 피차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대장부로서의 도리이다. 모든 재산은 소중한 양심의 모음이어야 한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장부의 체통과 체면을 세우면서 재정문제는 분명히 해야 오늘, 내일을 사는데 살맛이 날 것이다.

---

\* 주중불어 진군자 / 재상분명 대장부

술이 취한 가운데서도 말이 없음은 참다운 군자다. 재물에 대하여 분명함은 대장부이다.

---

##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知足子 貧賤亦樂 / 不知足者 富貴亦憂

---

안빈낙도(安貧樂道)란 말이 있다. 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신이 만족함을 못 느낄 때는 가난한 사람만도 못하다. 불만은 근심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매사에 우리는 만족함을 얻어야 한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마음만은 풍부하게 끈고 바르도록 산다면 그는 그로써 충분히 부유할 수 있다. 스스로의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

\* 지족자 빈천역락 / 부지족자 부귀역우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역시 즐거울 것이요,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이 있다.

---

##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



一切皆懼死 莫不畏杖痛 / 恕己可爲臂 勿殺勿行杖

---

인생은 사랑이다. 사랑은 생명의 꽃이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도 있다. 죽고난 뒤에는 아무 것도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 한다. 따라서 남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진리는 생명이다. 생명만이 신성하다. 생명은 사랑의 미덕이다. 생명의 가장 강한 멋은 진실이다. 생명이 없으면 잘못도 없다.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파아란 하늘같이 알고, 남의 생명을 푸른 땅같이 알아 보살펴야 한다.

---

\* 일체개구사 막불외장통 / 서기가위비 물살물행장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채찍질을 두려워 한다. 생명에 이것을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하지 말아야 한다.

---

##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五刑之屬三千而罪 / 莫大於不孝

---

어버이와 자식은 그 친애함이 타고난 정이다. 아버이는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기른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이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그 가르침에 잘 따라야 한다. 우리는 죄중에 가장 큰 죄가 불효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은 학업에 열중하면서 빛나는 가업을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받들어 잘 모시면서 바른 도리를 배우고 익혀 효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

\* 오형지속삼천이죄 / 막대어불효

오형에 속하는 죄가 3천 가지이지만 그 죄가 불효보다 더 큰것은 없다.

---

##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교 서

人不學 / 不知義

---

사람은 동물중에 영을 가진 가장 귀한 동물이다. 일반 동물은 교육없이 본능으로만 살아가지만, 인간은 교육을 통해 영(靈)을 개발하는 동물이다.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 교육(지식)의 산물이라고 한다. 알아야 살 수가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배움에 힘써야 한다. 또한 지적 개발에 힘을 써 나와 너, 그리고 겨레와 나라를 위하여 모든 정의를 바탕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배움의 길로, 참된 삶의 길로 정진하는 정확한 인생관을 다져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하루하루 일생일념(一生一念)을 다지며 배움을 통하여 진실의 혼, 애국의 혼, 젊음의 혼을 갈고 닦으면서 인간의 가치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

\* 인불학 / 부지의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정의를 알 리가 없다.

---

## 선덕을 쌓아 베푸는 집안에는

주역

積善之家 必有餘慶 /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심을 모으며 선행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성공의 길로 이어져 항상 좋은 경사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지 못하고 부덕한 행위로 세상을 살아 간다면 언제나 불안한 가슴으로 재앙(災殃)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를 두고 착한 사람이 되어 선행을 쌓아야 한다. 육극(六極)을 물리치고 오복(五福)을 누리기 위해 믿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선을 바탕으로 멈춰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이 되어 절망을 물리치게 되고 무엇이든 가능한 위치에서 밝은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 적선지가 필유여경 / 적불선지가 필유여양

선덕을 쌓아 베푸는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경사가 따르고, 불선하는 집안에는 재앙이 그치질 않는다.

---

##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주 자

少年易老學難成 / 一寸光陰不可輕 /

未覺池唐春草夢 / 階前梧葉已秋聲

---

우리 인간은 꿈같이 짧은 한 생애를 놓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젊음 다음은 곧 늙음이다. 그리고 배워서 성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학문하는 데에 쪼개어 써야 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봄철을 맞아 어물어물 하다 보면 어느덧 쓸쓸한 가을철을 맞게 되어 세월만을 탄하게 된다. 모든 배움은 짧았을 때에 이룩해야 한다. 정진일로(精進一路)로 내일의 희망을 맞아야 한다.

---

\* 소년이노학난성 / 일촌광음불가경 / 미각지당춘초몽 / 계전오엽이추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한 치의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연꽃가의 봄풀은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어느덧 세월은 빨리 흘러 섬돌 앞의 오동나무 잎은 가을 소리를 전한다.

---

## 내가 남에게 공을 베풀었거든

체근담

我有功於人不可念 / 而過則不可不念 /

人有恩於我不可忘 / 而怨則不可不忘

---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상대를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도 주위 사람들에게 돌려 버린다. 반면에 잘 된 일은 그공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을 아주 뽐낸다. 이렇게 간사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상대방을 탓한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기에 자신의 가슴 역시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말은 건강을 잃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헤쳐서야 되겠는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순조로운 혈액 순환을 바탕으로 맑은 정기가 치솟아오를 수 있도록 자애심을 몰아야 한다.

---

\* 아유공어인불가염 / 이과척불가불염 / 인유은어아불가망 / 이원척불가불망

내가 남에게 공을 베풀었거든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내게 허물이 있는가를 생각하여 곧 고쳐야 한다. 남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거든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하고 원망이 있을 때는 곧 잊어버려야 한다.

---

## 독서는 양식인 갈 길이다



讀書完成人 / 談論機智人 / 筆記正確人

---

독서는 기가지본(起家之本)의 첫 번째 길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속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좋은 책은 독서 삼도(三到)에서 일깨워주는 힘찬 말처럼 큰 입으로 읽고, 왕눈으로 잘 보고, 참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무게있게 지식을 캐내는 재량과 사고(思考)의 능력 즉 사색의 힘을 길러준다. 독서는 인생의 참된 벗과 유쾌한 반려자다. 그리고 친절한 충고자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요소로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해 준다. 독서하는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안정돼 쾌락을 몰고온다. 모든 책을 잘 선별하여서 유익(有益)한 책을 읽고 그것을 다 정독한 후에는 독후감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상상력과 함께 문장력을 기르게 된다.

매사에 노력하고 정성을 모아 양식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의미 깊게 받아 들이며 예지인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가슴속에 불이 붙은 글귀와 타오르는 명언들을 정확한 필기를 통하여 정리를 해둬야 한다. 망각의 순간을 넘어 기억의 시간을 딛고 서서 명석한 두뇌를 관리하며 지식인으로 몰고 가야 한다.

---

\* 독서완성인 / 담론기지인 / 필기정확인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가지있는 사람을 만들고,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

## 만사를 잘 다스리면



萬事從寬 / 基福自厚

---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진실된 사람과 허황된 사람 그리고 잘난 체하는 사람과 못난 체하는 사람 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만남이든지 간에 그들은 서로 부딪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냉정과 온정, 분노와 격동, 희비의 쌍곡선에서 말이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련이 따른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결실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배우는 생활로 일관되어야 한다.

자연과 인생속에서 외면할 수 없는 법도가 있어 우리는 모든 일을 순리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 넘겨야 한다. 모두가 후한 복을 참되게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

---

\* 만사종관 / 기복자후

모든 일을 너그럽게 하면 그 복은 자연히 두터우니라.

---

## 살아 이별, 슬픈 마음 아프다

두자미

死別已吞聲 / 生別常惻惻

---

살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고, 만남 뒤에는 이별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별은 슬픔을 몰고온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길을 오고 가며 이별을 놓고 고민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서로가 나뉘는 나눈다.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별을 눈으로 말하게 해달라는 사랑의 장은 하염없는 미련을 낳는다. 이별은 불이 되어 간장을 태운다.

넘치는 눈물은 사랑비 되어 흐른다. 정이 담긴 삶터에서, 정이 샘 솟는 일터에서 서로 정을 쏟아 놓고, 인연이 다한 뒤에는 별별 송별의 사정이 따른다. 사랑찬 아픔의 병을 한하는 별리의 사랑가는 긴 가락으로 그리움을 넘기면서 울고 넘는 길이다. 용의 꼬리(龍尾)를 잡고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정은 무정이다. 슬프다 슬프다 하여도 생이별 보다 더 아픈 것은 없을 것이다.

---

\* 사별기탄성 / 생별상촉촉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픈 마음 아프도다.

---

## 아버이 우리를 낳으시고



父兮生我 母兮鞠我 / 哀哀父母 生我劬勞 /  
欲報之德 昊天罔極

---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다짐해 본다. 결코 돌아가신 뒤에 뉘우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으리라.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한몸이 밝은 세상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는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은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시고 행여 다칠 세라 아플세라 키워주신 그 정성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참으로 가이없다. 부디 남은 여생이나마 평화롭게, 편안하게 사시기를 두손 모은다.

---

\* 부혜생아 모혜국아 / 애애부모 생아구로 / 옥보지덕 호천망극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아아! 아버지, 어머니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깊고 깊은 은혜 갚고자 하는데 그 은혜는 넓은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고 그지없습니다.

---

## 치솟는 불을 보고도

명심보감

遠水不救近火 / 遠親不如近隣

---

사람들은 이웃과 이웃끼리 한데 어울리며 살아간다. 사람의 정은 자주 만나는데서 생겨나고 또, 깊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치솟는 불길을 보고도 먼 곳에 있는 물은 끌 수가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 길에는 행, 불행이 수시로 따르게 마련인데, 그 때마다 먼곳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이 딱한 사정을 알 리 없다. 그러나 혈육은 아닐지라도, 친척은 아닐지라도 함께 정을 나누며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이웃들이다. 인정(人情)이 조석(朝夕)으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날이 새면 만날 수 있는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서로서로 도와가며 잘 보살피고 또 아껴주면서 참 삶을 복되게 누려야 한다. 길흉화복의 큰 잔치, 작은 잔치를 함께 하면서 고운 생활, 바른 생활로 오손도손 살아가야 한다.

---

\* 원수불구근화 / 원친불여근린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곳의 불을 끄지 못한다. 먼 곳에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지만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만은 못하다.

---

## 풍문은 듣는 사람 마음대로



誤被浮虛說 / 還爲衆口喧 / 空將愁與恨 / 抱病掩柴門

---

세상에는 말도 많고 뜯 소문도 참으로 많다. 뜯 소문은 발없이 풍문을 본다. “풍문은 강과 같은 것으로 수원은 아주 좁고, 하류에서는 아주 넓어진다.”는 옛 말이 떠오른다. 풍문은 듣는 사람 마음대로 추측과 악의를 몰고 불려진다. 풍문은 남의 비밀을 조화 부리면서 곤잘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귀담아 들은 소문은 단순한 풍설일 뿐이다. 그 풍설을 놓고 거기에 또 말을 만들어 보태면 또 하나의 더 큰 풍문이 된다. 임 그린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문을 닫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있으니 입 가진 사람마다 말도 많다. 만날 수 없는 아픈 가슴은 묘책과 묘안을 안고 하늘을 무찌른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판국에 난세의 풍문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 어수선 하다. 산도 절도 물도 절로, 순리를 찾아가는 자연처럼 살고프다. 이리저리 떠도는 소문은 미인의 사랑 길을 더욱 부채질 한다. 녹음방초 속에 푸르름의 밤꽃만이 활짝 웃어 반겨준다.

---

\* 오피부허설 / 환위중구원 / 공장수여한 / 포병엄채문

뜯 소문을 듣고 보니 말썽이 더욱 높다. 한 많은 시름을 안고 풀길 없는 아픔인가 보다. 문을 닫고 드러 누우니 모두가 병들었다고 야단이다.

---

## 허영은 인생을 추하게 한다

법구경

一切斷欲 截意根源 / 晝夜守一 必入定意

---

허영은 사치다. 사치는 겉치레다. 겉치레는 속이 텅빈 상태이다. 허세는 빈 마음을 몰고 필요이외의 낭비를 낳는다. 낭비는 이미 분수를 잃었다는 말이다. 허영은 유행이 주는 악덕이며 마음의 큰 병이다. 경박한 미인의 알팍한 행동이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위 환경을 돌아보며 확고한 위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낭비의 벽을 무너뜨리고 생활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 허영은 그 인생을 추하게 만든다. 여기 해도 하나, 달도 하나,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일관되어야 삶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언제나 마음을 하나로 지켜야 한다.

---

\* 일체단욕 절의근원 / 주야수일 필입정의

칭찬을 바라는 모든 허영심은 버려야 한다. 이름을 생각하는 욕심의 뿌리도 끊어야 한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를 잘 지키면 그 마음은 언제나 안정을 얻을 것이다.

---

## 가난을 물리쳐야 산다

영감언

---

가난은 빈곤을 말한다. 빈곤은 태만에서 비롯된다. 태만은 무력에 떨어져 나태하다. 나태와 무력은 활동력이 없다. 활동력은 인간의 기본 동작이다. 그 기본 동작은 노력함에 따라 좌우된다. 피와 땀으로 얻어지는 땀은 노력의 댓가이다. 가난은 우리의 숙적(宿敵)이다. 우리 곁에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숙적인 가난을 용감하게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물리쳐야 한다. 때문에 가난한 자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한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빈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놀고, 먹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을 찾아 일을 하면서 빈곤을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집안이 가난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다정한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흩어질 수가 있다. 몸에 중병이 들면 주위에서도 버림을 주며 도망을 친다. 눈을 좌우로 돌리면 천지가 풍년이다. 그러나 입은 흉년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을 떠올려 본다. 우리 모두는 맑은 바일에 온 힘을 쓰면서 가난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분발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

\* 가난은 사람을 분발케 한다는 내용이다.

---

## 감정있는 곳에 생존있다

영광언  
영광언

---

우리들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만은 꼭 기억하고 있다. 태어났음을 즐거워하고, 생존하고 있음을 모두가 자랑한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를 지른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인간의 생애는 세월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일생 일대를 돌아보면 희망에 속고 허탈에 울고, 순간순간을 죽음으로 몰아부치면서 뛰어 들어가고 있다. 어찌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간이다. 생일날이 되면 축하를 하고 선물을 주면서 야단들이다. 한 평생을 두고 자식자랑, 자식 걱정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가노라면 희비애락의 감정이 따르고 감격에 벅찬다. 감격에 벅찬날은 성공을 다진 참된 삶을 맞아 활기를 몰고 온다.

활기는 생존의 의미를 복돋아 준다.

---

\* 감정이 있는 곳에는 우리들의 참된 생존이 있다는 내용이다.

---

## 때를 잃고 뒷북친다



---

때를 잘 만나야 한다. 만사가 잘 돌아가는 그 때를 얻는 사람은 만사를 얻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때는 급하게 달아나고 만다. 오늘이야 말로 큰 일을 해낼 때다. 큰 일을 해낼 때는 나하고 싸우는 때다. 나하고 싸우는 때는 대성할 때를 말한다. 대성할 때는 기회를 만날 때다. 기회를 만날 때는 힘차게 일 할 때다. 힘차게 일 할 때는 젊었을 때다. 젊었을 때는 불가능을 모를 때다. 불가능을 모를 때는 자량과 실수만을 일삼을 때다. 자량과 실수만을 일삼을 때는 앞만을 바라 볼 때다. 앞만을 바라 볼 때는 피가 끓는 때다. 피가 끓을 때는 젊었을 때다. 젊었을 때는 기회를 탈 때다. 우리 속담에 “망건쓰자 파장난다”는 말이 있다. 이것 저것 준비하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때를 잡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단 기회를 타면 저축한 힘을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 저축한 힘을 마음껏 발휘할 때는 승리할 때다. 승리할 때는 또 다시 일어날 때다. 일어날 때는 내일의 역사가 다시금 빛날 때다.

---

\*집이 타는 것을 보고 우물을 판다는 내용이다.

---

## 물이 와야 배가 간다

영감언

---

성공의 비결은 노력이다. 즉 피와 땀이 섞인 노동의 힘인 것이다.

인생이라고는 고행길에 피 눈물은 숙명적인 운명을 헤쳐 나가는 동반자이다.

성공은 피 눈물과 피땀어린 가혹한 노력의 댓가일 뿐이다. 목표를 세워놓고 야망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끈기있게 밀고 나가는 억센 노력이야말로 성공하는 길이다. 노력 앞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다. 어제의 불가능을 오늘의 가능으로 몰고가야 한다. 노력은 이익을 가져오고 태만은 손해를 몰고 온다. 구슬도 닦지 않으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현대화된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력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뤄낼 수가 없다. 돌고 돌아 가는 물방아도 물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

물을 공급하는 노동의 샘을 땀흘려 파야 한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듯이 노력의 수고 없이는 안락한 삶이 있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겠다.

---

\* 물을 보내지 않으면 물방아는 돌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 사랑은 힘이 아니고 타는 정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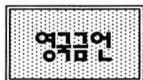
사랑은 육체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랑은 나의 참 마음이다. 남녀간의 사랑은 무서운 정열이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결국 참고 참는데 있다.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랑은 인격을 높여주는가 하면 고운 사랑은 심성을 굳건히 세워준다. 살맛 나는 사랑은 생활을 정화(淨化)시킨다. 사랑은 오직 하나 뿐이다. 둘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참 삶과 사랑은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다.

---

\* 사랑은 칼없는 왕국을 지배한다는 내용이다.

---

## 아침은 푸른 희망을



---

아침을 위해 시간은 새벽부터 준비한다. 새벽의 해는 희망을 안고 동쪽에서 밝아온다. 아침은 약동하는 생명의 본질을 느끼게 한다. 생명은 신성하다. 태양빛에 약동하는 새 아침은 새벽의 이슬을 더욱 영롱하게 한다.

이슬은 푸르름에 무지개 빛을 태운다. 그 빛은 만물에 생명력을 불러 일으킨다. 푸른 산 맑은 강, 자연은 온통 황금으로 물든다. 아침의 맑은 공기는 살맛 나는 희망을 심호흡하게 한다. 오색도 찬란한 새 아침의 햇빛은 하루의 역사를 열어주고 영원한 역사의 줄기를 이어주고 있다. 때문에 날마다 맞는 새 아침은 새로운 내일을 이어주는 새 희망의 힘찬 아침이 되어야 한다.

---

\*아침 시간은 황금을 물고 온다는 내용이다.

---

## 영예의 길도 무덤으로 통한다

영광언  
영광언

---

인생은 유한(有限)하다. 한 백년이면 죽할 것을 고해(苦海)는 왜 넘는지 모를 일이다. 짧은 이승의 삶을 두고 무덤은 기다린다. 무덤은 고요하다. 슬퍼도 찾는 무덤! 괴로워도 찾는 무덤! 보고파서 찾는 무덤! 못잊어서 찾는 무덤!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에 있겠는가?

당대 발복(發福)할 수 있는 명당의 무덤은 후손들에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꽃 한 송이 곱게 안고 무덤을 찾아 묘비앞에서 통곡이라도 속 시원하게 하고왔다. 두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이라도 치고왔다.

유월의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묵직한 비가 내린다. 묘비 둘레에는 벌써 무궁화 꽃이 피기 시작했다. 진혼의 나팔소리가 구슬피 울려 퍼진다. 현충일 날에 순국선열(殉國先烈) 및 전몰 장병(將兵)의 명복을 빌면서 현충의 넋을 위로하는 인파가 줄을 이어간다. 말없는 무덤앞에서 있는 묘비만이 영예(榮譽)의 길로 '잘 싸웠노라'고 외치며 애국심을 북돋는다.

---

\* 영예의 길도 무덤으로 통할 따름이다.

---

##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

영감언

---

정성을 다함은 하늘의 뜻이다. 정성은 성실을 낳고, 자신을 얻는다. 자신은 책임을 동반한다. 책임은 노력으로 진다. 노력은 충실을 다진다.

충실은 태만을 물리친다. 태만은 성의를 잃게 한다. 성의는 감동을 준다.

감동은 공명을 얻는다. 공명은 안정을 다진다. 안정은 매력을 끌고 온다.

매력은 성실한데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일에 성실하면 명예는 자연히 따라 온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생의 지표를 세워 참 삶을 누려야 한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조용히 침묵을 지켜야 한다.

성실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은 성실을 구하고, 일은 정성을 모은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가정도, 이웃도, 사회도, 나라도, 하늘도, 땅도 감동할 것이다.

---

\*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내용이다.

---

## 펜은 칼보다 강하다

영문  
영문

---

사람은 말을 한다. 말은 문장을 낳는다. 문장에 의해 성전과 법전은 쓰여지고 교과서와 역사책도 기록으로 남겨진다. 문학 역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사상을 문장에 의해 표현해 남겨놓은 것이다. 모든 문장에 의해 쓰여지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글을 읽고, 글을 짓는 것은 생을 깊이있게 한다. 역사의 인물 중에는 힘으로, 몸으로, 칼로 무사도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권좌(權座)를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반면에 또 말과 글로, 작품으로, 자연과 더불어 창작생활로 예술을 꽃피우며 살아온 사람들 역시 많다. 이 두 갈래의 방법중에 사상을 담은 글은 영원을 향하여 후인들에게 두고 두고 자랑스럽게 남을 것이다. 때문에 위대한 힘은 어디까지나 칼보다 펜이다. 글속에 역사가 있고, 말속에 사상이 있다. 펜으로 쓰여진 글은 영원하다. 총이나 칼로도,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부술 수가 없다. 일상생활을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조금 덜 떠들고, 사상의 진수만을 추려 써서 위대한 금언으로 남겨 후세에 빛내야 한다. 힘은 살아있을 때의 보람이다. 유명한 글은 지구촌 사람들의 흥금을 울려 주고 그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

---

\*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는 내용이다.

---

## 교육을 배제한다면 짐승

채근담

敎弟子如養閨女 / 最要嚴出入謹交遊 / 若一接近匪人 /  
是淸淨田中 / 下一不淨種子 / 便終身 難植嘉禾矣

---

국가의 장래는 교육에 있다. 국가의 운명은 청소년의 교육에 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만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교육을 배제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교육의 목적은 맑고 깨끗한 풍토 위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교육자는 지위보다 학식과 견문을 통한 산 교육장에서의 체험이 중요하다. 물은 길을 트는 대로 흐른다. 사람은 가르치는대로 된다. 어진 마음을 가르쳤으면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육에는 타력(他力) 교육과 자력(自力) 교육이 있다. 우리는 자력의 대성길로 문화의 꽃을 피워야 한다. 곱디 고운 청순한 처녀 시절의 몸가짐은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거울이 된다.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옳게 버릇이 들어야 한다. 한 번 나쁜 길에 빠지면 영영 헤어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토,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한 밝은 교육의 장은 한 인생을 참되게 하는 훌륭한 지도자이다.

---

\* 교제자여양규녀 / 최요엄출입근교유 / 약일접근비인 / 시청정전중 / 하일부정  
중자 / 편중신 난식가화의

제자를 가르침은 규중의 처녀를 잘 보살피는 것과 같다. 교우를 삼가 하면서 모든 출입을 엄하게 해야 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는 곧 맑고 깨끗한 논밭에 부정한 종자를 뿌리는 것과 같다. 종신토록 좋은 뿌리를 심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

##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知彼知己 百戰不殆 / 不知彼而知己 /  
一勝一負 / 不知彼不知己 / 每戰必敗

---

모든 일에 임해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알면서 스스로를 모르면 그 싸움에서의 성공률은 반반이고, 상대방도 모르고 스스로도 알지 못 할 때는 매번 실패한다. 여기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없으면 다음 기회를 타야 한다. 빈틈없는 계획으로 모든 일에 백전백승(百戰百勝)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내려질 때 그 일에 덤비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

\* 지피지기 백전불태 / 부지피이지기 / 일승일부 / 부지피부지기 / 매전필패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나  
만을 알면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질 수가 있다. 또한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나  
를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

---

## 도움과 해로움을 주는 벗

공 자

益者三友 損者三友 /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 損矣

---

벗은 잘 사귀어야 한다. 친구가 잘못 되었을 때는 좋은 방법으로 충고하고, 잘한 일에는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한다. 친구를 사귄데 있어 좋은 친구를 갖고 싶으면 스스로가 상대방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 잔재주가 있는 친구보다는 정직한 친구, 서로가 서로의 가슴을 맞대고 참 마음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야 한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벗이 있다. 사랑하는 벗, 잊어버리는 벗, 미워하는 벗. 이 중 우리는 사랑하는 벗이 되어야 한다. 음식을 나눠먹을 때의 친구는 많지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는 극히 드물다. 친구 사이에는 거리감 없이 매우 다정다감한 상태에서 허물없는 교제가 필요하다. 서로의 마음을 툭 터놓고 진실한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친하게 사귀어야 한다.

---

\* 익자삼우 손자삼우 / 우직, 우량, 우다문, 익의 / 우편벽, 우선유, 우편녕 / 손의 도움을 주는 벗, 해로움을 주는 벗이 셋이 있다. 정직한 벗, 성실한 벗, 박학한 벗은 도움을 주는 벗이요, 자신의 의지없이 남의 뜻이나 맞추는 벗,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곰상긋은 벗, 실속없이 말만 내세우는 벗은 해롭다.

---

## 말은 삶의 중요한 도구이다



不當靈言 言當畏報 / 惡往禍來 刀仗歸軀

---

인간에게 말은 중요한 도구이다. 서로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말은 필수 조건이다. 그 중에서도 고운 말, 바른 말은 더욱 그러하다.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다보면 때로는 거친 말, 나쁜 말도 생긴다. 거친 말, 나쁜 말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맞대고 듣기 싫은 말이 튀어 나온다. 계속해서 욕설과 험담이 오고 간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화를 입게 된다. 그것은 피차간의 신상에 해로운 일이다. 그동안 쌓여온 명예마저 한 치의 허로 인해 떠나고 마는 것이다.

꼭 써야 할 말만을 가다듬어 고운 말, 바른 말을 주고 받아야 한다.

---

### \* 불당영언 언당외보 / 악왕화래 도장귀구

남들이 듣기에 거북스런 말과, 상대방의 화를 살만한 말은 삼가해야 한다. 상대방도 또 그렇게 대답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악이 가버리면 화가 돌아온다. 욕설이 오고 가면 아픈 매질 또한 응보해 온다.

---

## 법도는 넓은 길



懼法朝朝樂 / 欺公日日憂

---

자연과 인생, 그 사이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윤리, 도덕 등 일상생활에 따르는 여러 모양의 질서와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일이 중하든 가볍든지 간에, 그 직위가 높든 낮든지 간에 거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생활양식 즉, 법도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어떠한 일정한 틀 속에서 하루하루 이어가는 삶을 두고 우리는 언제나 ‘나라와 겨레’, 그리고 ‘가정과 나’라는 존재가치의 대도(大道)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준법정신을 가다듬어 그것을 지켜야 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잘못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져 정정당당한 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속임수가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근심의 씨앗이 되어 사회악의 큰 파문을 몰고 온다. 불신은 불화를 낳고, 불화는 불법을 자행한다. 불법은 무질서를 몰고 오고, 무질서는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결국 혼란은 파괴를 일삼게 하고, 파괴는 멸망을 자처하게 되고 만다. 생활의 즐거움을 위해, 정의로운 사회 확립을 위해 서로가 밝은 마음으로 서로를 믿는 자세를 곧고 바르게 세워야 한다.

---

\* 구법조조락 / 기공일일우

법을 두려워 하면 언제나 즐겁고 나라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되느니라.

---

##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다

법구경

不當趣所愛 / 亦莫有不愛 /  
愛之不見憂 / 不愛亦見憂

---

인간에게 있어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정서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로 인해 가끔 아파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괴로움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괴로움일 것이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우리 인간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세계를 더욱 성숙하게 해준다. 여기 이성간의 사랑은 무서운 열정을 동반한다. 사랑의 진정한 맛은 아픔 속에 더욱 달콤하다. 사랑의 행복은 죽음의 괴로움을 몰고 온다. 사랑도, 괴로움도, 아픔도 참 삶으로 가는 가시밭 길이다. 제 아무리 높은 고개라 할지라도 넘고 넘어야 한다.

---

\* 부당취소애 / 역막유불애 / 애지불견우 / 불애역견우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말아야 한다. 미운 사람도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

## 윗 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공 자

基身正 不令而行 / 基身不正 雖令不從

---

바른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말없는 교훈이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평보다도 본보기가 필요하고 행동이 중요하다.

참된 행동은 산 교육이다. “윗 물이 맑으면 아랫 물도 맑다”는 말이 있다.

주인의 마음씀이 모범되면 그 아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모범을 따르게 마련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기에 달려있고 배우는 학생도 스승의 영향을 받는다.

아들 딸의 교육 역시 그 아버지의 처신에 달려 있다. 모범된 모든 행동은 큰 소리의 훈화보다 효력이 강하다.

---

\* 기신정 불령이행 / 기신불정 수령부종

윗 사람은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아니하여도 아랫 사람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을 하여도 아랫 사람은 따르지 아니한다.

---

## 인간만사는 새옹지마

유남자

人間萬事 / 塞翁之馬

---

변방에서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새옹 노인의 운명론이다. 새옹의 외아들에게는 붉은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아주 다정한 벗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뛰어놀던 말이 갑자기 호나라 쪽으로 멋대로 도망쳐 갔다. 새옹은 실의에 빠진 외아들을 달래면서 더 좋은 말이 나타날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도망간 붉은 말이 여러 준마(駿馬)를 몰고 다시 주인을 찾아왔다. 새옹과 그의 외아들은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준마와 함께 승마를 즐기던 외아들은 그만 낙상하여 큰 부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고 말았다. 새옹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때마침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나라의 젊은 장정들은 전부 출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때 새옹의 외아들은 다리가 불구라는 이유로 입대를 하지 못했다. 결국 불구자가 된 관계로 그의 외아들은 전쟁가운데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인간만사의 길흉화복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

\* 인간만사 / 새옹지마

인간의 모든 일이 새옹의 말과 같다.

---

## 천하를 돌아보며 세상을 걱정



周流憂世 遂以儒道 / 游於諸侯 思濟斯民

---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기원한다. 근심은 금물이다. 큰 일을 생각하다보면 많은 근심도 따르게 마련이지만 인생의 짧은 시간을 사소한 근심과 걱정으로 소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근심은 그것을 삭삭 베어버릴 칼이 없고, 그 근원을 없애버릴 그 어떤 향약도 없다. 필요 이외의 근심은 인생의 큰 적이다. 어지러운 세상은 근심을 몰고 모두에게 걱정을 끼친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상에는 군센 힘이 있어서 거기 정의와 예절이 푸르게 생동하고 있다. 대망의 꿈을 안고 행복감에 젖어있는 만 백성을 위하여 모든 근심을 몰아내 주고 필요이외의 걱정을 덜어 줘야 한다. 싸움이 없는 평온한 땅에 화기에애한 자애심을 불어 넣어 겨레사랑 길을 밝혀야 한다.

---

\* 주류우세 수이유도 / 유어제후 사제사민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걱정했다. 유도를 제후에 널리 펴고 다녔지만 목적은 도탄에 헤매는 백성들을 건지고 싶은데 있었다.

---

## 탐욕은 걱정과 두려움을



貪慾生憂 貪慾生畏 / 無所貪慾 何憂何畏

---

재물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이다. 벼슬에 대한 욕망 또한 말할 수 없이 많다. 사치는 허영심을 조장한다. 허영심은 야심을 몰고 온다. 야심은 자부심을 수단으로 질투의 불을 켜댄다. 질투심은 탐욕을 동반하면서 부귀를 모으는데 자아 중심의 눈길을 이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지 않도록 중용(中庸)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안은 탐욕 때문에 덕의 빛을 잃었다. 끝없는 욕망을 누르면서, 눈 앞의 이익을 조심하면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지나친 탐욕을 버리고 희망찬 내일의 꿈을 안아야 한다.

---

\* 탐욕생우 탐욕생외 / 무소탐욕 하우하외

탐욕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탐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이 없는 곳에 걱정이 없으니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

## 망각은 마음에서 떠남이다

영문

---

볼 것과 못볼 것을 다 보았을 때 본 것을 다 기억한다면 머리는 그 모든 것을 주체하지 못해 빠개질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망각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서 한 달, 그리고 한 해 아니, 한 평생을 두고 일어난 순간 순간의 일들을 모두 기억속에 넣고 살아간다면 기억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릴 것이며 우리들은 아마도 정신 이상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망각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망각이 있으므로써 기억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잊을 것을 잊어 버리고 새로운 사실을 기억으로 다져 넣는 작업이 되풀이 되다보면 망각과 추억과 회상이 함께 호흡하는 회전의 원리가 이루어진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불쾌한 일은 과감하게 잊어버리도록 하고 유쾌하고 올바른 일만을 기억하여야 한다. 인간은 애정의 동물이다. 그리고 망각의 동물이다.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애정이 식게 되고 마음도 멀어진다. 하물며 정이 없는 사람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곧 그를 잊어 버리게 되지 않겠는가? 상대에게 상기시키고 싶거든 자주 모습을 보이고 정을 나누어야 한다. 한편 망각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인간사이다. 흘러간 세월속에서 기쁨으로 기억돼 떠오르는 것은 지금의 고뇌를 위로해 주지만, 망각되지 않는 슬픈 추억은 후회를 몰고 온다. 그러나 후회도 그리움도 회상의 창가에 간간 떠오름이 없다면

---

인생의 깊은 의미 또한 없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망각없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암울한 기억에 대한 망각은 만사를 고쳐주는 처방이다. 좋지 못한 기억은 과감하게 망각하고 새로운 기억을 찾아 유쾌한 삶을 누려야 한다.

---

\*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곧 잊어 버리고 만다는 내용이다.

---

##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영문  
영문

---

정든 사람은 소식이 있든 없든 간간 떠오른다. 친한 사람들의 안후(安候)가 걱정된다. 혈육의 정은 더욱 간절하다. 이성간의 정은 북받쳐 오른다. 뉴스에 신경을 쏟는다. 매스컴에 기대를 가져본다. 나쁜 소식이 빨리 전해오는 반면 좋은 소식은 항상 늦게 오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은 더욱 궁금하다. 임이 있는 곳의 소식은 더욱 캄캄하다. 세월을 탓하며 오늘도, 내일도 소식을 기다린다. 지친 나머지 오고 갈 수도 없는 안타까운 정을 태운다.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다. 몸들 바를 모르고 임을 그리다 들로 산으로 무작정 떠난다. 행여나 행여나 하며 산 따라 바람 타고, 물 따라 정이 가는 임의 소식은 허상(虛像)을 찢러 온다. 그 어느 날처럼! 지난 날처럼! 참 빛을 타고 유학길에 소식은 끊겼다. 포동 포동한 건강미를 다지며 대성을 빌어 준다.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희소식은 무소식인가?

답답한 마음만이 기다리는 가슴을 아프게 조인다. 유정(有情) 무정(無情)한 세월속에 그리운 임은 가슴만 태우고 간다. 용미를 안고 ...

---

\*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

## 밤은 사색의 어머니다



---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 인생의 장은 밤에 열린다. 탐구하는 인생은 사색하고, 관찰한다. 인간은 사색에 의해서만 창조의 신이 된다.

어머니는 강한 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때문에 위대하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의 자료를 제공해 줄 뿐이고,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사색의 힘을 빌어야 한다. 고요한 밤에 사색하는 힘을 길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예술을 창조하는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온갖 물상이 다 정지 상태에 있는 고요한 밤은 사색의 힘을 낳는다.

---

\* 밤은 사색의 어머니이다 라는 내용이다.

---

## 버릇이 잘 들어야 한다

영국문학

---

조심성있게 성장기를 잘 다뤄야 한다. 사람은 버릇이 잘 들어야 한다.

소년, 소녀 시절의 나쁜 습관은 한 평생을 몰고 간다. 성질은 서로 가깝지만 습관은 서로 멀고 멀다. 탈선은 습관이 되어 막을 수 없는 버릇이 된다.

여인의 봄바람은 꽃샘의 바람이다. 꽃샘의 바람은 음란의 바람이다.

그 바람은 인생을 망치게 한다. 좋은 버릇은 인생의 향약이 되지만 나쁜 버릇은 독약이 되어 전 생애를 사경(死境)으로 몰고 간다. 고운 천성을 간직하여야 한다. 참된 인간이 되어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

\* 세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내용이다.

---

## 연애는 신성하다



---

사람은 사랑을 안다. 사랑을 배운다. 사랑은 연애를 나눈다. 연애는 남녀간에 일어나는 음악이며 애무이다. 애무는 울동의 쾌락을 몰고 온다.

사람들은 생의 쾌락을 맛보기 위하여 애인을 만난다. 애인은 이성간의 남녀 사이를 말한다. 참된 연애를 하기 위하여 믿음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눈망울을 동글리며 달콤한 밀어를 토한다. 연애에는 연령의 고하가 필요없다.

정열적인 연애! 취미로 일삼는 연애! 육체를 통한 연애! 허영에 찬 낭만의 연애! 연애는 어디까지나 매춘의 성격을 띤 달콤한 취미이다. 개화기의 큰 꿈을 맞아 회춘(回春)으로 몰고 가는 생명의 꽃이다. 연애에는 고뇌와 희열의 갈등을 디더야 하는 심리 싸움이 따른다. 스스로가 고뇌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상대를 고뇌에 빠뜨린다든지, 둘 중의 그 하나를 다진다. 나름대로 통쾌한 희열의 감정을 안고 연애는 굳게 존재한다. 연애를 시작하기는 쉬우나 그것을 그만둔다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연애는 신성한 것이요, 귀중한 것이다. 조금도 추한 것이 아니다. 애인과 더불어 사랑을 하고 장장의 역사를 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긴긴 삶을 누려야 한다. 신성한 연애를 몰고, 애인과 더불어 한 생애를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 “연애는 결혼의 새벽이며, 결혼은 연애의 황혼”이라고 한 프랑스의 금언을 가슴에 새기며 한 생을 누려야 한다.

---

\* 연애는 상하를 평등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

## 오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역금언  
역금언

---

오만은 떠는 자는 실패의 시초이며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오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워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자리에 서 있다'고 자기만족의 그릇된 판단을 하여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인간은 평등한 위치에서 공존하는 생활영역이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릴 특권이 있다. 민주국가에서 생활하는 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모두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오만은 자신에게 눈물의 맛을 보여 주는 비극을 연출할 것이다. 교만한 여자의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분노를 사게 된다. 오만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국 현명한 자에게 무시 당하고 바보에게 조차도 조롱당할 것이다. 거만이나 오만은 권력으로부터 생겨 나온다. 이무 것도 속에 들은 것이 없으면서 걸치레만 번지르르하게 뽐내는 무리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회에는 비리가 날뛰고, 오만으로 짝 찬 사람들이 서로들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고 애국자인 양 뽐내며 작태작난(作態作亂)을 연출해대고 있다. 지난 날 교만에 짝 찬 모습으로 잘못을 저질러 놓은 과오 투성이의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자신의 파멸과 망신을 몰아 설 땅도 설 곳도 없는, 실로 가련한 참상을 지켜보면서 오만한 마음과 태도는 애초에 외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

\* 오만이 앞장서고 치욕이 뒤따른다는 내용이다.

---

## 의인의 마음은 정정당당하다



---

의인은 마음을 갈고 닦는 사람이다. 의는 나라를 밝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 의인의 마음은 두려울 것이 없다. 정정당당하기 때문이다. 정의는 미덕을 안고 모두에게 영광을 안겨 준다. 정의는 인간 사회의 밝은 질서이다. 정의는 자기의 할 일을 다하게 하고 남의 하는 일에 간섭하기를 꺼려한다. 정의의 힘은 하늘을 치솟는다. 그것은 신성한 미덕이요, 사람들의 참된 목표이다. 정의가 없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고 자유가 없는 곳에 정의 또한 있을 리 없다. 정의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면서 타는 태양이다. 정의는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참된 기준이 된다. 의(義)에 죽고, 의에 사는 참 삶의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 정의의 싸움에는 소가 곧잘 대를 이긴다는 내용이다.

---

##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다



---

개나 소, 돼지는 교육이 없이도 잘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교육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때문에 인간을 교육의 산물이라고 한다. 인생은 육체적으로 노력하면서, 정신적으로 배우면서 살아간다. 크든 작든 간에 노력만으로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와 총명도 배움이다. 지혜와 총명도 배움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

배움을 멀리 하면서 행동함은 바보를 만드는 길이다. 아무 생각 없이 배우기만 하면 몸을 망치는 법이다. 뜻이 있는 곳에 밝은 길이 열린다. 책 그 자체보다는 전문(見聞)이 더 중요하다. 지위보다는 경험이 앞서가야 으뜸가는 교육자를 만든다.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한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 못하지만, 교육없는 국가 역시 결국 망하고 만다. 앞을 내다보며 인재(人才)를 육성해야 한다. 교육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

\* 태어날 때부터 현명하고, 또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이다.

---

## 관찰은 문명의 눈을 뜨게 한다



視其所以 視其所由 / 察其所安 人焉廋哉

---

세심한 관찰은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관찰은 연구력을 몰고 온다. 연구는 발명을 낳는다. 발명은 과학의 슬기를 자랑한다.

과학의 슬기는 학문을 논한다. 학문은 사물을 관찰하는 데 그 출발이 있다.

관찰한다는 말은 \*오관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살핀다는 뜻이다. 예술가는 자연과 인생을 진실로 관찰하면서 표현을 한다. 오늘을 잘 살아가도록 관찰하고, 내일의 보람을 찾도록 관찰해야 한다.

---

\* 시기소이 시기소유 / 찰기소안 인언수재

사람을 관찰함에 있어 먼저 그 사람의 행동함을 보아야 하고 그 다음은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행동의 목적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됨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 五官 : 눈, 코, 귀, 혀, 피부

---

## 나쁜 말을 들었어도

책근담

聞惡 不可就惡 / 恐爲讒夫洩怒 /  
聞善 不可急親 / 恐引奸人進身

---

우리의 덕목은 선을 행하는 데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다. 선은 이성의 가치 판단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며 자신의 양심을 더욱 바르게 세워 준다. 모든 사람의 선행은 자신의 선행과 같다. 선행의 앞 뒤에는 악행이 보이고 따른다. 악행의 좌우에는 선행이 감싼다. 악행과 선행은 생각의 차이에서 따지고 온다. 그것은 하나의 참된 선의 가치관을 딛고 인간이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일의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출세길이 열린다면 친숙한 사람들 앞에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 모두가 권세욕, 명예욕, 금전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상대방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지 말고 무슨 일이든 조심조심 하면서 삼가해야 한다.

---

\* 문악 불가취오 / 공위참부설노 / 문선 불가급친 / 공인간인진신

나쁜 일, 나쁜 말을 들었어도 곧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고자질하는 사람이 자기의 분을 풀까 두렵기 때문이다. 좋은 일, 좋은 말을 들었어도 빨리 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간악한 사람의 출세길을 이끌어 줄까 두렵기 때문이다.

---

## 달 뜨면 오마든 입



郎去月出來 月出郎不來 / 相應君在處 山高月出遲

---

입을 못내 그리며 그리움에 지친 마음은 입 떠난 길이 더욱 더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산이 막혀 못 오시나? 물이 막혀 못 오시나?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맹세한 그 굳은 약속을 홀로 되새겨 본다. ‘행어나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오실까?’하고 입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그 마음! 어쩌면 그것은 삶의 새로운 힘이 될지도 모른다. 태어난 사람은 만들어야 할 장래가 있다. 거기에는 긴긴 기다림의 역사가 따른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서부터 임종할 때까지 하루하루 부딪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모두 그러하다. 무엇인가를 위한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다. 그렇다. ‘기다림’이란 말은 곧 희망을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

\* 낭거월출래 월출랑불래 / 상응군재처 산고월출지

달 뜨면 오마든 입, 달 떠도 안오시네. 우리 입 계신 곳은 첩첩이 산이 높아 저 하늘 비친 달조차 어디인가 하노라.

---

## 대장부의 목숨 바쳐 충성을

이순신

大丈夫生也 用則 / 以死效忠 / 不用則 田耕野足矣

---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성심이라고 하고 목숨을 다해 겨레를 보살피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나라와 겨레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의 어려운 고비를 만난 장군은 한산대첩에서 왜인들을 놀라게 했다. 한국 사람의 혼을 널리 퍼 알리었다.

오직 구국(救國)에의 일념뿐이었던 그의 정신은 오늘에도 겨레의 태양이 되어 빛나고 있다.

---

\* 대장부생야 용즉 / 이사효충 / 불용즉 전경야족의

장부가 세상에 나서 쓰일진데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칠 것이요, 만일 쓰이지 않으면 물러가 밭 가는 농부가 된다해도 또한 죽할 것이다.

---

## 물을 감상하려면 물결을



### 觀水有術 / 必觀其瀾

---

하늘에서 비가 오면 마른 도랑에 물이 고이고 그것은 다시 내를 이뤄 출렁인다. 내는 흘러 흘러 강줄기를 이룬다. 바람이 일면 물결은 바람을 타고 삶의 호흡인 양 소리를 전한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요, 존재하는 인식의 소리요, 영원함을 생성하는 힘찬 외침의 소리이다. 물은 생기를 몰고 온다. 사람의 기혈을 힘차게 돋구어 준다. 물은 행동함이 기운차고 흐름에 주저함이 없다. 용감하기가 비할 바 없다. 거치른 파도를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앞서고, 맑은 물을 보면 의욕에 찬 생기가 일어난다. 물은 푸르고, 맑고, 고요한가 하면 거칠고 사납다. 홍수가 나면 자연을 멋대로 파손하고 인간을 괴롭힌다. 물은 천심이다. 마실 수 있는 생수는 언제나 흐르게 하고 탁류의 오물은 씻어내야 한다. 선심은 치산치수(治山治水)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악행은 역천(逆天)이다. 노기에 차서 높게 이는 파도는 거센 파문을 몰고 온다. 물과 민중은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다. 항상 어떤 일의 감을 잡는데는 그 일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아래로 아래로만 흐르는 자신의 순리를 아는 물길처럼 우리도 순리를 배워 알고, 행해야 한다. 대세(大勢)는 천심이다. 청정토(淸淨土)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살맛 나는 내일을 맞았으면 한다.

---

\* 관수유술 / 필관기란

물은 그것을 감상하는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

---

## 반성은 마음의 밝은 거울

공 자

德之不修 學之不講 / 聞義不能徒 /  
不善不能改 / 是吾憂也

---

반성은 스스로를 살펴본다는 말이다. 스스로의 살핌은 또한 자신에게 대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즉 반성은 대중속에서의 자신을 바춰보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과 접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일을 보아주면서 진심을 가지고 대하였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 친구와 교제를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불신을 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는지 늘 조심스럽게 되새겨 보아야 한다. 하루 하루의 나를 돌아보며 이모저모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

---

\* 덕지불수 학지불강 / 문의불능도 / 불선불능개 / 시오우야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 학문을 게을리 하는 것, 정의를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 착하지 아니함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마음속에 근심을 몰고 온다.

---

## 상대가 방심할 때 공격한다



攻其無備 / 出其不意

---

적이 만반의 대비를 해 놓은 싸움은 좀처럼 승산이 없다. 상대방이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방심한 채 자신의 헛점을 보여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여 공격해야 한다. 자만심에 가득차 거만을 떨고 있거나 모든 일에 안심하고 있을 때 기회를 주지 않고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 유단은 대적이다. 상대의 계책을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

\* 공기무비 / 출기불의

상대의 무방비 상태를 강타하고, 상대방이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곳을 공격해야 한다.

---

##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공 자

朝聞道 / 夕死可矣

---

인간에게는 가야 할 길과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길은 천지의 비롯이다. 천지는 만물을 낳은 어머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는 만물의 근본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있다. 착한 사람의 보배이다. 모든 선비는 도(道)를 통한다. 수도(修道)하는 길에서 참는 도를 깨닫고, 수양하는 길에서 선도(禪道)를 배운다. 종교의 길에서 자비심과 사랑을 배운다. 사람에게 있어 어진 마음을 갈고 닦는 길이 참 삶의 길이다. 참 삶의 길은 참을 줄 아는 시련의 길을 밝힘에 있다. 사람이 가는 길은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은 사람을 인도하는 길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은 바로 깨닫는 길이 살 길이다. 살 길을 찾아 참 삶의 길을 깨달아야 한다.

---

\* 조문도 /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

## 천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은



性相近也 / 習相遠也

---

태어날 때부터의 성품을 천성이라고들 한다. 천성(天性)은 인간 본심의 덕행을 말한다. 천성은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한다. 성격은 세상(世上)의 대하(大河) 속에서 형성된다고 했다. 양반집 도령이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은 훌륭한 가풍을 자랑하면서 자질과 인격을 닦아왔기 때문이다. 천성은 곱디 곱다. 천성은 신의 계시이며, 인간은 예술의 계시이다. 신비한 자연의 아름다운 소질을 두고 천성은 인간 본심의 덕행을 말한다. 천성은 교육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다. 사람의 천성은 습관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가 그 본성은 지니고 있다. 습관은 물들기 쉽다. 고운 천성은 같고 닦아야 하고 나쁜 습관은 멀리 해야 한다.

---

\* 성상근야 / 습상원야

천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은 멀어진다.

---

## 똑바른 나무도 굽은 뿌리를

영남언

---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고, 많은 무리들은 자기 편에서 위대한 사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여기 공존의식(共存意識)이 필요하다. 말은 바 할 일을 다한 가운데 얼키고 설키고 설킨 인간관계는 굽은 뿌리와 같다. 복잡함 속에 질서가 있는 법이다. 나무와 뿌리의 이치를 따져 본다. 뿌리 근(根)은 나무 목(木)변에 그칠 간(艮) 자를 합한 글자이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역시 자신의 가지와 잎의 올바른 성장을 주관하며 굳세게 뿌리를 내려가는 나무와 같다. 뿌리 없는 나무는 잎을 피울 수 없다. 잘리운 뿌리에서 나무가 싱싱하게 성장할 수 없다. 가장 밑에 숨어있는 뿌리의 괴로움과 어둠속에서의 답답한 아픈 인고(忍苦)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흙 위에서 맑고 밝은 참 맛을 느끼게 하는 잎의 푸르름과 정성 담은 꽃의 아름다움을 실감나도록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빚어내는 평화가 깃든 달콤한 밀어에 귀를 기울이며 참 빛을 찾아야 한다.

---

\* 똑바른 나무가 굽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

## 돌로 맞고 숨으로 때린다



---

원(怨)과 한(恨)은 아는 사람끼리 만든다. 삶을 통하여 피해를 주면 불화가 생긴다. 불화는 상대적으로 원망을 몰고 온다. 원망은 미움을 깊이 산다. 미움은 원을 만들 수도 있다. 원수는 원과 한을 맺는다. 원과 한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 미움을 생기게 한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시인은 시인끼리 명예, 금력, 건강에 치명타를 당했을 때 원과 한을 품게 마련이다. 계급 사회에서, 생활 선상에서 원과 한은 깊이 기어든다.

우리 주변에는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조차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정의로움을 벗어나 비리(非理)가 난무한 가운데 원과 한은 싹트고 애정의 결핍과 한을 복수심으로 갚으려 함은 소인배나 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원과 한을 갚을 때는 덕을 가지고 해야한다.

차돌로 아프게 맞고 숨으로 팡팡 때려 갚는 대인(大人)이 되어야 한다.

---

\* 돌로 맞고 숨으로 때려 갚는다는 내용이다.

---

## 복종심은 성공의 길로



---

복종은 순종함을 말한다. 순종은 지배를 받는다. 지배는 명령에 따른다. 복종의 행위는 침묵을 지키는데 있다. 복종은 모든 일에 묵묵부답(默默不答) 함에 있다. 묵묵부답은 시운을 따라야 한다. 복종은 운을 따라 맹목적이어서야 한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복종해야 한다. 나를 위함보다는 남을 위하여 산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남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복종을 배워야 한다. 남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은 구울 역시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곧 남을 지배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공인(公人)의 복종은 절대적이다. 복종에는 인화(人和)가 따른다. 복종할 줄을 아는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보다 철학적인 가치관의 깊이가 더 깊은 사람이다. 그것은 복종의 순리를 따르는 영웅심의 발로이다. 영웅은 질서를 지키며 성공의 길로 힘을 온다.

---

\* 복종은 때로는 가장 좋은 성공의 길이다 라는 내용이다.

---

## 술은 근심을 몰아 낸다



---

술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술만 입으로 들어가면 술술 지체가 생긴다. 적당한 양의 술은 생활의 질서와 마음의 평화를 남긴다. 술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랑은 주고 받는 대좌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 마주 앉아 음식을 들며 분위기에 도취하여 밀어를 토한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하고 마음을 털어놓게 한다.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물질이다. 술은 힘을 솟게하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 공포를 앓아가고, 용기를 심어주는 생명체이다. 술과 같이 좋은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하지만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면 술의 의미가 없어진다. 적당한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은 인체의 보약이다. 술은 입으로 들고, 사랑은 눈으로 보며, 즐거움에 살맛 나는 나날을 맞아 노래가락을 타고 손발을 흔들며 댄다. 온갖 설움과 괴로움은 간 곳 없이 사라진다. 술값을 아끼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살림 또한 보탬 줄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술을 마시고 사랑에 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술을 마실때는 갈증을 면하기 위하여 세째잔을 들고 발광하기 위하여 네째 잔을 들고 나중에는 “서로를 위하여”, 소리치며 춤을 춘다. 술은 알맞게 마시면 보약이 되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독약이 된다. 폭음은 악마가 되어 생명을 재촉한다. 진심을 털어 놓으면서 향기있는 술을 마시고 사랑이 가득히 담긴 미담을 엮어야 한다.

---

\* 술이 들어가면 근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내용이다.

---

##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다

여기엔  
여기엔

---

참되고 착한, 아름다운 여인상은 평화를 몰고 온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다. 어린이의 피난처요, 호소처이다. 때로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노래짜이 되기도 한다. 베푸는 어머니가 되어 사랑을 주기도 하고, 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어머니는 밝은 하늘에 날랜 용기를, 푸른 땅에 굳센 평화를 안고 온다. 또한 효자 효부상을 다지며 끈고 바른 양심의 답을 가슴에 세워 준다. 태양이 빛을 발하는 곳은 언제나 따뜻한 것처럼 인자한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어린이가 온유한 가운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어머니의 자장가는 어린이의 가슴을 평안하게 한다. 그 누가 말했는가? 여자는 약하다고 …….

당치도 않은 말이다. 어머니의 힘은 천하장사보다도 더 강하다.

---

\*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내용이다.

---

## 일에는 순서가 있다

영근어  
영근어

---

태어난 사람은 만들어야 할 장래가 있다. 때문에 차례 차례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가장 높은 곳을 오르려면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소년 소녀시절부터 피땀어린 체험을 하면서 하나 하나 배워야 한다. 청년, 장년, 노년기를 배워야 한다. 공중의 새도 깃을 쳐야 날으는 법이다.

곱게 자라나는 미성년이 급하다 하여 어른 시늬를 내면서 음양철학(陰陽哲學)을 논하며 이성 교제의 도색(挑色)에 빠지면 큰 일이다. 사람은 나서 교육을 바탕으로 크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며 성공의 길로 가는 법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그때 그때 맞는 옳고 바른 행동을 하며 일생을 살아야 한다.

---

\* 건기 전에 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

## 자기 척도로 남을 판단한다

영광인

---

판단은 일의 옳고 그름을 밝힘이다. 판단은 공정해야 한다. 사리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공평은 일찌기 순자(筍子)가 말한 ‘시시비비(是是非非)’을 따져 가려낸다. 시시비비는 정확한 관찰과 객관적인 생각을 요구한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비춰보며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 여기 추리하는 능력은 누구나 나뉘지 않고 갖고 있지만, 판단하는 능력은 지적인 활용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여기 남성과 여성간의 오가는 사랑의 판단은 다르다. 남성은 증거를 위주로 삼는 반면, 여성은 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사랑은 피차간에 오가는 정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의견이나 판단은 정확해야 한다. 판단이 흐려지면 확신을 잃는다. 확신을 잃게 되면 가치관이 흔들린다. 삶을 통한 판단은 삶에 있어서 중대한 시련의 한 장이다.

---

\*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척도로 해서 남을 판단한다.

---

## 처음이 좋아야 끝이 좋다

영문

---

“끝이 좋은 것은 다 좋다”고 한 셰익스피어의 말도 있다. 마지막까지 달리는 주자 앞에 최후의 승리는 주어진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에 도중하차는 있을 수가 없다. 끝맺음을 처음 시작과 같이 신중히 하면 패하는 일이 없다. 누구든지 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 서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겨웁고 험한 것같이 느껴지고, 남의 일은 쉽고 좋은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차차 자신의 일에 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 세상사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자기가 행한대로 결과는 나타낸다. 봄에 씨앗을 뿌려 한여름 내내 정성껏 돌봤으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듯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찾아와 고운 마음을 다져줄 것이다.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결과를 맞아 악한 마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동심을 지켜가며 대망의 꿈을 안고 학문에 힘써 왔으면 성공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 못하고 학문을 외면한 채 허송세월로 세상을 살아 간다면 무식한 사람이 되어 실패만을 몰고 올 것은 뻔한 결과이다. 세상에 태어나 일을 함에 있어서 등에는 피와 땀을 흘리고 앞가슴에서는 피눈물을 닦아 온 정력을 쏟으며 참된 삶을 누린다면 반드시 만복(萬福)이 안겨올 것이다. 보람찬 일은 자신이 한 대로 좋은 결과가 있어 행복을 안겨줄 것이고 죄는 지은대로 나쁜

---

응보가 있어서 벌을 받을 것이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생활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의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완성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져 본다.

---

\* 심은대로 거둔다는 내용이다.

---

##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평안

법구경

勝則生怨 負則自鄙 / 去勝負心 無靜自安

---

삶은 생존경쟁이라는 치열한 싸움이다. 싸움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얽힌 아픔이다. 강자와 강자끼리, 약자와 약자끼리의 싸움은 눈총을 산다. 강자와 약자와의 싸움은 불만만을 안고 온다. 철학을 바탕으로 동정에 얽힌 사랑 싸움은 불꽃을 튀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싸움은 참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다. 참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에 얽힌 싸움이다. 싸움의 단위는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도 없다.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싸움은 곧잘 시작된다. 가정과 사회,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싸움은 지구촌에서 몇 대로 활개를 치며 때로는 전쟁이라는 불씨도 낳는다. 전쟁은 상대에 따라서 지고 이기는 문제가 대두된다. 하지만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원과 한은 따르게 마련이다. 이 모든 싸움은 양자간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해가 얽힌 싸움이다. 싸움을 시작하기 이전에 대의(大義)를 위하여 서로가 화합을 다지며 사랑으로 서로의 감정을 녹여야 한다.

---

\* 승즉생원 부족자비 / 거승부심 무정자안

승리는 원한을 가져온다. 패한 사람은 괴로움으로 인해 늙는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모든 일에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

## 남에게 수고와 괴로움을

법구경

施勞於人 而欲望祐 / 殃咎歸身 自遭廣怨

---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를 만나서 손해보는 일이다. 그것은 마음에 상심을 안겨준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모두를 버린다는 것은 상대를 원망한다는 뜻이다. 원망은 상대와 큰 벽을 두고 담을 쌓는다는 말이다. 자기의 영달(榮達)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입혀서도, 원망을 사게 해서도 안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은 상대에게 돌리고 괴로움은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잘못된 일 또한 자신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에게 가해자가 되지 말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재앙을 물리치는 밝은 삶을 누려야 한다.

---

\* 시로어인 이육망우 / 양구귀신 자조광원

남에게 수고와 괴로움을 끼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공을 얻으려 하면 안된다. 그 재앙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원망과 미움은 끝이 없는 것이다.

---

## 단결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주 의

二人同心 其利斷金 / 同心之言 其臭如蘭

---

약한 사람끼리 모였을지라도 단결은 강한 힘을 부여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다. 단결은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다수의 힘인 단결은 특히 집단 체제에서의 개개인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힘이다. 때문에 단결은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서 승리를 이끌고, 한 가정에서 부부를 비롯한 자식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사랑으로 단결하면 행복을 낳는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만사는 선심을 민심으로 풀고, 천심을 다지면서 단결력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하나로 단결된 입을 모으고 사지(四肢)의 힘을 정진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나 이전에 우리를,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단결로 이겨넘겨야 한다.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동방예의의 나라를 손꼽으며 단결된 힘을 자랑삼아 온 누리에 펴야 한다.

---

\*이인동심 기리단금 / 동심지언 기취여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의 고운 말은 그 향기가 난초의 그것과 같다.

---

##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교제

공 자

君子和而不同 / 小人同而不和

---

교제는 우정을 낳는다. 우정은 생활의 동반자이다. 생활의 동반자는 사회의 친구다. 친구는 언제나 이웃 가까이에 있다. 이웃은 사랑의 샘이다. 사랑의 샘은 교제를 통하여 넘쳐흐른다. 교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참된 교제를! 품성이 좋은 사람과 교제를! 인정을 바탕으로 한 만남의 교제를!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교제를!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교제가 최상의 만남이다. 상대방을 관찰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 자신의 일거수(一舉手)·일투족(一投足)을 살피면 된다. 이익만을 추구한다거나, 상대를 이용할 마음으로 교제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를 것이다. 또한 권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사귀면 그 만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금력의 쓰임으로 누군가를 사귄다면 그 또한 참다운 만남이 될 수 없다. 모든 만남은 명예로와야 하고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서로의 친교는 더욱 두터워지고 그런 만남은 오래 지속된다. 한 삶의 승패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몰고가야 한다.

---

\* 군자화이부동 / 소인동이불화

군자는 사람을 사귄데 있어서 화평할 수 있되 함께 하기를 아니 하고 소인은 함께 할 수 있되 화평하지 못하다.

---

## 사랑으로 덕을 기른다

### 체근담

不責人小過 / 不發人陰私 / 不念人舊惡 /  
三者可以養德 / 亦可以遠害

---

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가 있다.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 감정은 삶을 원활하게 하는 향약이다. 여기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오가야 한다. 사랑은 서로간의 희생이다. 타인의 헛점과 약점을 노리면서 불화불목(不和不睦)의 험담을 일삼는다면 화합은 서로의 사랑을 외면한 채 멀리 가고 말 것이다.

---

\* 불책인소과 / 불발인음사 / 불염인구악 / 삼자가이양덕 / 역가이원해

남의 조그마한 허물도 꾸짖지 말아야 한다. 남의 비밀을 웅졸하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남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덕을 길러주고 또한 해로움을 멀리 해 줄 것이다.

---

## 상대방의 군대를 굴복

순 자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 不戰而屈人之兵 / 善之善者也

---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고, 강대국은 약소국가를 돕는 체 하면서 조롱한다. 하지만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은 우방의 편으로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든 한 나라 안에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있다. 세상의 어지러움은 그 군대를 주축으로 한 전쟁에 의해서 평정되며 또 그 전쟁에서 이긴자에 의해서 세상은 다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여기 총 칼을 맞대고 싸우지 아니하고 의기찬 기백으로 심리전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전쟁에도 뚜렷한 철학관이 있어야 한다. 사생결판을 내는 순간에도 어진 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도주의가 앞장서야 한다.

---

\*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 부전이굴인지병 / 선지선자야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은 착한 군대가 아니다. 싸우지 아니하고도 상대방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착한 군대다.

---

## 어리석음은 병중의 병



愚者自稱愚 / 常知善黠慧 / 愚人自稱智 / 是謂愚中甚

---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은 병중의 큰 병으로 난치병(難治病)이다. 슬기로운 사람도, 어진 사람도 교양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에는 심도의 차이가 있다. 선행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어리석음과 슬기로우움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사람 또한 슬기로운 사람은 못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지에서 오는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움은 용감하게 물리쳐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큰 힘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 잘난 체 하지 않는 정중한 몸가짐으로 큰 뜻을 세워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

---

\* 우자자칭우 / 상지선할혜 / 우인자칭지 / 시위우중심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미 슬기로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야말로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

## 엎지러진 물은 담지 못한다

이태백

雨落不上天 / 覆水難再收

---

물은 우리들 인생에게 삶의 많은 순리를 가르쳐 준다. 물은 한 길이며, 외통수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한 번 행동한 것은 번복할 수가 없다. 때문에 행동은 바르게 해야 하며 질서는 질서답게 유지시켜야 한다. 물은 대지의 생명이다. 물은 거짓이 없다. 물은 자연의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줄 뿐 결코 헤치는 일이 없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미덕은 선의 줄기를 타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물은 순리에 따라 낮은 곳으로만 흘러간다.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물이 천하의 단단한 바위를 향하여 용맹을 떨치며 돌진한다. 형체도 없는 기운은 마침내 바위를 뚫는 힘이 된다. 때문에 물을 쓰는 마음은 진실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물을 보는 마음은 천도(天道)의 순리 길을 보는 눈이다. 실수없는 삶을 살고 후회없는 한 생애를 마쳐야 한다.

---

\* 우락불상천 / 복수난재수

떨어진 빗방울은 하늘에 못오르고, 엎지른 물은 다시 주어 담지 못한다.

---

## 음악은 승리의 환성이다



興於詩 立於禮 / 成於樂

---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다. 가슴 속 저 밑바닥에서 마음을 뚫고 힘차게 일어나는 그 무엇이 음악의 근본이다. 음악은 조화 예술이다. 소리로, 곡으로, 악기로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한다. 심금을 울리는 음악은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정화시킨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신비의 세계를 깊게 관찰할 수 있다. 음악은 그 천성이 부드럽다. 음악은 승리의 환성이다. 듣는 이의 공감대를 이루는 음악은 그 무엇보다도 다정하여 추억의 실마리를 쫓아 회상의 창가를 두들기게 한다. 만인의 공통어인 음악은 나라사랑 길을 곱게 밝혀 서로 열싸안고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음악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필수적인 정신 청량제이다.

---

\* 흥어시 입어례 / 성어락

시로써 흥을 돋우며, 예로써 끈고 바르게 서고, 즐거운 음악으로써 일을 완성한다.

---

## 탐욕과 탐심은 버려야 한다

법구경

捨患離慢 避諸愛貪 / 不著名色 無爲滅苦

---

따뜻한 가슴은 편안하다. 편안한 몸에는 어진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어진 마음에는 고운 심성이 호흡한다. 고운 심성은 아름다움의 눈을 뜨게 한다. 아름다움을 찾는 눈에는 파아란 하늘이 보이고, 푸른 초원이 보인다. 청운의 꿈을 안은 부끄러움 없는 몸가짐엔 깨끗한 심성이 성정한다.

낙천적으로 인생을 보면서 자연이 가르쳐주는 참된 진실을 배워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욕망과 사심을 버리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면서 편안한 생활의 나날을 맞아야 한다. 애욕도 물욕도 탐욕도 노여움도 괴로움도 아픔도 모두를 버려야 한다.

---

\* 사환이만 피제애탐 / 부저명색 무위멸고

성냄을 버리고 거만을 떨지 말아야 한다. 모든 애욕과 탐심은 버려야 한다.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한 마음과 편안한 자세가 되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

## 갈 길, 지키길, 살길



誰能不由予 / 向莫由斯道

---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과 지켜야 할 길이 있다. 가야 할 길은 앞을 보고 가야 하고, 지켜야 할 길은 뒤를 보고 지켜야 한다. 또한 지금 걸어가는 길은 밝은 눈으로 바로 보아야 하고 지키길은 참 마음을 통해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밝은 눈으로 본 길은 행동으로 옮겨야 할, 지켜야 할 길이다. 참 마음의 길은 선심을 다지게 하고, 바른 행동은 인생을 참 삶의 길로 인도한다. 길은 늘 우리곁에,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다.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참 길을 먼 곳에서 구하지 말고 항상 주위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깨달았으면 주저하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 또한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아야 한다. 바른 길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여기 바른 길을 건다보면 거기에서 만나는 좋은 벗이 있다. 사랑으로 가는 길에는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 불행한 길은 버림받은 사람의 길이다. 사람은 평생동안 사랑이 깃든 길로, 참 삶의 길로 조심 조심 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가야 할 길, 지켜야 할 길, 살아야 할 길을 참되게 한 몸에만 있어야 한다.

---

\* 수능불유어 / 향막유사도

방에서는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람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밟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

제3장

고  
쳐  
서  
펴  
나  
는  
서  
라  
는  
나



---

## 개나리 (golden bell)

\* 꽃말은 '희망'

우리 나라에서 봄꽃으로 가장 흔한 꽃이라 하면 개나리와 진달래일 것이다. 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또는 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나리를 모르는 우리 나라 사람은 없으리라.

개나리는 우리 나라의 특산으로서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으며, 손쉽게 가꿀 수 있으므로 때로는 천대 받기도 한다. 길가나 언덕빼기, 높은 담이 없는 가난한 외진 동네의 울타리에도, 심지어는 뒷간 곁에도 노랗게 왕성하니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맑고도 화기가 감도는 아늑한 빛깔의 제전이라 하겠다. 손쉽게 대 할 수 있고, 우리와 너무도 친숙한 꽃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없이 그 꽃에 묻혀 봄날의 화창함을 만끽하는 것이다.

개나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지가 위로 뻗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가지가 옆으로 늘어지는 것이 있다. 위로 뻗는 것은 정원의 장식수로 심으면 좋고, 늘어진 것은 울타리용으로 적격이다.

울타리용으로 심었을 때는 가지치기를 하여 모양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가지치기할 때는 지난 해 자란 가지에서 꽃이 핀다는 것을 숙지 하고 꽃피는 가지를 남겨 두어야만 봄에 황금빛 꽃을 볼 수 있다.

개나리에 얽힌 이야기에는 이런 것이 있다.

옛날 인도에 새라면 깜빡 죽는 공주가 있었다. 귀엽고 예쁜 새라면 무조건 사들여서 궁전 안은 온통 새들로 채웠으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그녀는 언제나 행복감에 충만되어 있었다. 그런 관계로 공주에게 아부하고 싶은 자들은 기를 쓰고 예쁜 새를 찾아 길렀다. 대신들은 나라는 돌보려들지 않고 그저 예쁜 새의 사육에만 열을 올렸다. 나라는 한 마디로 엉망이었다. 백성은 굶주려도 새는 호강하는 판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주에겐 비위 둔 새장 한 개가 있었다. 공주는 언제나 그 새장보다 예쁜 새를 찾지 못해 한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남겨 둔 새장에 들어갈 만한 외모를 갖춘 새를 갖게 된다면 궁전 안의 모든 새를 모두 놓아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

그 소문을 듣고 한 늙은이가 공주를 찾아왔다. 그 늙은이의 손에 쥐어진 새를 보는 순간 공주는 그 새가 마음에 꼭 들었다. 공주는 약속대로 궁전 안의 모든 새를 날려 보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새는 점점 외모가 변해갔으며, 목소리마저도 달라졌다. 공주는 생각했다.

「목욕을 시키면 아마 깨끗해질걸. 늙은이가 처음 새를 건네 줬을 때처럼 예쁘고 보기 좋을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던 그 새가 목욕을 시키자 흉칙한 까마귀였던 것이다. 까마귀에 물건을 칠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공주는 그만 화병으로 앓다가 죽었다.

까마귀에게 빼앗긴 새장이 못내 아까와 성질이 치민 공주의 님은 가지를 뺀어 금빛 장식을 붙인 새장과 똑같은 개나리 꽃으로 되었다.

우리는 늘상 봄이면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꽃이기에 개나리는 그리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 쉽상이나, 그 선명하고 밝은 노란빛으로 봄의 혼풍을 안겨 줄 듯한 친숙한 느낌이 가는 꽃임에는 틀림이 없다.

## 국화 (chrysanthemum)

\* 꽃말은 흰꽃 '고결' / 빨간꽃 '고상' / 노란꽃 '시련'

가을이면 생각나는 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백이면 백 국화라 말할 것이다. 국화는 가을꽃의 대명사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내려 있다. 어느 꽃 가게에서나, 아니 들판에서나 양지바른 담장에서나, 도시의 이발소 앞에서나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꽃 중의 하나가 국화인 것이다.

국화는 중국 이름을 그대로 따 온 것이며, 현재 재배되는 국화는 들에 핀 들국화를 교배, 개량한 것이다. 국화를 중국에서는 처음에 국(鞠)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화는 아름다운 만큼 가꾸기도 까다롭다. 통상적으로 서리에 강하나 추위에 약하다는 것이 국화의 성질이다. 뿌리나누기로 모종을 하여 양지바른 곳에서 월동을 시켜야만 한다. 봄에는 다시 새순을 따서 상수를 하

---

고 뿌리가 내리면 갈아 심어 주도록 해야 한다. 한 송이 국화 꽃을 가꾸는 데에는 생각보다 까다롭게 잔손이 많이 간다.

국화철이 되면 우리들이 곤잘 되뇌이는 시가 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

역시 가을 국화는 사색의 꽃임에 틀림없다.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소식이 끊긴 옛 친구를 문득 생각나게 한다. 국화 곁에 서 있자면 잃었던 전설까지도 우리의 머리를 혼란케 한다.

술을 좋아해 “편마다 술이 있다”하고 소명태자(昭明太子)가 평했던 시인, 벼슬 자리를 버티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부르고 전원에 숨을 만큼 자연을 좋아한 도연명(陶淵明)도 국화에 대해 이런 시귀를 남겼다.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동쪽 울 밑에 우두커니 남산을 쳐다본다.)

꽃꽂하고 고고한 한 송이의 국화꽃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 무상을 느꼈던 모양이다.

국화가 처음으로 꽃의 관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주나라의 굴원(屈原)이 국화를 성인 군자에 비유한 데서 비롯됐으며, 꽃잎을 먹는다고 기록한 것이 처음이었다.

재배 중 국화가 우리 나라에 들어 온 역사를 보면 국화의 가품(佳品)이 일찍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원나라로부터 가져 온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송대 양국 명가(宋大養菊名家)인 범성대(范成大)와 유몽(劉蒙)의 국보(菊譜)를 보면, 원 나라의 가품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신라국(新羅菊)과 고려국(高麗菊)이 한토(漢土)에 건너 가서 애식(愛植)하게 되었다 하니, 충선왕이 가져 온 것은 우리 나라것이 더 개량되어서 되돌아온 셈이

---

라 하겠다. 또 국경(菊經)에는 옛날 백제 시대에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의 5색 국종을 일본에 가져 간 것이 적혀 있으니, 이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 국화를 가꾼지도 아주 아득한 옛날부터임을 알 수 있다.

국화는 꽃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는 움싹을 먹고, 여름에는 잎을 먹고, 가을에는 꽃을 먹고, 겨울에는 뿌리를 먹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다. 옛날에는 봄에 돌아난 어린 싹을 나물로 먹었고, 여름에는 잎을 따서 기름에 튀겨 먹었고, 가을에는 꽃을 따서 화전을 만들어 먹었고, 겨울에는 술을 빚어 마셨는데, 그 술을 '불로장생주'라 하였다 한다.

국화에 얽힌 전설 중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중국 남양의 여현에 있던 감곡(甘谷)이란 강은 그 상류에 국화가 많이 피어 있었는데, 그 꽃에서 떨어지는 이슬이 강물에 섞여 하류로 내려 왔기 때문에,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장수했다고 한다. 또 오래 산 것으로 유명한 선인(仙人) 팽조(彭祖)는 국화가 만발한 연못가에서 항상 국화 이슬을 마셔서 고령을 누렸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9월 9일을 중앙절(重陽節)로 정하고 국화주를 마셔 재액(災厄)을 떨쳐 버리고 장수를 비는 풍습도 남아 있다. 중앙절에 국화주를 마시는 데도 그만한 사유가 있다.

후한(後漢) 무렵에 여남 지방의 항경(恒景)이라는 사람이 그의 스승인 선인 비장방(費長房)에게서 이런 충고를 받았다.

「9월 9일날 액운이 있을진데, 그를 면하려거든 주머니를 만들어 산수유의 열매를 그곳에 가득 넣고,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면 그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리라.」

항경은 스승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해가 지고 주위가 어슴프레해 지자 마을에 당도한 항경은 가축이 몰살한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스승은 그에게 네 대신 화를 입은 것이라 하며 그를 위로했다 한다.

옛 사람들은 국화를 가우(佳友)로 견주었으며 높다랗게 달린 꽃송이는 천극(天極)의 모습이고, 황금빛 꽃은 땅의 기운이며, 일찍 심고 늦게 피는 것은 군자(君子)의 덕이라 찬탄했다.

---

## 나팔꽃 (morning glory)

### \* 꽃말은 '속절없는 사랑'

여름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창백할 정도로 상기된 나팔꽃이 이슬을 머금은 채 창 밖에서 방긋 웃는다.

창가에 매어 놓은 줄을 타고 영롱한 꽃을 피우는 꽃, 잠꾸러기를 비웃으며 싱그러운 아침을 알리는 꽃이 나팔꽃이다. 나사못처럼 고리져 말려 있는 꽃봉오리는 보면 볼수록 상큼한 아침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나팔꽃을 보고 있자면 밤새도록 기승을 부리던 어둠을 일시에 잊게 해 주는 마력이라도 갖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그 마력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루 중 꽃이 피어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피었다가는 미처 반 나절이 못 가서 시들어 버리고는 한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이기는 하나 짧은 수명 때문일까, 우리의 뇌리 속에 오래도록 남는 꽃은 아닌 듯싶다.

정절을 지키려는 미망인이나, 수절하는 청성 과부들은 나팔꽃의 바람둥이적 기질이 눈에 거슬려 심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팔꽃의 바람둥이적 기질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분명 빨간 꽃씨를 받아 뿌렸는데, 싹이 트고 매어 놓은 줄을 타고 위로 치솟고, 꽃이 필라치면 기대했던 탐스러운 붉은 꽃은 피지않고 엉뚱한 이 씨는 그만 파란꽃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과도 걸맞게 꽃말조차도 '속절없는 사랑'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지조가 있다면 꼭 왼쪽으로 감겨 올라가는 신통한 절개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꽃. 그러나 언제나 음료와 같은 신선함을 주는 꽃. 비교한다면 옛 친구와도 같이 다정함을 느끼게 하는 꽃이라 해도 무리는 없는 듯싶다.

## 달맞이꽃 (Evening primrose)

### \* 꽃말은 '기다림'

여름 날, 서쪽 하늘을 밝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이 잿빛으로 변할라치면

---

철독길이나 제방으로 바람 쐬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 둘 집을 향해 발길을 옮긴다.

그때 으스스한 달빛을 받은 연한 레몬 빛의 달맞이꽃이 벌어지며 그들의 발길을 멈칫하게 한다. 시름에 겨운 그들의 심신을 어루만져 주기나 하는 듯 그 꽃은 은은한 향기를 여름 밤 바람에 싣는다. 참으로 인상적이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만한 사연이 있는 까닭인지 달맞이꽃은 이름 그대로 여느 꽃과는 달리 세상이 고요 속으로 빠져드는 시각에 꽃을 피운다. 그리고는 시름없이 시들어 버리는 가련하다면 가련한 꽃이다.

이처럼 저녁에 피었다 아침에 시드는 이 꽃은, 수면 운동을 하는 꽃으로 온도와는 관계없이 민들레나 나팔꽃 같은 꽃처럼 광선과 관계가 깊다. 특히 레몬 빛 광선에 영향을 입기 때문에 달맞이꽃은 달 없는 밤에도 핀다. 이 꽃을 ‘달맞이꽃’이라 하는 이유도, “달을 애처롭게 기다리는 듯이 밤에 만 핀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옛날 그리이스의 어느 호숫가에 별을 사랑하는 요정들 틈에 달을 사랑 하는 요정이 살고 있었다.

별을 사랑하는 요정들은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호수를 들여다 보며 별자리 전설을 이야기하는 데에 행복을 느꼈다. 한 요정이,

「은하수 한 가운데에 백조가 날개를 핀 듯하죠,」

하고 말하면, 다른 요정이 그 말을 받듯이

「큰 별이 직녀성이구요, 다른 쪽이 견우성이라잖아요.」

「어쩔 저렇게도 안타깝게 느껴지지……」

하고 별을 사랑하는 요정들의 이야기는 밤마다 계속됐고, 그때마다 요정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달을 사랑한 요정은 자신만 소외되는 것 같아 우울했으며, 한편으로는 별을 사랑하는 요정들이 꿀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웠다. 그래서 별을 사랑하는 요정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무심코 중얼거렸다.

「별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별이 다 무어람…… 그렇게 되면 달이 날마다 뜰 수 있을텐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요정의 소리를 들은 별을 사랑하는 요정들은,

---

찾김에 제우스 신에게 고자질했다. 제우스 신은 노해 달을 사랑한 요정을 달도 별도 없는 곳으로 쫓아 보냈다.

달의 신 아데미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제우스 신 몰래 아데미스는 그 요정을 찾아 별판을 헤맸다. 제우스 신은 이 사실을 알고 아데미스가 가는 곳마다 앞질러 가서 구름과 비로써 이를 방해했다.

그동안 달을 사랑하던 요정은 호숫가에서 아데미스를 기다리다지쳐 여위어 죽고 말았다.

아데미스는 요정을 안고 울다가 눈물이 말라 더는 울 수 없게 되자 요정을 언덕 위에 고히 묻었다.

그후 제우스 신도 자신의 지나친 소행을 미안하게 여겨 죽은 요정의 넋을 달맞이꽃으로 만들어 달을 따라 꽃피게 하니, 달맞이꽃은 달이 없는 밤에도, 행여 달이 나올까 기다리며 홀로 외로이 꽃핀다는 슬픈 이야기이다.

밤의 이미지가 그렇듯이 달맞이꽃에 얽힌 사연은 구슬프고 눈물겹다.

## 동백꽃 (Common Camellia Japanice)

### \* 꽃말은 '사랑'

마그릿트는 한 달 중 25일간은 흰 동백꽃을 가슴에 꽃았으며, 나머지 5일 간은 붉은 동백꽃을 가슴에 꽃고 사교계에 나타난 창녀였지만, 양가의 아들 알멘의 순진한 애정에 의해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급기야 그들은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생활에 몰입하고 만다.

그러나 그들은 관계가 알멘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자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오해 해 둘의 사이는 갈라지고 만다.

뒤늦게 그녀의 진실을 안 알멘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후였다.

이 작은 테마의 소설을 기초로 베르디의 달콤한 감상과 감미로운 시율의 가극(歌劇) '춘희(椿姬)'가 탄생한다. 마그릿트는 비오레타로, 알멘은 알프레트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동백이 차지한 비중의 크고 작음은 헤아릴 수는

---

없지만, 여하튼 동백은 여성과 인연 깊은 인상적인 꽃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나라에 전해 내려 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옛날 황해도 대청도가 가까운 동백꽃 피는 섬에서 온 청년이 이 섬의 처녀와 결혼하여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고향에 급한 볼 일이 있어 길을 떠났다. 아내는 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고향에 가게 되면 남편의 고향에서 핀다는 동백꽃의 씨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후, 고향에 간 남편이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아내는 기다리다 지쳐 병석에 눕고 말았다. 뒤늦게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난 후였다.

남편은 아내의 무덤에 엎드려 구슬피 울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아내가 부탁한 동백씨가 흘러 나와 거기에서 자란 동백이 이 섬에 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동백꽃이 추운 한 겨울에도 아랑곳없이 꽃피는 모습은 마치 생활력이 강한 섬 나라의 기질을 닮은 듯 미더운 면이 있다. 두텁고 윤기 흐르는 짙은 녹색의 잎에 싸인 붉은 빛의 아름다운 꽃이야말로 동백꽃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다.

정열적인 붉은 빛의 꽃송이와 질푸른 잎의 조화라고나 할까. 그런가하면 지체없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더라도 꽃다운 일면이 있어 미련을 갖지 않는 섬 나라 아가씨의 순정을 엿보는 듯하다.

여성에게 있어 동백의 매력이라 한다면 그녀들의 정갈한 머릿매를 매만져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처럼 헤어 크림이 발달한 시대에 있어 동백 기름은 잊혀져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래도록 추억속에 남아 있는 이름이다.

동백꽃이 유럽에 건너 간 것은 17세기경의 일로 오스트리아의 승녀가 이 꽃을 서양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때문에 학명도 그를 기념하여 카멜리아(Camellia)라고 붙였다 한다. 종명인 자판니스(Japanice)는 일본이 원산지라 오인되어 붙여진 것이다.

일본에도 동백꽃이 있기는 했으나 3백 여 년 전 어느 일본 대신이 한국 땅에서 동백을 가져가 일본 전역에 퍼뜨렸다는 설이 문헌에 나타나 있다.

---

꽃말이 ‘사랑’인 이 꽃은 꽃말과는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어느 성질이 난폭한 왕이 있었는데, 그에겐 왕위를 물려 줄 왕자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왕은 자기 동생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켜야만 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동생은 조그만 성의 성주였는데, 그는 어질고 현명했다. 물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듯이 그의 아들도 마음씨 곱고 명석했다.

왕은 왕위 계승에 불만이 많아 기회가 닿으면 동생의 아들을 살해하려 마음 먹었다. 아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성주는 두 명의 양자를 맞아들이고 아들은 몰래 숨졌다.

궁에 두 아들을 보고 싶으니 궁 안으로 보내라는 전갈이 왔다.

성주는 가짜 아들을 보냈다. 그 후 두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왕위 계승자를 없앤 왕은 동생에게 트집잡는 일을 중지했으며, 덕분에 성주는 평온을 되찾았다. 숨겨 둔 아들은 뛰어난 재주와 명석한 두뇌로 왕이 될 제목으로 꽃꽂이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왕은 동생의 행실을 이욕고 눈치챘고, 곧 진짜 두 아들과 성주를 잡아들였다.

왕은 자신을 기만했다고 노발 대발한 나머지, 「두 놈이 가짜 왕위 계승자라고 선언하라.」하고 성주를 몰아 세웠다.

성주는 더 이상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왕의 말에 수궁해 버렸다.

그러자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짜 왕자를 성주의 손으로 직접 죽이라고 명령했다.

성주는 자포 자기한 듯 칼을 들어 사랑하는 아들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두 아들은 새로 변해 날아갔고, 그 날개 치는 소리는 우리와 같았다.

궁전은 삼시간에 무너져 내렸고, 성주는 커다란 꽃나무가 되어 뿌리를 뻗었다. 그때의 그 꽃나무가 동백꽃나무였으며, 두 마리의 새는 동백새라 전해진다.

---

## 도라지 (Balloon Flower)

\* 꽃말은 '상냥한 미소'

도라지꽃이 피면 우리는 가을을 느낀다. 마치 종 모양의 꽃은 말끔하고 파란색이 감도는 보라색도 투명하게 보인다. 끝없이 파란 우리의 가을 하늘색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꽃이라 할 수 있다. 가을철 한참 식욕이 고개를 들라치면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도라지 나물이다. 그 산뜻하면서도 독특한 향기는 우리들만이 느낄 수 있는 미각인 것이다. 아작아작 씹히는 소리만 들어도 금방 군침이 입 안을 맴돌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가을의 별미인 것이다.

도라지는 통상 보라빛이다. 개중에는 흰 꽃이 피는 것도 있다. 흰칠한 키에 말끔하면서도 우아한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모자를 쓰고 언덕위에서 있는 소녀 같은 청순함을 느끼게 한다.

도라지는 우리 나라 산과 들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다면 흔한 꽃이다. 별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스스럼없이 대할 수 있다.

망거미가 지며 서쪽 하늘에 황혼이 깃들면 으스름 속에서 아련히 떠오르는 도라지꽃의 모습이야말로 잊었던 정서를 되찾게 해 주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겠다.

## 물망초 (Forget me not)

\*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너무도 애처롭게 느껴지는 이름이다. 물망초, 이 꽃에 얽힌 애절한 전설은 꽃보다도 더욱 유명하다. 이 애절한 전설은 세계 곳곳에 퍼져 때로는 글로서, 때로는 노래로서 사랑과 슬픈 종말을 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물망초는 널리 알려진 이름과는 달리 너무도 보잘것 없고 초라한 꽃이다. 크지도 않고, 두드러지게 빼어난 미모도 아니기에 인상적

---

인 곳이란 전혀 없다. 장미와 같은 화려함도, 백합 같은 신선한감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들꽃다운 순진함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이 꾸밈 없는 순진함에 호감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물끄러미 바라보며 감상에 젖곤 하는 것이다.

물망초는 불과 15센티 안팎의 작은 키에 꽃대가 길게 나와 밑둥으로 부터 꽃이 피어 올라가기 시작하니, 꽃은 무려 두 달 가까이 되어 얻는 셈이 된다. 작고 가름한 앞에는 무수한 솜털이 돋아나 있어, 마치 냉이를 연상시키는 가냘프고 가련한 꽃이다.

이 보잘것 없는 조그마한 채구의 꽃이 못 소녀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박한 소녀들은 오히려 이 꽃의 순박하고 가련한 모습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닐런지.

물망초는 전설의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옛날 루돌프라는 기사(騎士)와 펠타라 불리는 연인이 다뉴브 강 독을 거닐고 있었다. 주위는 고요했고 다만 따듯한 기운을 안은 봄 바람만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무르익게 했다. 으스스 달밤에 강 독에 핀 아름다운 꽃을 무심결에 본 펠타는 그 꽃을 가리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어머! 어쩌면 저리 곱기도 하지. 나도 저 꽃처럼 아름답고, 언제까지나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루돌프는 연인의 그 말을 잊지 않겠다는 증거로 그 꽃을 꺾으러 강독으로 내려갔다.

꽃 한 가지를 꺾는 순간 그만 루돌프는 발을 헛딛어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 당황해 하는 펠타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루돌프는 물살이 센 강물을 온 힘을 다해 헤치며 빠져 나오려 했다. 그러나 이미 물살은 루돌프를 삼켜 버리고 말았다. 그는 손에 쥐었던 꽃을 강 독 위로 힘껏 던지며, 「나를 잊지 말아 주오!」라고 소리치며 거친 물살에 휘말려 사라지고 말았다.

물망초에 얽힌 구슬픈 전설은 급기야 FORGET ME NOT이란 꽃이름을 남기에 이른다.

---

또 아주 오랜 옛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꽃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 명명식(命名式)날 물망초는 그만 깜박 잊고 명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뒤늦게 생각난 물망초는 허겁지겁 달려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만 깜박 잊어 이렇게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무엇이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느님은 노해 아무말도 없이 내려다보시더니, 툭 뺨뚫 한마디 하셨다.

「나를 잊지 말아라!」

물망초는 흐느끼며 그 자리를 물러 나왔다.

그 후부터 이 꽃 이름이 “나를 잊지 말라”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망초는 유럽에 널리 자생하고 있으며, 월터루 전쟁이 끝난 다음해에는 싸움터였던 벌판에 무수히 많은 물망초가 피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사람들은 이 꽃이 전사(戰死)한 병사들의 마음이 꽃 피었다고 생각해 더욱 가슴 아파했다고 전해진다.

물망초(勿忘草)라 부르는 것은 중국 이름을 그대로 우리 말로 옮긴 것이며, 유럽이 원산지인 이 꽃은 낭만주의 문학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다.

오늘도 수 많은 젊은이들은 창가에 앉아, 조금은 차갑게 느껴지는 밤공기를 두 뺨에 느끼며 속삭인다.

「연인이여, 나를 잊지 말아 주오. 내가 당신을 잊지 않듯이——」

## 무궁화 (Shrub alt hea)

\* 꽃말은 ‘일편단심’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무궁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만큼 이 꽃은 우리와 가깝고 널리 알려져 있어 정원이 있는 집이라면 무궁화 한 그루쯤은 기르고 있다.

---

도시를 빠져나가 시외의 작은 마을에만 들어서도 무궁화는 흔하게 우리 눈에 띈다. 학교 운동장가, 혹은 우체국이나 읍 사무소의 입구 양편 화단, 정류장 부근, 그런가 하면 아예 무궁화로 울타리를 친 집도 눈에 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친숙한 꽃이라 할 수 있겠다.

문일평씨는 무궁화가 대한 민국 국민의 예찬을 받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근화(木槿化)는 무궁화니 동방을 대표한 이상적 명화이다.

이 꽃이 조개 모락(朝開暮落)이라고 하나, 실지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시드는 것이니 조개 모위(朝開暮萎)라 함이 차라리 가(可)할 것이며, 따라서 낙화(落花)없는 것이 이 꽃의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거니와, 어쨌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지는 것은 영고 무상(榮枯無常)한 인생의 원리를 보여 주는 동시에 여름에 피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계속적으로 피는 것은 자강 불식(自強不息)하는 군자(君子)의 이상을 보여 주는 바다. 그 화기(化期)의 장구한 것은 화품(化品)의 청아한 것과 아울러 이 꽃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것인 바 한국인의 최고 예찬을 받는 이유도 주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무궁화는 우리의 국화이기는 하나 원산지는 시리아, 인도, 중국의 남부 지방 등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문헌상으로 고려 예종(睿宗)때 근화향(槿化鄉)이라 한 것이 현존한 사료로는 최초인 듯하며, 이로부터 백년쯤 지난 신종(神宗)——강종(康宗)연대의 천재 시인인 이상국(李相國 奎報)가 근화를 논한 것이 있다. 규보의 친구 중에 문씨와 박씨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무궁(無窮)이 옳다 하고, 또 한 사람은 무궁(無宮)이 옳다고 고집하여 서로 결정을 짓지 못하고 마침내 백낙천(白樂天)의 시운을 취하여 제각기 근화시(槿化時) 한 편을 짓고 규보에게 권하여 판가름해 주기를 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는 것을 보면 무궁화의 명칭도 그 유래가 오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무궁화를 국화로 삼은 것도 이러한 사적(史的)인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전설도 있다. 전설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옛날 이

---

야기라 함이 적격일 것이다.

먼 옛날 대사 한 분이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어린 아이를 때리며 핀잔 주는 굵직한 사내 목소리에 멈춰 발을 멈추었다. 대사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가 보자, 웬 험상궂은 사내가 자기 집 울타리에 핀 흰 무궁화를 꺾었다고 어린애를 때리고 있었다.

대사는 이를 말리며 어린애에게 무궁화를 꺾게 된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어린애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요 아랫마을에 사는데, 집이 가난해 겨우 어머니의 삶바늘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전날 그만 실수하여 남의 흰 도포에 얼룩을 묻히고 말았지 뭐니까. 도포 주인이 얼룩을 보고 노하여 새 것을 사흘 안으로 지어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체 가난해 새 것을 지을 수 없고 고심하던 차에 어머니는 병석에 눕고 저는 얼룩 빼는 법을 묻고 다니며 알아 냈던 바, 다름 아닌 흰 무궁화 꽃을 얼굴에 대고 비비면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에 와 이러한 사유로 흰 무궁화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구걸했지만 주인은 냉정하게 거절하더라는 것이다. 그래 할 수 없이 몰래 꺾으려다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있던 대사는 벌떡 화를 내며 사내에게 소리쳤다.

「천 명의 중에게 시주하느니보다 이 아이에게 한 송이 꽃을 베푸는 것이 백번 낫다.」

「대사님, 이것은 무궁화 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접시꽃이죠.」

그러자 대사는 아이를 위로하며 돌아갔다. 사내는 그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궁화와 접시꽃도 모르는 바보 대사 같으니라구...」

이 순간, 그 사내가 돌아섰을 때, 무궁화 울타리는 온통 접시꽃으로 변해 있었다. 그만큼 무궁화는 접시꽃과 흡사하다.

무궁화가 풍겨주는 미덕은 역시 끈기와 겸손이 아닌가 생각된다.

---

## 민들레 (Dandelion)

\* 꽃말은 ‘분산’

민들레는 언제 보아도 밝은 봄의 색깔로 양지 바른 언덕에 조용히 피어 있다. 그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지만 그 옛날 어렸던 시절의 그리움이 밀려 오고는 한다.

동네 친구와 함께 뛰어 놓던 그 들판, 손을 맞잡고 걷기 힘들던 작은 오솔길, 아카시아 만발한 과수원길...

바람이 불라치면 아카시아의 흰 꽃이 눈이 내리듯 흔들거리는 광경, 달맞이하는 어른들 사이를 빠져 나와 달 따라 가자던 어린 친구들, 봄기운에 나른해진 몸을 들판에 뒹굴리며 꽃을 꺾어 머리에 꽂던 그 시절... 이 모든 옛 시절의 그리움이 이 작은 들꽃에 함축되어 있는 듯 싶다.

민들레는 외부쪽으로부터 내부로 순차적으로 매일 조금씩 조금씩 꽃이 피어오른다. 오전 햇빛이 닿아야만 꽃이 피는데, 해가 짐과 동시에 오후라 드는 성질이 있다.

때문에 서양에서는 민들레를 ‘목동의 시계’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인 즉은 이와 같은 민들레의 성질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은 식물학측면에서 보면 식물의 개폐(開閉)운동으로, 빛과 온도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한다.

프랑스에서는 잎 모양 때문에 ‘사자의 이빨’이라고 불리며, 어린 아이들은 이 꽃을 머리에 꽂기도 하고, 꽃반지를 만들어 끼어 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화탁을 따서 단숨에 씨를 모두 불어 사방에 흩어지게 하며 “새 옷을 지어 받을 수 있을까?”하고 불을 풍선처럼 만들고는 하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 종자의 숫자도 “지금 몇 시?”라는 등의 숫자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화탁의 솜털을 단숨에 다 불어 떨어뜨리면 아이는 그 해 안으로 새 옷을 지어 받을 수 있다는 북유럽의 풍습 때문에 아이들은 기를 쓰고 불고는 하는 것이다.

민들레에 얽힌 전설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

---

옛날 노아의 대홍수 때의 일이다. 홍수가 일고 물이 밀어 닥치자 모두들 도망갔으나, 민들레만큼은 발이 땅에 묻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사나운 물살에 무서워 떨다 목 언저리까지 물이 밀어 닥치자 그만 민들레는 겁에 질려 애를 썼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세어 버렸다 한다. 이것이 화탁이며, 민들레가 마지막 기도로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가엾이 여겨 그 씨를 바람에 실려 멀리 산 중턱의 양지 바른 곳에 옮겨 피게 하였다 한다.

민들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오늘날에도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는 해가 없는 밤이면 고히 어둠 속에서 잠들고 만다.

민들레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음 약한 산골 청년의 향수를 일깨워 주는 들꽃”이라고 할 수 있다.

## 맨드라미 (Common Cockscomb)

＊ 꽃말은 ‘건강’ ‘방패’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마당에 들어서면 무뚝뚝한 아파트의 관리인과 흡사한 꽃을 대하게 된다. 사람의 손이 닿은 지 오래인 듯 아무렇게나 간수되고 있는 화단에 무리지어 피어 있는 꽃, 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품위 없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그런 꽃, 바로 이 꽃이 맨드라미이다.

맨드라미는 일반 가정의 화단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꽃이다. 늘상 우뚝한 자세로 멍청한 듯하나 엄숙하고 과묵한 모습은 언제 대해도 믿음직스럽다.

인도가 원산인 맨드라미는 가을꽃 중에서도 이채로운 꽃으로 그 모양이 수탉의 벼슬을 닮았다고 해서 맨드라미라 한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서서 머리를 꼳꼳이 세운 채 눈을 부라리는 수탉도 자신과 비슷한 벼슬 모양의 맨드라미를 대하면 기가 죽는 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모습은 근엄하기 짝이 없다.

이 꽃은 어딘지 모르게 기형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잎 클로버가 기형이면서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반면에, 이 꽃은 다른 기형으로서 보는

---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흔히 맨드라미 하면 넓적한 붉은 색이 감도는 맨드라미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다. 붉고 노랗고 끝내는 초록 빛으로 변색하는 색 비늘이 있는가 하면 보랏빛이나 분홍빛으로 변하는 맨드라미도 있다. 그 중에서도 은빛이 감도는 창과 같은 맨드라미는 그 아름다움이 맨드라미 중의 왕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에 맨드라미가 심어진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이규보의 장편 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때부터 심어져 온 꽃으로 추정된다. 이 꽃은 뒷간 곁에도 심어졌다는 사실로 보아 그 당시에는 그리 귀한 꽃에서는 제외된 듯싶다.

꽃말이 ‘건강’ ‘방패’인 맨드라미에 얽힌 전설을 알려면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옛날 로마에 힘이 장사인 용감한 장군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베르로, 그는 타고난 성품이 충직하고 바른 소리를 잘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성품이 곧고, 위낙 용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신배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간신배의 계략으로 그는 늘 전쟁터로만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한 마디 불평도 입에 담지 않았으며, 모든 어려운 싸움을 도맡아 치르면서 왕에게 충성했다. 언제나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전전하기 십년, 마침내 그는 왕의 부름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에 돌아 온 그는 실망했다. 귀족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왕의 주위에는 간신배가 들끓었으며, 백성은 서로를 신임하지 않았다. 베르로 장군은 차라리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는 편이 사내답다고 생각해 전쟁터에 다시 나가 싸울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왕은 이미 간신배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었다. 꼭두각시와 같은 왕은 베르로가 자신의 왕위를 탐낸다는 간신들의 이간을 곧이 곧대로 믿고, 그를 좁은 방에 쳐 넣어 삼십 여 명의 무사와 결투하도록 명령했다. 베르로는 몸을 도사릴 여유도 없이 무사의 칼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베르로 장군이 쓰러지자 간신들은 왕에게 달려들어 죽이려 했다. 이때

---

였다. 쓰러져 있던 베르로는 그들을 막아 섰다. 차례차례 간신들의 목을 벤 그는 왕의 무사함을 확인한 뒤 쓰러져 죽었다. 왕은 뒤 늦게서야 장군의 충성을 알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때 방패 모양의 맨드라미는 베르로 장군의 충성어린 영혼으로 피어났다고 한다.

맨드라미의 외모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과묵하고 엄숙하며, 가식이 없는 듯한 그 모습이 장군의 충성과 걸맞는 듯 싶다.

## 목련 (Yulan - 백색, Magnolia - 보라색)

\* 꽃말은 ‘장려(壯麗)’

3월, 따사로운 봄바람의 꼬리를 물고 봄 소식을 전해 주는 꽃이 있다면 그것은 목련일 것이다.

북쪽 방향을 향해 아기의 주먹만한 탐스러운 꽃망울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마음의 여유를 느낀다. 하룻밤 사이에 잎도 피지 않은 가지에 소담스럽게 피어 있는 예쁜 꽃은 아기의 활짝 웃는 얼굴처럼 귀엽기조차 하다. 반면에 해를 등지고 북쪽을 향해 있는 모습은 시무룩하니 고민이라도 안고 있는 것 같아 애처롭다.

그러나 그 이유인즉은 해를 못 받는 겨울 내내 북쪽은 발육이 더디고, 해를 받는 남쪽만이 성장율이 빨라 이러한 기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목련의 꽃망울이 북쪽을 향한다는 데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옛날 하늘 나라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워낙 미모가 뛰어난지라 많은 귀공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공주는 그들 귀공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북쪽 바다지기의 사나이다운 늠름한 모습에 그만 홀딱 반해 있었다. 남 몰래 궁을 빠져 나온 공주는 바다지기를 만나러 북쪽으로 갔다.

먼 길을 물어 바다지기를 찾아와 보니 이미 그에게 아내가 있었다. 공주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달래지 못하고 비관하여 바다에 몸을 던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흉악한 바다지기도 마음이 동해 공주의 죽은 시체를

---

고히 물어 주었다.

그리고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내에게 잠자는 약을 먹여 아내마저 고히 잠들게 하고는 홀로 살았다.

그후, 하늘 나라 왕은 이 사실을 알고 공주는 백목련(白木蓮)으로, 바다 지기의 아내는 자목련(紫木蓮)으로 만들었다 한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 소담한 목련의 꽃봉오리는 피워 보지도 못하고 시들은 자신의 얼굴을, 바다 지기가 살고 있는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군방보의 속신선전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북해간군(北海干君)이 문둥병에 걸려 병을 고치려 애태울 때 한약 장수가 이렇게 말했다.

「매일 잊지 말고 목련 나무 밑으로 오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다음 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그곳을 찾아가 보니, 약장수가 두 개의 봉서(封書)를 건네 주었다. 북해간군은 봉서에 적힌 대로 행하였더니 병이 나았다고 한다.

글쎄,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나 목련꽃 그늘 아래에 앉아 있노라면 풍요로운 흰 봉오리와 짙은 향기가 비방(秘方)을 자득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닐는지... 정신이 맑아지고 세상살이의 근심이 없어지더니 그것이 처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연모 또는 ‘장려(壯麗)’라는 꽃말을 가진 이 꽃은 꽃 모양이 연꽃을 닮고 그 꽃이 땅 위의 나무에 핀다고 하여 목련이라 한다. 한편 그 향기가 난초의 향기와 닮았다 하여 ‘목란(木蘭)’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목련의 향기는 난초처럼 싱그러운 향기라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을 유혹하는 듯한 매혹적인 향기라고 표현하는 편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때문에 장미나 레몬 따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향수를 이 꽃에서 뽑는다.」

## 모란 (Tree paeony)

\* 꽃말은 ‘부귀’ ‘성실’

---

모란은 매우 소담스럽고 풍요로운 꽃이다. 그러기에 중국에서는 이 꽃을 ‘화중왕(花中王)’ 또는 ‘부귀화(富貴花)’라고 하여 숭상한다.

옛날에는 우리 누님들은 시집 갈 때 반드시 이 모란꽃 수를 큼직하게 놓아서 가지고 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화려한 그 꽃 모양보다도 풍요로운 번영을 염원해서였으리라.

또한 시인들의 모란에 대한 시도 많다. 현대시로는 시인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유명하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실움에 잠길테요  
오월 어느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혀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가고 말아  
삼백 예수 날 한양 섭섭해 우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한한 슬픔의 봄을

우리 나라의 모란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덕만 공주와 모란”이다. 선덕 여왕이 아직 공주였을 때, 중국의 당 태종이 모란 그림 한 폭과 모란 씨 석 되를 처음으로 보내왔다.

이때 덕만 공주는 그 모란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꽃은 화려하지만, 벌과 나비가 꽃에 없으니 아무래도 향기가 없겠구나.」

과연 그 씨를 심어 보니 향기가 없었다. 모두들 공주의 선경지명에 감탄했다고 한다.

중국에 모란에 대한 이런 전설이 있다.

시인 환퇴지(韓退之)가 아직 문명(文明)은 날리지 못했을 때, 어느 마을에서 글방 훈장 노릇을 했었다. 여러 학생 가운데에는 그의 조카도 있었

는데, 도무지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그런데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제판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모양이라 하루는 조카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조카는 말하기를 모란만은 잘 가꿀 수 있으니 솜씨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퇴지가 허락하자, 그는 뜰에 있는 모란을 일 주일 동안 가꾸고 고향으로 훌쩍 떠나 버렸다. 한 달 뒤에 열 네 송이 모란이 하얀, 빨강, 노랑, 파랑의 온갖 빛깔로 피었다. 그리고 그 꽃송이 하나하나에 다음 같은 시가 나타나 있었다.

구름이 진령 높은 고개에 가로 막혀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니와  
눈이 남관을 싸고 있어 말을 걸지 못하는도다.

【雲橫秦嶺家何在 雲擁藍馬不前】

이시는 한퇴지가 고향을 떠날 때 지은 것이다.

고대 시에서 모란에 대한 시가 제일 많은 사람은 고려 때의 이규보를 꼽는데, 그중 하나에 다음 같은 시가 있다. 원래는 한시지만, 한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알 맺힌 듯이 이슬 먹은 모란 송이  
찍어 든 아가씨가 창 앞을 지나다가  
정든 이 웃어보며 “이 꽃 곱기 나만 하우?”  
음흉한 서방님이 짐짓 대답지어 하되  
“곱기야 꽃이 곱지 사람이 어이 곱소”  
대답들은 아가씨는 불현듯 시새워서  
들었던 꽃 집어 던져 발 굴러 비비면서  
“이 꽃이 이 몸보다 진정으로 낮거들랑  
오늘부터 이 꽃하고 마음껏 살으시오”

## 백합 (Lily)

\* 꽃말은 ‘순결’ ‘신성’ ‘희생’

꽃은 모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꽃을 꼽으려면 우리는 장미를 꼽

---

을 것이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장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꽃이 백합이라 한다 해도 그리 손색은 없을 듯 싶다. 옛날부터 서양에서는 백합을 장미, 제비꽃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여겨 왔다. 여름꽃의 풍성함 속에서 가장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는 백합꽃은 역시 초여름을 대표하는 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나리꽃(산나리)이라 하여 옛날부터 서민 생활속에 파고 들어 사랑받아 왔었다. 백합의 이름은 보통 흰나리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흰나리는 백합의 왕자로, 꽃은 청순한 백색이며, 꽃잎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말려 있으며, 안쪽으로 붉은색 반점이 있는게 특징이다. 그곳으로 노란색의 줄무늬가 통해 있으며, 꽃가루는 짙은 갈색으로 향기가 짙다.

여름 산에 우뚝 솟아 있는 하얀 꽃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어스름한 해질녘, 바람에 모든 백합이 흔들리는 모습이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울렁인다. 매우 시적인 정경이라 하겠다.

백합이라 하면 우리가 화원이나 들, 또는 산에서 보아 온 열댓 가지만을 알고 있는데, 그 종류는 2백 여 종에 가깝고, 우리 나라에서 만도 수십 종이나 된다. 우리는 보통 이 백합을 흰나리의 대명사처럼 부른다.

뒷산에만 가도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던 이 꽃이 옛 시인이나 묵객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은, 당시 불교나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그네들이 중국 문화를 모방하여 소위 사군자(四君子)라 일컫는 매·난·국·죽(梅蘭菊竹)만 즐길 줄 알았지, 그 외에는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 하겠다.

백합은 그리스 신화나 성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꽃이다.

아담의 아내 이브는 뱀의 사악한 꾀임에 빠져 금단(禁斷)의 과실을 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 이때 이브가 흘린 눈물이 지상에 떨어져 백합이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스페인에서는 마법에 의해 동물이 된 인간을 원래대로 되돌아 오게 하는 꽃이라 한다.

독일의 민화(民話)중에는 이런 백합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

옛날 할츠의 산 기슭에 아리스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사악한 성주 라우엔브르그 공작이 승마를 즐기다 미모의 아리스를 발견하고 급히 성으로 그녀를 데려오게 했다. 그러자 아리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백합이 피어났다. 그후 아리스의 순결은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전해졌다고 한다.

백합의 꽃말을 상기시켜 주는 민화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로마 신화에는 이렇게 백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쥬피터가 갓난 헤라클레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의 아내 쥬노에게 약을 먹여 잠지게 하고, 헤라클레스에게 아내의 젖을 먹게 했다. 이때 헤라클레스는 성급히 젖을 먹다 그만 젖을 흘리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젖은 뭉쳐지며 그것이 흰 백합으로 변했다고 한다.

여름 산에 올라 인적이 드문 오솔길을 따라 가다 보면 작은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고, 몇 송이의 백합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수줍은 듯 고개 숙인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자면 자신도 모르게 맞게 노래 부른다.

가시밭에 한 송이 백합화  
조용히 머리 숙여 홀로 피었네  
그리워라 순결한 흰 백합화야  
그리운 내 향기 영원하리라.

백합의 아름다움은 때문지 않은 청순함의 심볼로서 감히 다른 꽃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 봉숭아 (Garden balsan)

\*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이 봉숭아의 꽃말이다. 어느 꽃보다도 꽃말이 길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재미있다. 이와 같이 재미있는 꽃말이 나오게 된 연유는 이러한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옛날 신들이 모여 살던 올림퍼스 궁전의 연회석에서 모든 내객인 신들에게 선물할 금으로 된 사과 중 한 개가 귀신도 모르게 사라졌다. 시중을 들던 한 여신에게 누명이 씌어져 그녀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천국에서 쫓겨난 여신은 아무리 자기 몸을 뒤져 보았지만 금 사과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음모는 어느 마음씨 고약한 신의 장난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누명을 벗기 위해 미친 듯이 지상을 헤매다 결국엔 지쳐 죽어 한 포기 꽃으로 변했다. 이 꽃이 바로 봉숭아이다.

그래서 가련한 여신의 넋인 봉숭아는 누가 건들기만 해도 씨주머니를 터뜨려 안을 뒤집어 내보임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꽃을 봉선화 또는 봉숭아, 또는 속어로 봉사꽃이라 부른다. 봉선화란 중국에서 붙인 이름이며, 군방보(群芳譜)에 봉선화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즐기와 가지 사이에서 꽃이 피며, 머리와 날개, 꼬리와 발이 모두다 우뚝하게 일어선 품이 봉(鳳)의 형상과 흡사하다.」

이꽃이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도 봉선화라고 부른 것이다. 봉숭아라 부르는 것은 봉선화의 발음이 변하여 봉숭아가 된 것이다.

우리는 봉숭아 하면 두 가지를 선뜻 머리에 떠올린다.

을 밑에 선 봉선화야 /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 아름답게 꽃 필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 너를 반겨 놀았도다

하나는 이러한 애절하고 가슴을 찡하게 하는 노래 가사일 테고, 또 하나는 소녀들의 꿈을 부풀게 하는 하얀 손톱에 빨강게 물들이는 ‘봉숭아 물들이기’일 것이다.

봉숭아 꽃을 백반에 이겨서 손톱에 물들이는 것은 백 여 년 전에 이러한 풍속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옛날부터 못 여성들은 이러한 풍속을 알고 있었으며, 각자가 하얀 손톱에 물들이며 꿈을 키워왔던 것이다. 이러한 풍속은 오늘까지도 이어져 내려와 어린 아기의 손톱에도, 여중고

---

생의 손톱에도, 직장 여성의 손톱에도, 가정 주부의 거친 손톱에도, 심지어는 남성들에게까지도 파급되어 새끼 손가락에 봉숭아로 물들인 남성이 가끔 눈에 띄고는 한다.

가장 흔하게 대할 수 있는 꽃인 동시에 소녀의 꿈을 가냘픈 손가락에 담을 수 있는 여유를 안겨 주는 꽃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꽃은 손톱에 물들이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 온다.

고려 충선왕 때의 일이다. 왕이 원나라 공주보다 조비를 더 사랑한다 하여 원세조의 칙령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한 어여쁜 소녀가 자신을 위해 가야금을 쳐주었는데, 그 줄을 뜯어 열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궁궐 안을 살피던 충선왕은 열 손가락에 흰천을 댄 채 실로 동여맨 눈먼 궁녀가 눈에 띄었다.

왕은 소녀에게 눈이 먼 사연을 물었다. 소녀는 다소곳하게 앉아, 자신은 고려에서 온 몸인데, 고국이 그리워 너무 울다 지쳐 눈이 멀었다고 했다.

왕은 손가락의 형겉은 무엇이나고 재차 물었다.

「봉숭아로 물들이기 위해서랍니다」

눈먼 소녀는 정중히 말했다.

왕은 소녀더러 원 나라에 온 연유를 물으니, 아버지가 충선왕을 섬긴다는 이유로 관직을 쫓겨났고, 자신은 공녀(貢女)로 붙들려 와 있다는 기막힌 사연을 늘어 놓았다.

그리고는 진히 왕에게 들려 줄 가락이 있다며 가야금을 뜯기 시작했다. 그 곡은 왕에게 “성공하시어 고국에 돌아가 주십사”하는 간곡한 격려의 곡이었다. 왕은 그만 이 노래에 감동되었다.

충선왕은 그 후에 원나라에 무종을 도와 그 공으로 고려에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그는 신하에게 명령해 중국에 공녀로 끌려간 그녀를 데려오게 했지만 그녀는 죽고 없었다.

---

충선왕은 그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해 궁궐 뜰에 봉숭아를 심게 하여 소녀의 님을 위로했다 한다.

## 벚꽃 (Japanese Cherry)

\* 꽃말은 ‘절세의 미인’

봄바람이 제법 따뜻하게 느껴질 즈음 고궁을 한 폭의 그림처럼 수놓은 꽃이 바로 이 벚꽃이다. 벚꽃이 안개처럼 퍼지며 향기를 내뿜으면 봄바람은 이에 그 향기를 안고 겨울 내에 움추렸던 사람들의 옷소매 깊숙히 스며든다.

안개처럼 피어 있는 꽃송이를 따라 바쁘게 꿀벌이 날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벚꽃이 주는 한가로운 봄의 풍취를 만끽하는구나 싶어 절경에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게 된다.

그러다가도 비바람이라도 불라치면 한꺼번에 구름이 일 듯 꽃눈이 쏟아져 내린다. 이러한 벚꽃의 속성이 한 때 일본의 국화로서 그들의 기질과 흡사하다 해 배척했던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로서 벚꽃의 품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는 흔히 벚꽃 하면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중국과 우리 나라에도 자생하고 있다. 충청도를 제외한 전국에 자생하고 있는 벚나무만 보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서울의 우이동은 능수벚나무로 유명하다.

우이동 벚꽃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궁의 벚꽃 모양 꽃을 즐기기 위해 가꾼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이동 벚꽃은 지금으로부터 290여 년전 효종(孝宗)이 이조의 부강을 염원하여 북벌(北伐)을 꿈꾸던 때의 활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심산에서 심어 놓은 것이라 한다.

옛날에는 우이동의 능수벚나무가 이름이 높았으나, 벚꽃의 진가를 인정하고 관광객을 끌게 된 것은 요 근래의 일이다. 지금은 동·식물원을 이전하고, 그 옛날의 모습으로 복구된 창경원과 장춘단 공원의 벚꽃이 서울에

서는 가장 유명하다. 벚꽃철이 되면 젊은 남녀의 혼을 쪽 빼어 놓는다.

창경원에 심어진 벚꽃의 대표적인 벚나무는 사쿠라나무로 수십 년전에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원종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꽃이 어느 경로를 통해 일본에 들어갔는지는 지금도 확실치 않다.

이 꽃이 흔히 일본 사람들 사이에 소메이요시노(染井吉野)라 이름 붙여져 불리는 이유는 소메이라는 원예가가 이 꽃을 세상에 선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일본의 벚꽃에 얽힌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산의 신 오오야마즈미노미코또(大山祇命)와 들판의 신 쿠사노히메노미코또(草野姫命)사이에서 태어난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또(木花開野姫命)는 니니기노미코또(瓊久杵尊)에게 시집가기 전까지 꽃의 궁전 안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구름을 밟고, 보랏빛 구름을 뚫고 솟아 있는 후지산의 꼭대기에 내려와 종자를 뿌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사쿠라의 안개꽃이 눈 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땅에 신이 오셨다고 전해지는 신대(神代) 즈음의 이야기이다.

옛날부터 일본에서도 꽃이라 하면 그들의 국화인 사쿠라, 사쿠라 하면 야마사쿠라(산에서 피는 사쿠라)를 말하면, 일본내에서는 시가(詩歌), 회화(繪畫), 이야기 등의 제재(題材)가 되고 있다.

## 백일홍 (Zinnia youth old age)

\* 꽃말은 ‘떠나가 버린 벚을 그리다’

옛날부터 “열흘 붉은 꽃은 없다(花無十日紅)”라고는 하나 백일홍 만큼은 이름 그대로 백날을 계속해 핀다.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화단을 장식하는 백일홍은 꽃이 오래 간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백일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엄격히 말하면 나무 백일홍은 본래 이름이 자미화(紫薇花)이다. 한국 남쪽에 분포되어 있는 고유한 꽃으로 이를 일

---

컬어 백일홍이라 하였고, 풀 백일홍은 일본에서는 백일초(百日草)라 하며, 멕시코가 원산지이다.

나무 백일홍은 그 나무의 껍질이 급소로, 하얗고 윤이 나는 그 껍질이 조금이라도 굵히게 되면 나무 전신이 저절로 흔들흔들 움직이게 되므로 “굵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무”라는 별명이 생겼다. 꽃은 붉은것보다 보라색에 가깝고, 화판에 주름살이 있으며, 꽃달린 줄기는 빨갛고 잎은 서로 맞붙어 자란다.

‘떠나가 버린 벗을 그리다’의 꽃말을 가졌는데, 꽃말이 가장 길고, 그 내용도 가슴에 와 닿는다.

여기서 ‘떠나 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곁에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이세상을 떠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꽃은 꽃말 자체가 말해 주듯이 조금은 가슴 몽클하고, 구슬픈 사연을 추억하게 하는 꽃이다.

그러나 꽃말과는 달리 영어명으로는 이 꽃에 <YOUTH AND OLD AGE>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 늙어도 젊음 그대로 꽃피어 있는 꽃 모양을 말하고 있다.

향기도 변변치 않은 이 꽃에 애착을 느끼는 것은 꽃 모양이 다양하고, 꽃빛도 청색과 같은 보라색 외에는 모두 있고, 또한 그 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백일홍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전설되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어촌에 목이 셋 달린 이무기가 나타나 동네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마다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합의했다.

그 해는 김 노인의 딸이 제물로 바쳐질 차례였다. 처녀는 두려움으로 파리해진 얼굴에 화관 단장하고 제사상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장사가 나타나 자기가 이무기를 처치하겠다고 했다.

처녀로 가장한 장사는 이무기가 정확한 시각에 나타나 날름 삼키려는 순간 칼을 뽑아 이무기의 목을 베어 버렸다. 목은 하나만 잘린 채 이무기

---

는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로이니 당신을 죽을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처녀는 기뻐 어쩔 줄 몰라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이르오, 난 옥황 상제님의 아들로,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아야만 결혼이 허락되오, 백날만 기다려 주시오, 즉시 여의주를 찾아 돌아올 테니...」

장사는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만일 흰 깃발을 단 배가 오면 찾은것으로 알고, 만약 붉은 깃발이 달린 배가 오면 실패한 것으로 알라고 하며 떠나갔다.

처녀는 백날을 기도하며 장사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 마침내 백날이 되는 날, 곱게 단장하고 산에 올라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처녀는 백날의 기도가 허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결해 버리고 말았다.

배는 무사히 와 닿았다. 장사는 여의주를 찾아 갖고 돌아왔다. 붉은 깃발은 원래 흰 깃발을 달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이무기가 나타나, 죽여 없애 버리는 바람에 이무기가 내뿜은 피에 흰 깃발이 붉게 물들었기 때문이었다.

처녀가 죽은 무덤에서 족도리 같은 꽃신을 머리 위에 얹은 꽃이 피니, 동네 사람들은 백날 동안 기도한 정성이 꽃으로 피었다 하여 백일홍이라 불렀다고 하는 슬픈 전설이다.

## 오랑캐꽃 (Violet)

\* 꽃말은 '가인'

위즈워드의 시중에 이 꽃을 칭송한 이러한 시의 한 구절이 있다.

반쯤은 사람농에 띄지 않는  
이끼낀 돌 아래 핀 오랑캐꽃

---

그 누구일까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아름다움을

이 시는 루시라는 소녀를 별과 오랑캐꽃에 비유한 시이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땅에서 미소짓는 오랑캐꽃”이란 서양의 노래 가사의 소재로 되어 있는 이 꽃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꽃으로, 봄날의 대표적인 꽃중의 하나이다.

이 꽃은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종류가 350여 종이나 되는데, 봄날의 안개에 쌓여 3월의 언덕에 꽃피기 시작한다. 이 꽃의 영어명인 바이올렛은 ‘보라색’이란 뜻으로 고운 보랏빛으로 머리 숙여 꽃핀 모습은 애처롭기조차하다.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동네의 언덕위로 아지랑이가 퍼지기 시작하는 봄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귀여운 꽃이다. 천진 난만한 어린 아이들에게 몸 치장하기에 더 없이 좋은 꽃이며, 소녀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는 꽃이다.

옛날 그리이스의 전설에 아티스라는 양치기 소년과 이아라 불리는 소녀는 서로 사랑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티스는 미의 신 비너스가 가장 귀여워하던 소년이었으므로,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눈에 티가 낀 듯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들 둘의 뜨거운 사이를 보다 못한 비너스는 그녀의 아들 큐피트를 시켜 사랑에 불붙게 하는 황금의 화살을 이아의 가슴에 쏘게 하는 한편, 사랑을 잊게 하는 납화살을 아티스의 가슴을 향해 쏘게 했다.

이아는 아티스를 찾아갔으나 아티스는 이미 사랑을 잊은 후인지라 전혀 이아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아는 견디다 못해 울며 서러워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이를 지켜 보던 비너스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불쌍하게 여겨졌던지 이아를 작고 가련한 꽃으로 만들었는데, 그 꽃이 바로 오랑캐꽃이라 전해진다.

한편 이런 전설도 있다.

내(川)신의 딸 이오는 하늘의 왕 제우스와 즐기고 있었는데, 하늘의 여왕 헤라가 돌아오는 것을 눈치챈 이오는 어린 양으로 변신해 숨었다. 이를

가엽게 여긴 제우스는 어린 양의 식량으로 오랑캐꽃을 만들었다.

또한 이오는 제우스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헤라의 질투에 괴로워하며 세계의 여러 곳을 헤매다가 병이 났기 때문에 제우스는 이오의 아름다운 눈을 못잊어, 그 눈동자를 생각하며 이 꽃을 만들었다 한다.

영국의 대시인은 언덕에 피어 있는 작고, 앙증한 꽃에 사랑스런 루시를 비유했고, 서양의 노래 가사에서는 하찮은 들꽃을 하늘의 별과 대등한 위치까지 끌어 올려 놓았다. 이 하찮은 들꽃이 어떻게 이토록 칭송받기에 이르렀을까? 이 꽃이 칭송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침착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듯한 보랏빛 꽃빛이 여느 들풀에서도 느낄 수 없는佳人(佳人)과 같은 품위가 있기 때문이 아닐는지?

## 장미 (Rose)

\* 꽃말은 ‘불타는 사랑’

그리스 신화의 미(美)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에서는 베누스,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불리며, 여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들의 왕 제우스와 3대양신(大洋神)의 딸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비너스는 바다의 험한 파도 사이에서 탄생했을 때, 자신은 다른 신들과 같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어 대지에 장미꽃을 탄생시켰다.

그러자 신들은 탄복해 술을 부으며 찬양했다.

또한 희오리치는 파도에서 탄생했을 때, 장미도 함께 나타났다고 전해져 ‘비너스 탄생’의 명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비너스의 연인 아도니스가 이노시스에게 살해됐을 때, 그의 죽음을 가없이 여기는 비너스의 눈물이 장미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절세의 미인 클레오파트라가 연인 안토니우스와 만났을 때, 궁전의 탁자에 장미꽃을 올려 놓았다 하며, 한편 안토니우스도 “내 묘지는 장미로 덮여 주오”하고 유언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후세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채 전해져 내려 오고 있다.

---

로마 시대에는 상류 계급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 주역선은 으레 장미로 치장했으며, 포도주에 띄우기도 했고, 화관(花冠)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한다.

장미를 천정에서 늘어뜨린 주역선에서 “장미 밑에서”라고 말하면 “비밀스런”의미로 통하는 데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쥬피터가 어머니 비너스의 로맨스를 누설치 말아 달라고 침묵의 신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그러자 침묵의 신은 누설치 않겠다는 의미로 장미를 보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장미가 ‘밀회의 비밀을 지켜 주는 꽃’이 된 시초이기도 하다.

로마 제국 몰락 후에는 장미가 그리스도교의 심볼이 됐으며, 중세에는 성모를 ‘순결의 장미’ ‘순결의 장미’ ‘신비의 장미’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다. 그것이 단테의 ‘신곡’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15세기 후반의 영국에서는 붉은 장미를 문장으로 한 렌카스터 가와 흰 장미를 문장으로 한 요크 가와의 사이에 왕위 계승 싸움이 30년 간 계속되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장미 전쟁인 것이다. 결국 렌카스터 가의 헨리 7세가 요크 가의 엘리자베드를 아내로 맞이해 튜우들 왕조를 일으켰다. 그때 당시 홍백(紅白)의 장미를 합한 문장(文章)이 튜우들 로오즈로 현재도 영국 왕실의 문장으로 남아 있으며, 장미는 영국의 국화(國花)로 되어 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옛날 꽃의 지배자가 연꽃이었던 때의 이야기로, 꽃 중의 왕인 연꽃이 밤에는 잠만 자지 저희들은 지켜 주지 않는다고 알라 신에게 호소했다. 그러자 알라신은 흰 장미를 만들어 꽃 중의 지배자로 임명했고, 가시를 주어 무기로써 지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꽃 세 개에 나이팅게일이 날아들어와 흰 장미의 미모에 반해 정신없이 포옹하려다가 가시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그때 흘린 피가 흰 장미를 붉은 색으로 물들였다 한다. 이렇게 해 페르시아의 붉은 장미는 비극 속에서 태어나게 됐다 한다.

장미에 대한 재배는 우리 나라가 서양의 전승 시기보다 앞선 신라 시대부터였다. 신라의 설총(薛聰)은 그가 간한 화왕계(花王戒)에서 장미의 모

습을 오염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다.

삼춘(三春)의 가절을 맞이해 순란하게 핀 모란(牡丹)이 모든 꽃의 왕으로 군림하자, 여러 꽃들이 앞을 다투어 향궁(香宮)에 모여 들었다. 그 중에 장미가 끼어 있었는데, 아양을 부리며 화왕에게, 「침이 일찍 왕의 염덕(念德)을 듣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행여 버리지 않으시면 하룻밤 천침(薦枕)하여 지이다。」하고 여쭙는다. 이때 또 노방(路旁)에 있던 할미꽃이 구부리고 와서 충언 직간(忠言直諫)을 하며 씨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화왕은 벌써 오염한 장미에게 반해 할미꽃의 충언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를 본 할미꽃은 분연히 화왕에게 아뢰다.

「신이 처음에는 왕의 총명함이 의리를 명찰(明察)하시리라 믿었던 바 정작 가까이 와서 본즉 그렇지 못하되다. 예로부터 왕이 오염을 친숙하게 여기면 충직을 소원(疏遠)하게 되는 것이니, 이리 해서 필경 패망을 부르지 않을 리 적읍니다. 서시(西施) 같은 요희(妖姬)가 나라를 뒤집고 맹가(孟軻)같은 현인이 뜻을 언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인즉 신인들 어찌하리까。」

할미꽃의 이야기가 이치에 닿는지라 화왕이 그제야 깨닫고 그에게 사과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화왕계란’ 것으로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신문왕(神文王)이 설총더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명하므로, 설총이 곧 이 화왕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 한다.

장미라 함은 중국 이름을 그대로 들여와 부른 데에 불과하며, 벽을 의지하고 사는 가지 있는 식물로서, 담장을 의지하고 피던 짙레 같은 덩쿨장미를 뜻한다.

원래 오늘날과 같은 장미의 조상은 중국의 시넨시스였으며, 이집트인의 손을 거쳐 서유럽으로 건너가 재배되었다 한다. 그러나 장미의 르네상스 시대는 18세기로서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 비가 장미를 사랑하였을 때 부터였으며, 그후 오늘 날까지 왕좌를 차지해 왔다.

장미의 영어명 로오즈(rose)는 세계 공통어이며, 꽃의 대명사처럼 매력적인 이름이다. 로오즈라 함은 그리스어의 RHODON으로서 ‘붉은색’을

뜻한다.

옛날부터 영국인의 정원에는 반드시 이 장미가 한 두 포기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치로 여겨졌다니, 영국에서의 장미의 위력을 감치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느 시인의 시 중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라는 단 한 줄의 시가 있다. 꽤나 음미해 볼 만한 시가 아닌가.

## 진달래 (Azalea)

### \*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

봄에 흔히 볼 수 있는 꽃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진달래와 개나리라고 말할 것이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떼어 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봄꽃의 라이벌이다.

개나리가 울타리를 노랑계 장식할라치면 옅은 분홍으로 온통 뒷동산을 진달래가 수놓는다. 이 두가지 꽃의 색깔이 어우러져 3월의 봄빛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동네 꼬마 애들은 사내아이, 계집아이 할것없이 우르르 몰려가 한아름씩 꽃에 묻혀 뒷동산을 내려오고는 한다. 그때는 마치 분홍꽃 풍선 더미가 굴러오는 것인지, 아니면 꽃수레가 굴러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꽃더미가 동네 어귀를 수 놓는 것이다.

진달래는 모란처럼 품염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백합처럼 고결하지도 못하며, 청아함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저 순박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봄벌의 따사로움처럼 친밀감을 주는 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북으로 백두산과 남으로는 한라산, 동으로는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이 꽃이 없는 데가 없으며, 관상용으로 정원에 재배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당시에는 조국애의 향수를 이꽃에 비유해 울분을 토한 시가(詩歌)가 많았다. 그때문일까, 한 때는 이 꽃을 국화로 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었다.

---

또한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많은 사춘기의 소년 소녀의 가슴을 울리고는 했던 것이다.

.....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약산(藥山)의 진달래꽃이야말로 김소월의 시상(詩想)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저 순박하기만 하고 흔히 대할 수 있는 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진달래꽃’이란 시에 빨려드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잊혀져 거의 행하고 있지 않지만 수십 년 전, 조선 시대 때만 하더라도 3월 3일 삼짇날의 두견화(杜鵑花:진달래꽃) 화전 놀이는 우리가 내세울 만한 미풍양속 이었다. 긴 겨울 내내 갇혀 있던 선남 선녀들이 울적함을 안고 들로 산으로 뛰어나와 시와 가무와 화전으로 하루를 즐기고는 했던 것이다.

또한 두견화를 따서 찹쌀 가루와 섞어 참기름에 띄워 지져 먹는 놀이는 도처에서 성행했다고 전해 내려 온다.

진달래는 두견화라고 하고 소쩍새를 일명 두견새라고 하는데, 두견새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익조(益鳥)이다.

중국에서는 두견화에 얽힌 이런 전설이 내려 온다.

옛날 촉 나라의 망제(望帝)는 이름을 두우(杜宇)라고 하였다. 그는 위 나라에 패망한 후 도망하여 복위(復位)를 꿈꾸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새가 되었다는데, 이 새를 두견새라고 하여 망제의 넋이 씌어졌다고 한다.

두견새는 봄만 되면 밤낮으로 슬피 우는데, 특히 진달래가 만발해 붉은 빛으로 물들면 더욱 우짖으므로 망제가 피를 원망하는 것이라 하여 이 꽃을 두견화라 이름 붙였다 한다.

진달래와 비슷한 꽃 사춘적인 철쭉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구별하기 어려우나 찬찬히 들여다 보면 분명 구별이 된다. 철쭉은 화번(花瓣)에 주름

---

이 잡히고 꽃빛이 엷은 자주색에 검은 점이 있으며, 꽃이 피는 시기도 진달래보다 뒤져서 핀다. 옛날부터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참꽃이라 했고, 철쭉은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불렀다.

## 제비붓꽃 (Rabbit - ear iris)

\* 꽃말은 ‘사자(使者)’

꽃창포와 엇비슷해서 언뜻 보아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형제꽃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제비 붓꽃은 잎이 칼처럼 날카롭게 생겼고, 꽃도 꽃창포와 같은 모양이지만, 제비붓꽃이 약간 작으며, 아래로 드리워지는 큰 세 꽃잎이 꽃창포처럼 너울거리지 않고 좀 피인 듯하며, 마치 제비의 날개를 방불케 한다.

제비붓꽃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이 세상이 혼탁하지 않았을 때, 온갖 꽃들이 모여들어 무지개에 대한 제사의 잔치를 벌였다. 그러자 모든 꽃은 저마다 아리따운 빛깔로 곱게 단장하고 나왔으므로 몹시 화려했다.

그 가운데에서 홀로 파란 빛깔을 한 제비붓꽃은 유달리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아는 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비딱한 꽃 하나가 나서서 제비붓꽃을 비꼬아 이죽거리는 것이었다.

「모두들 보시오. 저자의 옷(빛깔)이 무지개처럼 곱군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느닷없이 안개비가 자욱하게 내리며 고운 무지개가 꿈처럼 나타났다. 그러자 비에 젖고 무지개에 얼비친 제비붓꽃의 모습은 화려하리 만큼 아리따웠다.

「오, 그대는 무지개의 나라에서 온 사자로군요. 몰라봐서 죄송천만입니다.」

이 꽃의 꽃말이 ‘사자’인것은 이 전설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 제비붓꽃에 대한 동요가 있는데, 매우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넷물 곁 언덕 위에 제비(붓)꽃 하나  
물새 보고 방긋 웃는 제비꽃 하나

---

고운 얼굴 물 속에 비치어 보며  
한들한들 춤추는 제비꽃 하나

문일평씨의 화하만필에서도 이 꽃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늦은 봄에 피었던 꽃이 모조리 다 지고 새로 전개된 녹음의 천지에는  
요염하고 화려하던 꽃이라고는 자취조차 찾을 수 없을 때 제비꽃이 홀  
로 피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음은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꽃이냐. 더구  
나 이 꽃이 물가에 피게 됨은 일종 아치를 더하니 첫 여름의 기후도 맑고,  
이 꽃도 청초하여 세 가지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것을 보겠다.」

## 철쭉 (Royal azalea)

\* 꽃말은 ‘사랑의 기쁨’

봄 소식을 안고와 기승을 부리며 뒷동산을 장식했던 진달래가 스산할  
즈음이면 연분홍빛의 철쭉이 고개를 내민다. 가느다랗고 매끄러운 가지가  
봄 바람에 부러지거나 앓을까 불안하기까지 한데, 아름다운 꽃송이가 돋  
아나는 잎과 닮아 피어난다.

나팔같이 길게 나온 꽃대에는 가는 털이 수없이 돋아나 있는데, 이 털이  
끈적끈적하므로 귀엽기는 하나 만지기가 어찌 꺼림칙하다. 덩성한 잎에도  
고운 털이 돋아나 있는데, 자라면서 차츰 솜털이 없어진다.

철쭉은 진달래꽃과 비슷하여 얼른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 보면 철쭉은 꽃잎에 주름이 잡혀 있으며, 꽃빛이 엷은 자주빛에 검은  
점이 박혀 있다. 또 꽃이 피는 시기도 진달래에 뒤진다.

옛날에는 철쭉을 꽃이 분류하지 않았으나, 중국에서는 철쭉에는 독이  
있어 양이 먹으면 죽는다 하며 ‘양철쭉’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꽃 이름을  
붙였다.

서씨의 임원 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철쭉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가(醫家)의 말에 따르면 철쭉이 독이 있어 양이 이 꽃을 먹으면 죽으  
므로 철쭉이라 이름지었다. 그러나 오늘 날 어린 아이들이 이 꽃을 따 먹  
어도 중독되는 예가 없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양에게는 중독되나 사람에

계는 중독되지 아니하는 때문일까.」

그는 스스로 의아해 했었다고 한다.

강원도의 해변가 산야가 원산인 이 꽃은 이러한 전설을 안고 있다. ‘삼국유사’ 권이(卷二)의 수로 부인이란 대목에 철쭉에 얽힌 대목이 수록되어 있다.

신라 33대 선덕왕 때의 일이었다.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純貞公)을 따라 동행하던 수로 부인은 미모가 뛰어 난데다 꽃을 무척 사랑하던 여인이었다.

그들 일행은 임소로 가던 중 바닷가에서 쉬게 되었다. 그곳은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 있는 곳이었다. 마침 그 때 수로 부인은 몇 길 되는 절벽 위에 피어 있는 꽃을 발견했다.

「누가 저 꽃을 꺾어 오지 않겠느냐?」

수로 부인은 절벽 위에 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로 부인의 손 끝을 따라 절벽에 핀 꽃을 꺾어 본 일행들은 꽃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꺾어 오겠노라고 나서질 못했다.

그때 한 노인이 절벽 끝에 핀 꽃을 꺾어와 수로 부인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붉디 붉은 바위 끝에  
잡고 온 암소를 놓아 두고  
나를 부끄러워 아니 한다면  
저 꽃을 꺾어 바치겠나이다.

그 노인은 마침 암소를 몰고 그 곳을 지나고 있던 참이었다.

바로 이 꽃이 철쭉이며, 그때 노인이 부른 노래가 ‘헌화가(獻花歌)’이다.

원산인 강원도에서는 철쭉을 ‘개꽃나무’라고도 한다. 이유는 진달래는 두견화 화전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반면, 철쭉은 꽃은 고우나 꽃과 꽃대에 점액이 있어 먹을 수 없어 붙여진 이름이다.

## 패랭이꽃(Superb pink)

\* 꽃말은 ‘순결한 사랑’

---

「화환에 어울리는 별을 수놓은 꽃。」

윌리엄 모리스는 패랭이꽃을 수많은 별을 수놓은 화환 같다고 칭송하고 있다.

이름없는 들풀 틈에 끼어 그리 질지도, 그렇다고 엷지도 않은 붉은 빛의 가련한 꽃에 대한 표현으로는 가장 적절하지 않았나 싶다.

부드럽게 갈라진 잎 끝을 들꽃의 비속함을 떠나 우아함을 지니고 있고 긴 꽃받침에 싸여 가냘프게 꽃핀 다섯 장의 꽃잎은 서로 잇대어 있어 마치 한 장의 꽃잎인 양 아담하게 느껴진다.

꽃말이 ‘순결한 사랑’인 이 꽃은 꽃말과는 달리 슬픈 전설을 안고 있다.

옛날 그리이스에 부모를 일찍 여윈 리크네스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윈 탓에 살 길이 막막하자, 로마로 돈 벌이를 나갈 결심을 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전공이 뚜렷한 개선 장병이나 영예로운 시인에게 월계수로 만든 관을 주었는데, 리크네스는 부녀자들이 면류관을 만드는 것을 보고 곧 손에 익혀 그것을 업으로 삼게 됐다. 그 당시 면류관은 부녀자들이 주로 업으로 삼은 것이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뚜렷이 나타나는 그의 아름다운 솜씨에 부녀자들도 그만 안절부절했다.

그의 재주는 금새 소문이 나 로마 전지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업으로 삼고 생계를 유지하던 부녀자들은 자신들의 밥벌이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를 몹시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니크트라고 하는 마음 악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젊은 화가를 피어 끝내 리크네스를 살해한다.

로마 사람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여 아폴로 신에게 기도를 올리자, 그는 리크네스를 붉은 패랭이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 후로도 로마 사람들은 새 면류관을 쓰는 것보다 리크네스가 만든 오래된 헌 면류관을 쓰는 것을 더 영광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 꽃을 패랭이꽃이라 한 것은 옛날 상인이나 천인들이 쓰던 덧개비로 만든 패랭이를 거꾸로 한 것과 꽃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전설에서 비롯돼 석죽(石竹) 또는 구맥(瞿

麥)이라고 한다.

옛날 중국에 힘이 세고 용감한 장사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인근에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된 석령(石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산을 올라갔다. 힘이 장사인 그는 활에 화살을 메워 바위를 향해 힘껏 줄을 당겼는데, 너무 세게 쏘아 바위에 박힌 화살이 뽑히지 않았다.

그 후 그 돌에서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 고운 꽃이 피었는데, 사람들은 바위에서 핀 대나무를 닮은 꽃이라 하여 ‘석죽’이라 이름 붙였다 한다.

여기저기 패랭이꽃이 들풀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 때면 우리는 가을의 속삭임을 가깝게 듣는 듯해 가슴 뿌듯해 하지만, 가냘픈 모습 때문일까? 가슴에 밀어 닥치는 쓸쓸하고 적막함을 떨굴 수 없다.

## 할미꽃 (European pasbue flower)

\* 꽃말은 ‘사랑의 배신’

뒷동산의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하하하하 우습다 꼬부라진 할미꽃

이 동요는 코 흘리며 철없이 뛰어 놀 때부터 불렀고 귀가 아프게 들어온 동요 중의 하나이다. 음악 시간에 학교 교실에서 들었고, 동네 어귀에서 들었는가 하면, 들길에서, 숲속에서, 어디든지 두세 명의 꼬마가 모이면 입을 모아 부르는 많은 동요중에 이 ‘할미꽃’도 그들의 부드럽고 작은 목청을 간지럽힌다.

동요의 가사가 재미있다. “늙어서도 할미꽃”이고 “젊어서도 할미꽃”인 것이다.

할미꽃이란 이름은 꽃의 외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허리가 꼬부라진 호호 백발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과도 같다.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꽃이다. 겉은 뿌옇게 솜털이 많이 돋아나 있고, 보라색인 화판은 늦은 봄이 되면 떨어지고 기다란 꽃술만이 남아 있어 마치 백발을 바람에 흩날리는 등이 굽은 노인네를 연상시키는 꽃이다.

---

당대 시선(唐代詩仙)인 이백(李白)은 할미꽃(白頭翁)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마을 길로 취해 들다 들판에서 노래하네  
여저기 푸른들에 어찌다 할미꽃은  
거울 앞에 꺾어 오니 흰 터럭이 완연코나  
적은 꽃을 비웃는 듯 봄바람에 한을 품네

우리 나라에서는 이백보다 앞서 신라 신문왕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 하니, 설총이 서슴치 않고 모란을 꽃 중의 왕으로, 장미를佳人(佳人)으로, 할미꽃은 장부(丈夫)로 비유해 이야기를 꾸며 나간데서부터 할미꽃이 소개됐다.

모란은 꽃 중의 왕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장미라는 요염한 거인의 유혹을 받아 그만 현혹되어 버렸다. 이를 지켜보던 보잘것 없는 몰골의 할미꽃은 포의(布衣)에 가죽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백발이 흘날리며 화왕께 나와 충언하였다.

그러자 장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왕은 할미꽃의 충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를 눈치챈 할미꽃은 분연히 아뢰었다.

「왕의 청민(聽敏)이 의리를 명찰하리라 믿었는데, 가까이 뵈오니 그렇지 못하외다. 예로 인군이 요염을 가까이 하면 충신을 멀리 하게 되는 것이니, 이래서 망하지 않는 일이 적읍니다. 서시(西施) 같은 요희(妖姬)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맹가(孟軻)같은 현인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할미꽃의 충언 직간이 있자, 화왕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할미꽃이 사과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신문황은 설총의 깊은 뜻을 알아채고 곧 그 풍자하는 간언을 ‘화왕계(花王戒)’라는 글로 만들게 하여 후세에 남기게 했다. (이 대목은 <장미>편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별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듭 기술됨을 이해 바람.)

이 꽃에 얽힌 전설 중에는 이러한 것도 전해 내려 온다.

옛날 한 할머니가 두 손녀를 데리고 살았다. 큰 손녀는 얼굴은 예쁘나

---

마음씨는 고약했고, 큰 손녀는 미모 때문에 부잣집에 시집 갔으나 작은 손녀는 산지기에 시집 갔다.

할머니는 늙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큰 손녀를 찾아갔다. 그런데 큰 손녀는 문 앞에서 거절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어 작은 손녀를 찾아 고개를 넘다가 기진 맥진하여 숨지고 말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작은 손녀는 슬피 울며 할머니의 시체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다음 해 봄 할머니의 무덤에서 꽃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꽃이 할미꽃이라는 것이다.

보잘것 없고 왜소한 꽃이기는 하나 오늘날에도 산골 마을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리운 봄 언덕의 들풀인 것이다.

## 해당화 (Flowering crab apple)

\* 꽃말은 ‘미인의 잠결’

모래 언덕에 아름다운 복숭아 빛이 군락(群落)을 이루고, 주위에 달콤한 향기를 가득 흠뻑리는 꽃이 바로 해당화이다.

명사 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말며  
잎핀다고 설워마라  
동삼(冬三)석달 꼭 죽었다  
명년 삼월 다시 오리

우리는 해당화라 하면 대개가 명사 십리 붉은 꽃 매괴를 해당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해당화는 전혀 다른 꽃이다.

해당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미인의 시름에 잠긴 듯한 모습, 말하자면 비에 젖어 우수에 잠긴 듯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봄비에 젖어 축 늘어진 모습이란 가련하면서도 다소곳한 처녀의 시름에 잠긴 모습과 흡사하여 옛날부터 예찬 받았었다.

꽃대에 길게 드리워진 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사과꽃과 흡사하며, 이 꽃대가 한데 어우러져 마치 그 모습이 수줍어 얼굴 붉히며 미소짓는 순박

---

한 시골 처녀의 모습과도 같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해당화에 얽힌 전설이 내려 오는데, 그 전설은 대략 이렇다.

당 나라의 현종 황제가 어느 날 심향정에 올라가 화창한 봄날씨를 즐기다가, 홀로 즐기기가 아까와 총애하는 양귀비를 불렀다.

그때 양귀비는 몽롱하니 술에 취해 있는 기분으로 있다가 황제의 부르심에 놀라 깨기는 했지만, 두 발에 힘이 없고 오금이 퍼지질 않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때문에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황제 앞에 나오니 양불엔 홍조가 피어 그 모습이 천하 일색이었다.

황제는 한 동안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다정히 물었다.

「아직도 취해 있는나?」

그러자 양귀비는 임기 응변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해당 미수각(海棠未睡覺)」

그때부터 이 꽃이 수화(睡花)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 말은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중국 고사에 보면 해당 수미족(海棠睡未足)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아직 덜 깬 상태로 잠기 어린 얼굴을 하고 있을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이 꽃은 원래 중국 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름만 따다가 우리의 해당화에 붙여 버렸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널리 사랑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 해바라기 (Sun flower)

\* 꽃말은 ‘승배’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가는 특성이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일편 단심을 가진 충신에게 비하였다.

그런 연고로 민간에게 전해 내려 오는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다.

옛날 어느 젊은 과부가 죽은 남편이 너무나 그리워, 하루는 이름없는 무당을 찾아가 좋은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무당은 그렇게도 남편이 그림다면 해바라기 씨로 기름을 짜서 불을 켜고 베개에다 망건과 갓을 씌우고,

---

웃을 입혀서 밤새도록 마주보고 앉았노라면 반드시 남편이 보일 터이니, 그리 하라고 방법을 알려 주었다.

집에 돌아온 과부는 돌아오기가 무섭게 무당의 말대로 해바라기 씨를 구하여 기름을 짜 불을 밝히고, 베개에는 의관을 씌워서 남편의 생전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 놓고 밤마다 대면했다 한다. 사흘 밤이 되던 날, 의관한 베개가 벌떡 일어나 어정어정 걸어 오므로 과부는 놀라 기절하고 말았다. 그후부터 과부는 죽은 남편에 대해서 만큼은 눈썹만치도 생각지 않게 되었다 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돈다고 믿어 왔다. 중국의 비전 화경(秘傳花鏡)에 보면 이 꽃을 향일규(向日葵)라 하여 “꽃이 해를 따라 도니, 해가 동쪽에 뜨면 꽃은 동을 향하고, 해가 서쪽으로 질때면 서쪽을 향해 있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를 바라보고 돈다고 해서 해바라기라 이름 붙였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히마와리(日まわり)라 하여 해를 바라보며 돈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이 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유럽에 전파된 식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태양을 따라 도는 꽃(tourne sol)’이라 불렀고,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태양의 꽃(sun flower)’이라고 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해를 따라 돈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신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지 않는다는 근거 있는 학설을 주장하고 있다.

옛날 그리이스의 어떤 연못에 그리디와 우고시아라는 두 요정 자매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신의 딸로서 해가 지고부터 동이 뜰때 까지만 연못 위에 나와 놀 수 있다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만 했다.

어느 날 그들은 놀기에 정신이 팔려 그만 규율을 어기고 말았다. 동이 트며 태양의 신 아폴로가 빛을 발하니 그들은 꿈에도 보지 못했던 황홀한 광경을 맛보고 말았다. 낮을 잃고 있는 두 자매를 아폴로는 이내 발견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아폴로의 미소에 낮을 잃은 그들은 서로 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싸우

---

기 시작했다.

언니인 그리디는 동생이 규율을 어겼다고 바다의 신에게 일러 바쳤으니, 동생은 신의 노여움을 사 죄수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언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폴로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아폴로는 그녀의 사악한 마음을 눈치채고는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홉 낮, 아홉 밤을 우뚝 선 채로 그의 사랑을 구걸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발이 땅에 뿌리박힌 채 한 포기의 꽃으로 변해버렸으니 이 꽃이 해바라기이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오늘날까지도 태양을 따라 온 종일 그의 뒤를 쫓는다는 것이다.

인디안 사이에는 여자가 해바라기의 뿌리를 파서 요리할 때는 남자가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계율이 있으며, 페루의 잉카족 사이에는 태양의 신전에 바치는 처녀는 순금의 해바라기관을 씌울 정도로 그들은 이꽃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강렬한 태양의 모습, 황금색으로 피는 큰 꽃은 한 여름의 심볼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고흐의 ‘해바라기’는 유명하다. 그의 묘지 곁에는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어, 그곳을 방문하는 화가들은 그 종자를 얻어 간다고 전해지고 있다.

## 카네이션 (Carnation)

\*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같아 뉘시며

이노래가 그 누구의 입에서 불려지면 우리는 어머니의 넓고 가의 없는 사랑과 카네이션을 생각하게 된다.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인 이 꽃은 장미와 더불어 세계적인 명화로서 그 품위를 갖추고 있다.

---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워 주는 고마운 꽃. 평상시 잊기 쉬운 어머니의 사랑과 노고를 일깨워 주는 고마운 꽃인 동시에 다시 한 번 감사와 보람을 다짐케 하는 꽃이기도 하다.

때문에 5월이면 한복으로 곱게 차려 입은 못 어머니의 가슴에서 작은 정성의 표시인 이 꽃은 빛을 발하고는 하는 것이다.

어머니 날에, 장미와 같이 귀족적 품위를 갖춘 다른 꽃을 제쳐 두고 카네이션을 쓰게 된 유래가 있다.

미국의 웹스터라는 작은 마을에 자비스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어린이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마을 어린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비스 부인을 어머니라고 생각했고, 자비스 부인도 그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대해 왔다.

그러던 중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을 어린이들은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여 그녀의 기일(忌日)에 추모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날 그 부인의 딸 안나는 어머니의 영전에 한 아름되는 흰 카네이션을 바쳐 그곳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 가룩한 안나의 정성이 널리 퍼져 모두 그 뜻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그 날을 지켜 준 것이 나중에는 정부에서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미풍 양속은 전 세계로 퍼져 우리 나라에서도 어머니 날을 정해 기념 행사를 범국민적으로 행한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붉은 꽃을 가슴에 달고, 돌아가셨으면 흰꽃을 달게 되어 있다.

카네이션은 꽃꽃이의 여왕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품위있고 음전한 꽃이라 하는 편이 이 꽃의 적당한 표현이라 하겠다.

원산은 남유럽으로 서양에서는 기원 전 3백년쯤 다이안서스라는 이름으로 재배되고 있었다 하며, 이것이 지금도 학명으로 되어 있다.

다이안서스의 다이(dias)는 그리스어로 ‘신’이란 뜻이며, 안서(Anthos)는 ‘꽃’이란 뜻으로, 즉 ‘신으로 부터 주어진 꽃’이란 의미이다. 통상적인 이름 카네이션은 라틴어의 카루나티오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카

---

로(Carnis)는 고기 색깔(질은 적색)을 뜻하며, 그러므로 원색은 고기색 계통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는 또한 ‘시인(詩人)의 패랭이꽃’이란 별명도 있다.

그것은 옛날 로마에 소크니스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그리이스 태생의 아가씨가 영예의 관(冠)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기술이 뛰어나 많은 시인과 화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지만, 동업자들에겐 눈에 가시인 터라 그들은 그녀를 끝내 암살해 버렸다.

아폴로 신은 항상 그녀가 자신의 신단을 아름답게 장식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가없이 여겨 그녀를 작은 분홍색의 꽃으로 변하게 했다. 이것이 카네이션이라 한다. ‘시인의 패랭이꽃’이란 별명도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래된 것이다.

카네이션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색깔도 분홍색, 흰색, 노란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꽃이 아름다우며 향기가 좋아 온실에서는 거의 일년 내내 꽃을 볼 수 있게 됐다.

## 코스모스 (Common Cosmos)

\* 꽃말은 ‘애정’ ‘소녀의 순정’

춥지도, 그렇다고 덥지도 않은 가을 날 오후, 싱그러운 가을 바람을 가슴에 안으며 오솔길을 걷자면, 우리는 길가에 가느다란 목을 길게 늘이고 약한 바람에 살랑이는 각양 각색의 코스모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잘 단장된 부잣집 화단에서도, 아파트의 어수선한 놀이터에서도, 마당이 좁은 어느 가난한 집 구석에서도, 시외 버스 정유장에서도, 웬만한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코스모스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가느다란 목을 길게 늘이고 그곳에 피어 있다.

이 코스모스는 꽃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흔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과 친숙한 꽃이다. 피부로 느끼기 이전에 가을을 알리는 꽃. 끝없이 높고 맑은 파란 가을 하늘과 너무도 잘 조화되는 꽃은 이 코스모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코스모스는 그리스어로 ‘조화’ 또는 ‘장식’, ‘아름다움’이란 의미로 꽃이

---

아름답다는 데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질서있는 우주” “잘조화된 우주” — 이도 또한 조그마한 코스모스를 들여다 보고 있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조화된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해 신비롭기만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적은 땅 덩어리가 아닌 태양계, 더 나아가서는 은하계, 꽃 속에서는 이러한 우주의 축소된 우주, 소우주가 그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꽃 중의 하나로, 원래는 멕시코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거쳐 1700년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한다.

코스모스란 이 마드리드의 식물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코스모스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하는 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기차를 타고 여러 터널을 지나 어느 작은 간이역에 도착했을 때, 역 주위에 코스모스가 형크러진 소녀의 머리카락 처럼 피어 있는 모습이란 가을의 정취를 더욱 더 만끽하게 한다. 가을의 여행객도 이 꽃에 의해 낯설은 지방이라는 위압감을 떨구고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제 4 장

향토문예편



---

韓 龍 雲

- 강원 인제 출생
  - 江原문학, 광주시 낭송회, 한맥문학가회 회원
  - 한맥문학 신인상으로 문단등단
  -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지역후원회장
  - 內麟문학회 회장
  - 수상 : '81 대통령 표창  
삼성문화재단 효행상  
고향재단 밝은사회 선행 모범가족 금상  
강원 새마을 미담상  
弘盛社 작품공모 우수상
  - 현재 인제읍사무소 근무
  -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43의 1번지  
(내설악타운 102동 403호)
- (직) 0365-461-2303  
(자) 0365-461-2623

## 바람과 강물소리

- 1. 바람소리 -

한 용 운

바람 한점  
돌고 도는 푸른하늘  
산을 에워  
산을 울린다

침묵으로 흐르다  
하얀 포구에 앉아  
꿈틀 거린다  
숨을 쉰다

설레임 깊은 황혼빛에  
젖는 눈물 감추고  
몸 부림으로 맴돌다  
멀리 가누나.

## - 2·강물소리 -

그리움 젖은  
푸른 하늘 위로  
늘 푸르게 흘러가는 소리

끝 없이 넘치고  
그 같이 넘치다  
꿈 속으로  
기어드는 물결인가

그림자  
깊게 두리운 강언덕  
서리우는 안개속으로  
흐르며 가누나.

# 내 린 천(19)

- 가넷고개 -

한 용 운

목매기 송아지 울음따라  
 찢레순 저름저름 째어 넘기던  
 내 유년을 데리고  
 가넷고개 넘으시던 할배는  
 강언덕 기슭에 누우시고

파편조각 깨진 산허리  
 빨간 신음 토했던  
 무명용사 위령비 외로운 능선굽이  
 청상과부 속 앓이 가슴  
 그 상채기 피빛으로  
 피고지는 진달래

고개 마루 너머  
 서러운 눈물같은 노을이 내리면  
 매연 새까만 군용트럭  
 소음 요란한 오토바이도 넘어가고  
 먼 강여울 건너온 바람도  
 덩달아 넘어가는  
 고개  
 가넷고개.

## 그 자리에

한 용 운

언제나  
바람과 같이 왔다  
가는 자리에  
자리 매김으로 그 같이  
잠시 머물러야 하는  
삶인가

가냘픈 목숨  
날마다 저울질 하다  
자식 하나로  
한을 품으시고  
어느 바람 울적한 날  
구름발 엮어 이고서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번님

풀꽃처럼 피어  
그 꽃 작은 아가방 속에  
꽃씨 하나 묻고  
돌아서 가는  
한 서린 그 자리인데  
오늘 홀로 선  
나여  
나.

## 판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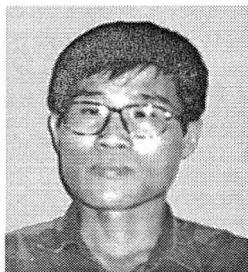
한 용 운

해가 가고  
또 올때마다  
우리들 가슴에 묻어 둔  
서럽고  
그리웠던 이야기  
어느 세월 전설이 될까

한 마리 새  
돌아 오지 못하는  
저 자유의 다리 너머  
북녘하늘 나는데  
그 언제인가  
구름 한 자락 끝에앉아  
눈물 지우던  
님아

바람은  
그리운 마음  
그대로 전하려는 듯  
녹슨 철조망  
한 모서리에 서서  
갈잎을 흔들고 있었다.

## 당선소감



### ▶ 손 홍 기

10여년간 안양, 안산 등지에서 문화운동 진보정치운동에 투신

93년 낙향, 인제군 서화면에서 식당 운영  
강원 민예총 회원, 인제 내린문학 동인

지난 겨울,  
정말 힘들게 보낸 겨울이었습니다.

꿈이 사라져버린 현실은 앞진 겨울나무처럼 우울하고 스산스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눈도 내려주지 않던, 마른 먼지만 폴폴 날리는 인북천 뚝방길을 걸으면서 서른아홉의 곱삭은 가슴으로 스쳐가는 까닭모를 슬픔 때문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 거기 서리 꽃 하얗게 핀 느티나무 실가지에 끈 떨어진 방패연 하나 춤계 떨고 있었습니다.

슬펏습니다. 문학에 대해, 참다운 삶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며 고민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무게에 밀려 떠나가버리고 우리는 적당히 지치고 무료하고 시시해져서 그만 투옥, 연줄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찬바람 췌췌부는 저 세상 어디로든 훨훨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늘 넉넉한 품새로 그 자리에 버티어 앉아서 추운 어깨 다독여 주시고 갈증난 우리 빈 잔에 넘치도록 막걸리를 채워주시던 도리촌 방형님, 돈도 되지 못하는 '가당찮은' 글쓰기를 격려해주던 꿈헌이 엄마, 내린문학 선배, 동료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겨울 詩를 잃어버린 사람들, 춥고 소외받은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애눌하지만 가슴 따스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 탈고, 혹은 출발선

손 흥 기

나의 빈 잔 가득히엔  
허공을 담았을 뿐이다.  
바람을 담았을 뿐이다.  
그러길래 내가 가진 것이라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비어버린  
가슴뿐이다.

비가내린다.  
뽕얇게 피어 오르는 물안개가  
온 산을 휘감고  
가난한 마음을 덮는다.  
이젠 비닐 하우스를 걷어내고  
여린 새싹들이 이 맑고 투명한 빛살을  
흠뻑 빨아들이게 할 때다.  
겨우내 닫혔던 창문도 활짝 열어젖히자  
그리고는 완성되지 않은 어설피  
혹은 해맑은 미소를 날려보내자  
아 —, 저기 봄이 오고 있다고.

## 소시민

- 서화別曲 · 3 -

손 흥 기

선거 한 철 술을 팔아  
 짹짹 재미 본 아내는  
 다가올 선거 날짜를 꼼꼼히  
 손가락 꼽아보고  
 아침마다 서른아홉의 곰삭은 가래를  
 한 응큼씩 뱉어내며  
 눈꼬리 치뜨는 아내의 눈치나 힐끔거리면서  
 일킬로에 오천육백원 하는 호주산 쇠고기와  
 ‘신도불이’ 토종소의 판매 대차 대조를 두들겨보는  
 이젠 제법 장사꾼 품이 잡혀간다던  
 옛 동지의 말을 곱씹어 보면서  
 그래 아무려면 어떨가  
 그깟 돈도 되지 못하는 글 나부랭이나 짓무르면  
 뭐 하겠나.  
 혼하디 혼한 사랑노래 한 번 구성지게 못 부를 바에야  
 신장개업 ‘레벤호프집’ 광고 팜플렛이나 써주고  
 공치사 안주삼아 씌주나 한 잔 얻어마시는 게  
 더 변증법적 아니겠는가.  
 사람들 부끄러운 시선 피해  
 시집 한 권 품에 넣고 뒷동산에 오르면  
 멀리 대암산 아래 봄기운이 성성한데  
 눈물나게 좋은 봄날 햇살에 취해  
 보리 피리나 불며  
 자울자울 해 바라기 서럽습니다.

## 남촌집

- 서화別曲 · 4 -

손 흥 기

지금도 말이지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구만요  
 이래봐도 그때 '태평양 홀'미스송 하면  
 이 바닥에선 끝내줬지  
 - 오작교에서 만나서 진고개서 한 잔 꺾고 태평양에  
 풍덩한다고 -  
 그야말로 한국의 '라스베가스' 아니겠수  
 탕탕한 이등병, 싱싱한 밥풀떼기 한 개짜리 전입신고부터  
 말년 병장 굿바이 뒤지기 한 판 신고까지  
 아마 내 배를 타고간 병력만 해도  
 1개 사단은 넘을 것이구만요

이름도 그럴듯한 '산너머 남촌집'  
 작년도 성탄절 때 걸어놓은 깜빡이 점멸등은  
 먼지 뒤집어 쓴 채 아직도 작동 양호하고  
 연탄화덕 석쇠 위엔 닭똥집이 타들어 가는데  
 명예로운 만기 전역하신 예비역 김상사의 머리는  
 희끗희끗 밤이 깊어가고  
 사랑에 울고 돈에 속는 게 인생이라며  
 생떼 같은 돈 천만원 사기쳐 도망간  
 탕크부대 김중사의 얘기 끝에  
 '우운다고 옛 사랑이' 십팔번을 부르는  
 우리들의 아줌마 송마담의 눈에는  
 늦겨울 뽀오얀 밤안개가  
 이슬처럼 꿈길처럼 피어납니다.

## 귀 향

손 흥 기

마른 먼지 풀풀 날리는  
 미류나무 신작롯길 투덕투덕 걸어서  
 새마을 수퍼 처마 나죽한  
 장터 모퉁이 들어서니  
 멀리 도드람산이 슬핏 내려다보고  
 돌아섰대요 크릉,  
 속울음 삼키며 돌아눕대요  
 까치집 이고 선 감나무에선  
 늦여름 매미소리 자지러드고  
 쇠전마당 텅빈 외양간에는 위랑위랑  
 위낭소리 들리는가도 싫어도  
 마른 햇살 한 줄기 댕바람에  
 쓸려가는 장터 모퉁이, 우두망찰  
 쭈그려 앉아 귀 기울여  
 봤대요  
 길 없는 땅바닥만  
 내려 본대요.

## 2, 7 원통장

- 파 장 -

손 흥 기

빛바랜 천막지 펄럭이는  
 차일아래 파리똥 닥지닥지 앉은  
 삼십축 백열등 가물가물  
 흔들거리고 국방색 때절은  
 돈주머니 위로 궁식,  
 갈 바람이 스쳐가는데  
 아아, 마냥  
 마냥 취할 순 없지. 파장,  
 본전 아쉬운 시장바닥 돌아보며  
 순대국물 얼룩진 목로에 앉아  
 손때절은 천 원짜리 침발라  
 세고, 또 세어보면 뭣하나  
 육성회비 보채던 막동이 금동이놈  
 달덩이같은 얼굴이 막걸리잔에  
 어른거리고 후줄근한  
 지폐 몇 장으로 남은  
 아우성 벽적대던 시장바닥은  
 싸구려 테이프장수 김씨 리어카의  
 반짝, 카바이트 불빛으로 잣아들고  
 이 잔들고 나면  
 서화가는 막차가 아슬아슬  
 시동켜고 있을텐데

---

‘두마안강 푸른물에 노젓는 배엿사공’구성진  
젓가락장단 분위기 잡혀가는  
‘장터국밥집’

헛헛한 가슴으로 황사바람  
지나간다.

# 일 출

윤영희

매서운 눈보라  
반전을 거듭하는  
대청봉에서  
새해 일출을 본다

그것은  
절망을 던져버린  
신앙의 간절한  
기도 이였기에  
동해의 안개  
새하얀  
파도를 밟으며  
등불 밝혀  
내게로 온다

성애긴 전나무  
푸른 숨을 내뿜는 아침  
눈부신 설경  
은빛  
비늘을 털며  
새로운 희망을 연다

---

시작이다  
하산하는  
나의 등을 떠밀며  
신을 찬미하는 너  
탄생하는 기쁨으로  
너를 끌어 않는다.

## 징검다리

윤영희

달맞이 꽃 병그는  
 내린천 갯가에  
 지금도 옛동무  
 진규, 재영이, 미자 있을까  
 물 수제비를 뜨자던  
 돌 섬에 가고싶다

깎대기를 벗고  
 모래성을 짓고나면  
 돌다리 아래 보쌈을 놓고  
 물 침을 뿌려 점을 치던곳  
 새감둥이  
 허물벗던 친구야  
 비석치기를 하고프잖니

쭈대며  
 잔솔가지랑 꺾어  
 솔단지에 불피우면  
 배불뚝이 씨름하던  
 모래사장에 어죽맛...  
 아 -  
 어린 시절을  
 징검다리 가고 싶다.

## 눈이 내리면

윤영희

눈이 내리면,

누구나 이름없는 노래를 부를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 두었던 당신 이름에서 사연 한줄 품고 홀로 있는  
공간의 간이역에서 물음표를 지우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묵은 표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별을  
고하듯 오랜 그리움 한 음절씩 눈길위에 새겨 보고픈  
아련한 배냇짓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눈이 내리면,

그 집에 가고 싶습니다. 삼십리 눈길을 헤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녹슨 양철 지붕 빈 집에 가고됩니다. 서낭당  
골짜기 찌락눈 위에 허수의 내 모습을 새겨놓고 화전발을  
가로질러 산등성이 올라설쫘 쉼나무 들여놓고 매캐한  
삶을 피워 올리던 저만치 어머니의 머리 수건이 하얗게  
나부길때면 썰매를 타고 치달리던 곳 향수로만 느끼기엔  
이미 쉼나이가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먼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엔 연인이 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없이 그리워진  
가녀린 우울증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내리는 눈을 바라봅니다.

사랑했기에 우리가 주고 받던 만남과 헤어짐 겨울 철새가  
떠나버린 뒤에 느껴야 했던 먼 옛날의 추억 시골 모퉁이

---

종점에서의 쓰라린 허무, 지금은 폐경기를 앓고 있을 빈  
둥지만이 하룻밤 과득이며 홀로 한 눈 먼 사랑이 아쉽듯이  
잃어버린 애정 상담소를 찾아가 걸핍된 사랑이야기를  
되뇌어야 할 의무가 없듯이 술국이 피어 오르는 노상에  
앉아 눈이 쌓여 가고 있는 밤을 하얗게 취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제1회

# '95年 환경 문예 교실

## ▷ 수 필

- 바위를 박차고 나온 새싹처럼
- 충혼탑을 청소하고
- 우리아빠 환경처장관
- 환경보호
- 대청봉의 하소연

## ▷ 시

- 재활용품 우체국
- 버들봉어가 한 말
- 내 고향에는
- 이상한 꽃나무
- 하늘
- 지구가 살려달래요
- 이곳엔, 그곳엔



<수필부문 최우수작>

## 바위를 박차고 나온 새싹처럼

인제중학교 2학년

박 정 은

세계는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다. 토양오염을 비롯하여 대기오염 그리고 수질오염까지... 이제는 우리와 아무 적도 아닌 동물들까지 사람들은 하나씩 죽여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때 환경에 대한 스크랩북을 해오라고 과제를 내주셨을때 우리조는 다른 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시간은 넉넉히 줄테니 각 조끼리 환경에 관한 정보를 찾아 스크랩북을 만들도록 하세요”

지금은 어렴풋이 생각이 나지만 그때 우리 조원은 모두 6명으로 기억된다.

우리가 처음으로 사진기를 들고 간곳은 학교에서 흔히 보이는 강이었다.

앞강에는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환경을 파괴하는 것인줄 알고 무턱대고 사진을 2~3장 찍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뚝으로 올라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나는 쓰레기가 하나씩 쌓일때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사랑이 하나씩 쌓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차츰 쌓인 쓰레기를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였다.

휴지, 깡통, 부탄가스통 ...

난 이렇게 많이 쌓인 쓰레기를 보며 내 자신을 원망했다.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왔던 나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고 환경 파괴자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

그런데 누군가 말했다. “이걸 뭘로 태우지?”

무척 우스운 일이었다. 뒷일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쌓기만 한 내 자신을 보며….

우리는 주위의 사람을 찾아 성냥을 빌리기로 했다.

마침 몇분 전부터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아저씨가 생각이 났다. 우린 좀 쑥스럽고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쓰레기를 줍는건 자랑스럽기만 한 일인데 그땐 왜 그렇게 창피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는지….

그때 누가 용기있게 그 아저씨께 성냥을 빌렸는지 생각은 안나지만 난 그 용기를 본받아야 될 것 같았다.

우리는 아저씨께 쪽 설명을 드렸다. “환경 스크랩북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쓰레기를 쌓아 놓고 태워야 하는데 성냥이 없어서…”

아저씨께서는 고맙게도 그 쓰레기에 불도 붙여 주시고 부탄가스에 구멍도 뚫어 주셨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태우는 뒤에 우릴 서게 하시고는 사진도 찍어주시는 거였다. 우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다. 그런 후 우린 아저씨께 여쭙 보았다.

“아저씨, 저 앞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강에 돌로 독을 쌓는거야.”

우리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공사를 해서 환경 파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건 확실했다.

그리고 우린 합의를 봐서 그 사진을 환경파괴의 사진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그 아저씨는 ‘하천 환경미화감시원’임을 밝히셨다.

사진기가 일회용 이어서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니 우린 그 사진기를 산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만 했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노력 한답시고 큰 쓰레기를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되니까 말이다.

공기가 가장 맑은 곳이 인제라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무척 자랑스럽기만 했는데 ‘이것이 정말 맑은 공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낮에는 안개인지 스모그 현상인지 모를 정도의 뿌연 먼지가 떠다니고

---

인제가 관광지(설악산)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많이 다니며 휴일에는 차도 많이 밀린다. 그런데 이곳이 가장 공기가 맑은 곳?

우린 점점 우리가 살 땅을 잃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환경의 파괴는 곧 우리의 자신의 파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스크랩북을 완성했고 그 완성된 스크랩북을 보며 우린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선생님께도 칭찬을 받아 그 뿌듯함이 더욱 큰 기쁨으로 변해갔다.

꼭 칭찬을 받기 위해 정성을 다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정성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듯 내 환경에 대한 사랑 그것을 벌써 내 키만큼 쌓아 올린 것이다. 내 키만큼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부족한 만큼 난 그 부족한 양을 더 채워 나가기 위해 노력 할 뿐이다.

파괴와 오염인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양면성, 우리의 양면성을 선으로 바꿔나가는데도 누구의 도움도 아닌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있다. 하나뿐인 지구...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매연으로 죽어가는 나무와 더럽혀진 공기, 나날이 파괴되고 오염 되어가는 지구.

그리고 지금은 엘리뇨 현상까지 일어나 그 심각성을 증명하고...

난 오늘 크게 다짐을 한다.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바꿔가려는 노력, 나 하나뿐이야가 아닌 나 때문에... 라는 마음가짐. 그것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자연과 함께 해야만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환경을 살려야 한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내듯 작은 자연보호가 큰 환경보호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푸르게 만들것이다.

바위를 박차고 나온 작은 새싹과 같이 버티어 왔던 남은 자연.

바로 나의 친구 그 작은 새싹만은 영원히 잃지 않으리...

〈수필부문 우수작〉

## 충혼탑을 청소하고

인제남초등학교

장 운 주

쓰레기를 주으러 갔다. 집계와 봉지, 장갑을 들고 충혼탑으로 향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연보호, 자연보호 하고 외치며, 인제는 공기도 맑고 자연환경은 어느정도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 쓰레기가 조금만 있을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을줄 누가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나는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암체같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까? 양심에도 안 걸릴까?’ 하며 나는 저변에 있었던 선아와의 일이 떠올랐다.

선아가 쓰레기를 논에다 버려서 “걸스카우트가 왜 아무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니 선아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서 “너도 그런적 있잖아.”하면서 다시 쓰레기를 주웠다. 하긴 나도 버린적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충혼탑에도 담배꽁초가 잔디밭에 깔려있는 데다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저분한 것 같기도해서 줍기도 싫었다. 아무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어른들이 미웠다.

쓰레기를 버리는 양심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한 번 잔디밭이나 나무가 되어 누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잔디밭이나 나무들처럼 병들어 얼마나 아픈줄 알아야 다시는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줍다보니 4학년 2반 선생님 앞에 쓰레기 봉투는 점점 더 쌓여 갔다.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쓰레기 봉투를 갖다놓고 다시 또 줍고 하였지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줍처럼 없어지지 않은것 같이 느껴졌다.

---

그리고 충혼탑에 오는길 가는길에서도 쓰레기가 있었는데, 줍지를 않았다. 봉투가 모자라서 줍지 않은 것인지 줍기 싫어서 안주운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주워서 가지고 오는것이 더 나았을텐데 하는 반성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주우려니 짜증도 나고 줍기도 싫었다. 그러니까 줍는것 보다는 버리지 않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하나 짬이야 하는 마음.

아무 곳이나 쓰레기를 버리니 그런 생각에 쓰레기는 더 많이 쌓이는 것 같다.

그리고 쓰레기를 줍더라도 어떻게 처리한담. 태워도 공기가 오염되고, 땅속에 묻어도 물이 죽는다고 하고, 몇 십년 몇 백년 있어야 썩는다고 하니 나 한 사람이라도 하는 마음가짐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것이 더 좋은것 같다.

나 또한 이제부터라도 환경보호에 앞장 서야겠다.

또 우리 교실에서는 쓰레기통을 없애고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자기 쓰레기는 자기 봉투에 넣어 집으로 가져가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불편하여 불평도 했었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보호가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를 줍고난 후 깨끗해진 충혼탑을 보니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웠고, 마음은 호뭇하였다. 쓰레기를 아무곳이나 버리는 것에 대해 무심했던 나는 이번 충혼탑 청소를 하고난 후 많은 반성도 했고 배운점도 너무 많다.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선아와 나는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약속을 하였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킬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선아도 잘 지킬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한다.

약속만 하면 안될텐데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 해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보호에 대한 글짓기도 썼으니 환경보호에 더 앞장 서야겠다.

내가 버린 쓰레기 양 만큼이라도 자연보호를 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수필부문 가작〉

## 우리 아빤 환경처장관

원통중학교 2학년

이 윤 경

일요일 아침이다.

부스럭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나, 눈을 비벼댔다.

“아빠 ~”

역시 아빠였다.

이렇게 늦잠을 망친 일요일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아마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였을 것이다.

아빠는 휴일이면 언제나 운동삼아, 취미삼아 마을의 쓰레기를 주워오시고 계셨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정말 싫었다.

형광색 모자에 푸대자루며 집게며 나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느껴왔기 때문이었다.

아빠의 직업은 군인이시다.

그렇게 일주일을 바쁘게 보내시고도 체력이 남으셨는지 항상 쓰레기를 주우셨던 것이었다.

나는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것, 집는 것조차도 질색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도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도로 잠을 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다시 누워 잤다.

한참 뒤.

“윤경아, 윤경아”하고 부르는 소리에 나는 억지로 일어나 투덜거리며 아빠가 계시는 곳으로 걸어 나갔다.

“윤경아, 봉대 어디있니?”

---

아빠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제나 그렇게 크고 강인해 보이던 아빠의 손에서 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아빠,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장난삼아 깨트려 놓은 음료수병 조각을 주우시다 손을 베신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상처에 약을 바르시지도 않고 흰 붕대를 손에 맨채 그대로 밖에 나가시는 것이었다.

나는 화가나고, 또 아빠가 또다시 다치실까봐 아빠를 붙들고 말렸다. 하지만 아빠는 일이 끝나지 않으셨다며 또 대자루와 집계를 들고 밖으로 걸어 나가셨다. 나는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미화원 아저씨들도 있는데 왜 힘들여 하시며 그 일을 하시는지 난 잘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갑자기 불현듯이 무엇인가가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간 후 그 아파트가 더러워졌다는 놀러운 손님들의 말이 나를 후회스럽게 만든 것이었다.

아빠를 도와드릴 걸...

나는 내가 살아온 15년을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속에 떠올랐다.

나는 그동안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미루어 왔던 것이다. 쓰레기를 줍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아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라는 마음에 부끄러운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했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나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구나!

아빠가 그 아파트에 계시던지 안계시던지 그곳은 언제나 깨끗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꼭 정해진 사람만이 쓰레기 줍고, 착한 일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남이 아니면 내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있어도 남에게 미루는 것일까?

---

아마도 내가 모든 일을 남에게 미루어야겠다는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인제는 관광지로, 사계절 언제나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이다.

그 이유에서인지 피서철이 되면 쓰레기더미로 강가주변이 항상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작년 여름에 강가에 수영을 하러 가보니 부탄가스며 과자봉지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요즘엔 아빠는 일이 너무 많으셔서 휴일에도 부대에 나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아빠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서 쓰레기를 줍고 계신다.

나는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결심할 것이 생겼다.

아빠처럼 쓰레기도 안버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하기로 말이다. 매일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줍고 치우는 사이에 우리의 지구가 다시 살아날 것만 같은 기분에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관광객, 한국사람 더 발전해서 세계인 모두가 해야할 지구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아빠, 저요 이제부터 아빠처럼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될래요. 그리고 아빠, 아빠야말로 가장 훌륭한 환경처 장관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수필부문 장려〉

## 환 경 보 호

인제중학교 2학년

김 현 숙

내가 가끔씩 푸른 새싹이 돋아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참 신비롭다. 뭐랄까, 왠지 아득해지고 기분이 들뜨게 된다. 평소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밟고 지나가는 흙이지만 그때 만큼은 포근하게 느껴진다. 심지어 흙냄새까지 향기로워 기분이 편안해진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요즘 텔레비전에서 곧 잘 나오는 환경오염에 관한 얘기는 들을 때마다 왠지 안타깝다는 느낌과 함께 얼굴이 일그러진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오염되었을까? 부끄럽지만 사실 나도 이 문제에 관하여 생각했던 점이 별로 없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자연을 생각해 자연을 좋은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는 남아 있을테니...

앞에서 말 했듯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식 중 나는 환경오염에 관한 얘기를 가장 관심있게 보고 듣는다. 하지만 요즘 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싶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환경오염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양심이 괴로워서가 아닐까? 어쩌면 내가 느끼지 못 하지만 같은 동물로써 또 생물로써 서로 본능적으로 오염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내 안에있는 또다른 내가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같은 생물체끼리 인데 왜 그러한 고통을 주는지...

그 깨끗했던 환경을 우리의 삶터를 쓰레기더미로 만든 그들은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을까?

그들은 분명 죄인들이다. 잘못을 저지르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

죄인들이다. 아니, 그 속에 내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언제나 편리만을, 자기 중심만을 머릿속에 박아놓은 나.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 내가 바로 진짜 더 큰 죄인 일 것이다. 하지만 난 회개를 할 마음은 있다. 아니 꼭 하겠다. 내 삶터, 아니 모두의 삶터를 위해 나부터 회개할 것이다.

난 원래 우주에 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사진을 볼 기회가 아주 많았고 그때마다 눈이 둥그래진다.

이 지구가 내 눈으로도 들어갈 만큼... 벌써 그런지도 30번은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다.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가! 하얀구름 옆엔 넓고 파란 바다, 그리고 붉으레한 대륙과 섬들, 이 둥그런 지구의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색채를 띤 모습.

난 이런 하나뿐인 지구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나와 동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이 지구의 심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범죄는 언젠가는 우리에게로 되돌아와 그 보속을 치뤄야 할 것이다.

지금 인내심으로 고통 받으며 원망하고 있을 지구, 아니 모든 생물체들의 고통에 대한 보속 말이다.

후회와 사죄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허나 그들은 용서를 해 줄 것이다. 죄명없이 억울하게 죽은 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마음이 악독하진 않을 테니까...

생각해 보라. 만약 당신이 낳은 아이가 기형아라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거의가 다 우리가 망쳐놓은 환경의 영향일 것이다.

이것 또한 그들의 벌이 아닐까?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자비로움 때문에... 만약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를 물들인 사회의 영향일 것이다.

난 쓰다 남은 공책은 모아 두고 있다.

조금은 철이 들어서인지도 모른다. 쓰다 남은 공책을 볼 때, 꼭 내손으로

---

가 아니더라도 찢겨지는 공책을 볼 때는 인간때문에 틈에 잘려 넘어지는 나무를 보는 듯하다.

지금의 우리 문명은 중요하다. 앞으로의 우리 문명과 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환경과 우리는 서로 공생해야 한다.

아니 아예 우리가 환경속에서 빚지고 살고 있다고 해야 옳은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상태로 발전을 멈추고 환경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발전을 계속하며 한 번 더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아무래도 인간에게는 문명이 중요할테니 발전을 계속하면서 환경을 보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일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라 하며 환경을 무차별하게 망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일까?

자유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그 자유로 인해 피해받는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고쳐 나가야할 것이고, 나 역시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언제나 자연과 함께 불만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게 어울릴 것이다.

〈수필부문 장려〉

## 대청봉의 하소연

인제중학교 2학년

한 혜 정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름방학 며칠뒤 우리 성당 학생회에서는 하계수련회를 설악동으로 하였다.

난 들뜬 마음을 가라 앉히고, 성당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다.

차를 타고 몇 시간뒤 어느 골짜기 같은데, 네개의 성당(인제, 양구, 원통, 현리) 이렇게 모여 있었다.

그곳엔 많은물이 흐르고 있었고 우거진 숲속에 작은 이슬방울이 알알히 맺혀 있었다. 공기는 인제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이나 맑게 나에 호흡기 속으로 왕복작용을 하였다.

도착 두 시간 뒤쯤 우리조는 열심히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설거지가 문제였다. 그렇게 맑은 물속에 냄새나는 트리오 물을 넣을 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 문제였다. 그때 좋은 문제의 해결책의 이야기가 들어왔다.

이곳에는 설거지 전용 수돗물이 있는 것이었다. ‘휴, 괜시리 걱정했네?’ 하고 나는 한숨을 크게 내 뱉었다.

비가 내린다.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나에게 그건 불행한 일이었다.

다시 한 번 나는 아까와 반복적인 행동을 하였다. 우두커니 비를 바라보는데 문득 비가 예쁘게 보였다.

옆에서 보면 은빛이 나는것 같고, 정면에서 보면 검은빛을 띄었다.

한참 뒤 난 텐트에 들어가 눈을 감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우린 설악산 대청봉으로 발걸음을 다시 한 번 옮기고, 천천히 산을 올랐다.

---

그곳의 상쾌함과 신선함이 나의 이목구비를 흥분 시켰다. 너무도 힘들다.

요셉이 오빠의 손에 이끌려 오긴 했지만 이마의 땀방울은 그칠줄 몰랐고 내 몸은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나무들이 울부짖는지 하늘에서 다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마치 하소연 하듯이 퍼붓는 비는 그칠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대청봉의 하소연을 들어 줄 수만 있다면...

내려 오면서 대청봉 산길은 올라올때의 느낌과는 다른 무거운 맘이 쌓여 있었다.

그 다음날에는 대청봉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청봉의 하소연을 들어주어 대청봉의 눈물이 그만 손수건을 적시었으면 좋겠다.

〈시부문 최우수작〉

## 재활용품 우체국

신남중학교 2학년

김 옥 희

우리집은 우체국입니다.  
곱게 묶은 신문지는 폐지수집소,  
세수란 우유팩은 속달이구요,  
찌그러진 깡통은 공장행이지요,  
우리아빠 잘 드시는 맥주병은요,  
주문배달 할려고 모아두지요  
주소는 없어도  
우리엄마 지장 찍어  
날마다 날마다 배달합니다.

〈시부문 우수작〉

## 버들붕어가 한 말

귀둔초등학교 3학년

김지연

냇가의 바위틈에  
빨간 철쭉꽃을 구경했는데  
창백한 버들붕어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찾아와  
“아가씨”  
숨이막혀 못 살겠어요  
냄새가 나서 못 살겠어요  
사람은 나빠요 불평을 했어요.

“붕어야,  
왜 사람이 나쁘냐.”  
“우리가 사는 강이  
아름답다고 놀러왔다  
도시락 찌꺼기, 술병, 비닐봉지를  
마구 버려요.  
나는  
지각없는 사람이 싫어요.

아가씨 같이  
자연을 아끼는 사람이 좋아요.”

---

“옛날의 맑은물이  
어느곳에 있나하고  
한강에서 인제 귀둔까지  
찾아왔건만  
맑은물은 없어요  
나는 또 찾아갑니다.”  
꼬리를 살래살래  
머들봉어는 인사하고  
검은 물 속으로  
가 버렸어요.

<시부문佳作>

## 내 고향에는

화학지원대 이병  
이 동 근

내 고향에는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수  
개울가의 물고기들  
산골짜기의 머루와 다래  
들판의 한가히 풀을 뜯고 있는 소들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있다.

나는 고향이 좋다.

이곳 도시에는  
하늘의 시커먼 연기  
검은 강물의 등굽은 물고기들  
거리를 떠도는 낫익은 쓰레기들  
바쁘게만 움직이는 사람 사람들  
어른들의 추악한 고함소리가 있다.

나는 밤하늘의 별이 많은 고향이 좋다.

〈시부문 가작〉

## 이상한 꽃나무

서화초등학교 3학년

장미경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하얀,  
빨강,  
검정,  
나뭇잎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때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바람이 불면  
손을 흔들며  
몸부림 치네

가까이 가 보니  
나뭇가지에  
하얀종이  
빨간 쓰레기  
검정 비닐조각  
보기싫은 꽃이 피었네

---

누가 피웠나?  
얼마전에  
내가 무심코 버린  
그 비닐 봉지가 아닐까?  
갑자기  
내 얼굴에  
빨간 꽃이 피어오르네.

〈시부문 장려〉

## 하늘

화학지원대 일병  
서정훈

파아란 하늘아래  
하늘을 쳐다보는 한 꼬마의 눈동자는  
이세상 그 무엇보다 맑았다.

파아란 하늘을 쳐다보며  
무엇을 생각할까  
빠져 들 듯한 맑은 눈동자속에  
파아란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른 하늘로 변해간다.

어느새 꼬마는 성인이 되어  
파아란 하늘을 쳐다본다.  
이제는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꼬마의 맑은 눈동자를  
파아란 하늘을 찾고있다.

빛을 잃은 꼬마의 눈동자속에  
파아란 하늘은 더욱 짙고 어두운 하늘로 변해간다.

〈시부문 장려〉

## 지구가 살려달래요

인제남초등학교 4학년

김은순

옛날의 깨끗한 강물  
지금은 쓰레기로 오염되고  
옛날의 깨끗한 들길  
지금은 쓰레기로 쌓였어요.

마구버리는 쓰레기로  
냄새가 나고  
자동차 매연으로  
공기가 탁해요.

도시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로  
우리를 괴롭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구도  
병들었고  
지구가 살려달래요.  
병을 고쳐달래요.

옛날의 깨끗한 강  
옛날의 깨끗한 들길을  
만들어서

---

고쳐달래요.

가까운 곳도  
걸어서 가고  
쓰레기도 마구버리지 말고  
분리수거를 해야되요.

깨끗한 강물  
깨끗한 들길  
매연 없는 한국  
쌓이지 않는 쓰레기

모두가 지구를  
살려낼 수 있대요.

모두가 지구를  
고쳐 줄 수 있대요.

우리모두 깨끗하고  
매연없고 자연이  
아름다운 한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요.

〈시부문 장려〉

## 이곳엔, 그곳엔

화학지원대 일병  
신 환 수

내가 살고싶은 이곳엔  
맑은 웃음소리가  
신선한 새들의 얘기 소리가  
활기찬 그대의 몸짓소리가  
넷물과 조약돌의 사랑소리가  
하늘을 손짓하는 나무의 소리가  
그대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려주던 그림소리가  
서로모여  
장난치는 모습이 있다.

내가 살고싶은 그곳엔  
한가로이 밟가는 소의 울음소리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소리가  
별들과 구름의 다툼소리가  
꾸벅꾸벅 새들의 코고는 소리가  
풀벌레 울음 사이로 들려오는  
연인의 정다운 소리가  
서로 모여  
아웅다웅 뒹구는 모습이 있었다.



제2회

## '96年 환경 문예 작품

### ▷ 수필

- 우리들의 작은 실천
- 자연사랑
- 환경숙제
- 나라 사랑하는 첫 걸음
- 해맑은 하늘이 있는 아침
- 자연을 통해 꽃핀 우정
- 할머니의 유산
- 환경보존 우리의 책임
- 우리들의 푸른쉼터
- 무소유
- 우리와 함께 한 자연

### ▷ 시

- 힘을 모으자
- 보러오세요
- 사람들의 무관심
- 작은 생명
- 환경보호
- 아이에게
- 실개천
- 꿈먹는 비둘기



<수필부문 초등부 최우수작>

## 우리들의 작은 실천

한계초등학교 6학년

손진숙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유나니, 나 진숙인데 오늘 녹색환경반 하는 날이니까 민예단지로 나와. 그리고 승현이랑 순화한테 전화해. 난, 원중이랑 시내한테 연락할게. 그럼 안녕”

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녹색환경반’은 작년부터 실시하였다.

작년에는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지겹고 싫었다.

그러나 6학년이 된 나는 조장이라는 큰 짐을 지게 되었다.

“엄마, 녹색환경반 옷 어디 있어요?”

“너 서랍에 있어”

나는 서랍에서 깨끗한 녹색 조끼와 빨간 모자를 가방에 넣고서 집을 나오려 하는데

“진숙아, 너는 청소를 하러 가는데 그 옷이 뭐니? 청소를 하면 청소하는 옷답게 입어야지!”

“녹색환경반 옷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옷을 왜 그렇게 입어요. 창피스럽게...”

나는 엄마께 이렇게 말을 하고는 집을 나섰다.

“우리 마을은 깨끗한데 왜 녹색환경반을 해야 하는거야?”

나는 불만스럽게 혼자 이야기를 하며 약속 장소로 갔는데 약속 장소에는 승현이 밖에 나와 있지 않았다.

---

“아! 너 정확히 1분 늦었어”하고 승현이는 나를 노려 보았다.

“야, 그러는 너는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냐. 이제 몇 주일 지나 봐라.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안왔니?”

“응”

우리 둘은 친구를 기다렸다.

“어. 저기온다”

우리 둘은 친구들이 오자. 서로 웃으며 녹색환경반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쓰레기를 주워서 깨끗이 만들 장소는 관광지의 휴게소인 ‘민예단지’였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봉지에 더러운 쓰레기를 담았다.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어른들이 무심코 버린 맥주캔과 담배꽂이가 제일 많았다.

“유나야, 어른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먼저 환경보호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왜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구경하러 왔으면 암전히 구경만 하고 갈것이지 왜 남에 고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쓰레기통도 바로 옆에 있는데…”

“맞아. 어른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하고 유나는 무엇인가 통했다는듯이 나와 맞장구를 쳐 주었다.

“어이. 지켜워” 남자 아이들이 지겹다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자 난

“그러게 너희들도 쓰레기 버리지마. 나도 버린적이 있긴 하지만… 그만, 이야기 하고 우리 빨리 청소하자.”

말많은 우리들은 말을 줄이고 청소를 계속했다.

유나와 난 청소를 잘한다고 작년어 어떤 예쁜 언니가 음료수를 주셨다.

고마운 언니를 생각하며 나는 더욱 열심히 했다.

우리들은 일지를 쓰며 청소는 마무리 지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에 민예단지가 더욱 깨끗해 진것 같았다.

앞으로는 녹색환경반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다짐했다.

---

그래서 어느 곳보다 더욱 깨끗한 곳을 만들어야겠다.

또 조장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열심히 환경반 일을 할 것이며 쓰레기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수필부문 초등부 우수작〉

## 자 연 사 랑

인제남초등학교 3학년

정 민 영

지난 일요일 엄마와 나는 목욕준비물과 샴푸 린스를 챙겨서 목욕탕으로 갔다. 깨끗이 씻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걸었다.

신이 나서 건다보니 목욕탕에 도착하였다.

나는 얼른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다.

눅눅한 공기가 힘을 빠지게 하였다. 하수도를 향해 흐르는 거품들.

목욕을 한 후 머리를 감게 되었다.

그런데 엄마가 샴푸를 손에 하나가득 담아서 내머리에 ‘턱’하고 얹었다.

이렇게 많이 써도되나 하고 걱정되어서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샴푸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거야?”

나의 질문에 엄마는

“깨끗이 씻으려면 그래야지.”하며 내 머리를 감겨 주셨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역시 거품의 양이 많았다.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내 머리가 솜사탕 머리 같았다.

그 일이 있고 몇 일이 지났다.

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가 요즘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되었으니, 우리모두 환경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서는 자연환경을 살리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머리감는 샴푸를 대신하는 방법도 이야기 해 주었다.

머리감는 샴푸를 대신해 쓰는 방법은 샴푸대신에 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더 더욱 깨끗이 머리를 감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오랫동안 깨끗함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하였다.

---

그 말을 듣고보니 솜사탕같이 일던 삼푸방울이 생각났다.  
난 내가 나쁜짓이라도 한것처럼 얼굴이 빨갱게 물들었다.  
이제부터는 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 한 두방울을 떨어뜨려서 머리를  
감아야겠다.

난 이 방법을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엄마는 참 좋은 방법이라면서 당장 비누로 머리를 감겨주시고  
식초로 헹구어 주셨다. 머리를 감겨주시면서 우리 저금통이 웃겠다고 하  
셨다.

절약이 되어서 저금통도 살이찌고 자연도 푸르게 됐다면서 또, 내가 대  
견하다며 엄마는 기뻐하셨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도 기뻐다.

이젠 자연 환경을 더욱 더 사랑하겠다는 우리 엄마의 말씀속엔 다짐과  
함께 행복이 보였다.

〈수필부문 초등부 가작〉

## 환경숙제

인제남초등학교 6학년

정수정

지난 금요일. 선생님께서 예쁘게 복사된 종이를 나누어 주셨다.

그 종이에 더러운 환경이나 깨끗한 환경을 담아 사진을 찍어 오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 숙제가 별로 맘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자꾸 강조하시는 선생님을 보니 안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거의 억지로 하듯 사진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더러운 환경의 사진보다 깨끗한 환경사진을 찍기로 마음먹고 강가쪽으로 걸었다. 하지만 강가로 내려가는 길에서 찍은 사진들은 모두 쓰레기가 널리 퍼져 있는 더러운 환경사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악취에 기분이 나빴다. 계속 강가쪽으로 걸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이 더러운 환경사진 뿐임을 알았다. 또, 길거리에는 늘 내가 버린 쓰레기까지 널려있는 것을 보니 창피해졌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빨리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강가쪽으로 내려가서 코를 막으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어느새 더럽게 변해버린 환경에 놀라웠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관에 맡겼다. 환경사진 찍은 것이 얼마나 되나 세어보니 10장. 그중 더러운 환경사진은 8장. 깨끗한 환경사진은 2장이었다.

난 정말 기가 막혔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 우리 인제가 깨끗한 환경사진보다 더러운 환경사진이 더 많다니 정말 기가 막혔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우울했다.

아름답다는 인제가 이런 추악한 몰골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니 순간 ‘물

---

맑고 경치좋은 인제'라는 뜻말에 부끄럼이 느껴졌다. 하지만 책을 읽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더럽게 된 인제는 바로 우리의 잘못이고 더럽게 된 인제를 구할 사람도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

사진을 찍으며 실망했던 우리 인제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지만 더럽게 된 인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에 마음 깊은 희망이 솟아났다.

우리 인제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솟았다.

그후 난 엄마를 도와 분리수거도 하고 세제도 적게 쓸 뿐더러 종이와 모든 학용품을 아껴 쓰려고 노력한다. 마음대로 잘 되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이 몸에 배어 가는 것 같다.

나의 작은 노력이 우리 인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밑받침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다음엔 사진기를 들고 깨끗한 강가에 나가 자신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길 기대한다.

〈수필부문 중등부 최우수작〉

## 나라 사랑하는 첫 걸음

원통중학교 3학년

이 정 선

요즘 우리사회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 혼자만 잘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는 환경문제인 것 같다. 자기만이 편하게 생활하겠다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이다. ‘나하나 썩어야’라는 생각으로 생활하는 요즘 사람들이 있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젠가 가족끼리 공공장소에 놀러간 적이 있었다.

한참을 재미있게 놀고나니 목이 말랐고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 음료수 하나를 사서 마시고 나는 깡통을 길에다 그냥 버리고 돌아서는데 “학생, 학생”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난, 아니겠지’하고 그냥 버리고 가려는데 계속 부르는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네”하고 할아버지께 다가갔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 이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되나.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은 장식으로 달아 놓은줄 알아. 왜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것이야. 빨리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라.”하시는 것이다.

그때서야 나는 그 할아버지께서 나를 부른 이유를 알았고 조금전에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때 나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내자신을 반성했다기 보다는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께 혼났던 일에 더욱 창피해 했다.

결국 내손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당시

---

반성할줄 모르고 겉모습만을 창피해 했던 내자신이 부끄러워 진다.

그때 그 할아버지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난 아직도 내가 한일에 대해 반성은 커녕 계속 쓰레기를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 가지 느낀것이 있다.

내가 한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주위사람은 생각도 하지않고 자기만 편하자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게으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거기서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은 나였다. 하지만 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자신에게 부끄럽다.

지금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야 말로 사소한 일에서 부터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인인것 같다.

나는 알게됐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첫걸음인 것이다.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것, 쓰레기를 줍는것. 이와같이 우리의 책임이 지켜질 때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수필부문 중등부 우수작〉

## 해맑은 하늘이 있는 아침

기린중학교 2학년

조은미

“은미야, 어서 일어나렴. 벌써 7시 30분이야.”

“아암... 조금만 더 자구요. 네엣? 7시 30분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난, 늦잠을 자고 말았다.

“해는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라니깐!” 투덜투덜 해를 원망하며 황급히 집을 나왔다.

교문으로 들어서니 아니 이럴 수가!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교실로 정신없이 뛰었다. 후유... 다행히 지각은 아니었다.

책가방을 풀으며 생각해 보니 오늘은 가족끼리 고모댁에 가는 날이다. 야호. 신난다!

첫시간 대충대충. 둘째시간 그럭저럭. 셋째시간 호지부지. 넷째시간 속닥속닥...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 토요일 이어서 네시간만 하였다.

서울로 가는 길은 주말인데도 그리 막히진 않았다. 그런데, 서울로 들어서니 차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성급한 차들이 뱅뱅거리고, 경찰관의 눈을 속이고 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들도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 난 창밖을 보았다. 근데 세상에...

거리에서 제각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콩나물 시루 속에 꽂 차있는 콩나물들 같았다. 내가 사는 농촌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이다.

---

오랜 기다림끝에 고모집에 도착했다. 우와….

고모가 사는 아파트는 굉장히 커서 하늘과 닿아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낮인데도 하늘에 안개 같은것이 잔뜩 있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고모, 저 은미예요.”

“어, 은미구나. 어서 들어오렴. 어서 들어오세요. 은미가 몰라보게 큰 것 같애.”

“피! 고모는!”

고모께서 과일을 가지고 오셨다.

“고모, 근데 서울 하늘은 왜 이렇게 안개가 잔뜩 있어요?”

“음. 그건 스모그현상 때문이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쁜 가스가 공기중으로 올라가서 그래.”

“그렇구나.”

“참. 은미야, 어디 가고 싶은 곳 없니?”

“음… 롯데월드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롯데월드’선전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 번 꼭 가보고 싶었다.

“그럼. 아빠, 엄마는 피곤하실 테니까 고모하고 돌아가자.”

“좋아요. 고모!”

너무너무 신났다. 더욱이 롯데월드가 그 근처에 있어서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았다. 롯데월드는 주차장만 해도 엄청나게 컸다.

롯데월드는 실내에 있는 놀이공원이다. 모두 3층까지 있는데 그 놀이기구를 다 탈려면 삼일정도 걸릴 것 같았다. 야간에도 개장을 하여서 참 좋았다.

고모께서 팝콘도 사 주셨다.

“은미야, 맛있게 먹어.”

“고맙습니다. 고모.”

먹고나서 빈 봉지를 버리려고 보니 여기저기 쓰레기가 마구 널려 있었다.

---

그래서 ‘나도 버려도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구석에다 버리려 하는데 고모께서 호통을 치셨다.

“은미야, 너 지금 그거 버리려고 하는거니?”

“네”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여기에 버리니?”

“에이, 고모는 모두가 다 아무데나 버리는데 뭐 어때요?”

“은미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쓰레기 하나 하나가 우리 국토에 함부로 버려질 때마다 얼마나 자연이 파괴될지 생각해 봤니?”

“고모, 근데 여긴 실내잖아요”

“건물안도 마찬가지야. 그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선을 주게되고 치워지지 않으면 썩어들어가 공기중에 부패균이 떠돌게 된단다.”

“잘못했어요. 고모”

나는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즐거운 시간을 좀더 가진뒤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너무 깊어 오늘밤은 서울에서 보내야 한다. 잠자리를 뒤척이다 잠이 안와 창밖의 서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킁킁하다. 강원도 내가 살던곳의 아름답고 선명한 별들은 없고 킁킁한 하늘위에 가끔 너무나 희미한 별들만 뜨문뜨문 있을뿐...

서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의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강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 이 국토 이 강산은 결코 우리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이란걸 우린 알아야 한다. 병들어 가고 있는 이 나라 아니, 이 지구를 우린 보호하고 아껴야 할 것이다.

벌써 시계바늘이 자정을 지나고 있다.

오늘 밤 꿈에 난 해맑은 하늘이 있는 아침을 바라보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수필부문 중등부佳作〉

## 자연을 통해 꽃핀 우정

원통중학교 3학년

김 성 은

1년 전의 일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나는 친척집으로 향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보다 훨씬 더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난 더 이곳을 와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한 번도 와 본적이 없는데라 난 더 설레이고 기대되는 날들이었다.

오랫만에 와 보는 곳이어서 생소한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건 자연의 푸르름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친근감이 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도 들었다.

내 예감이 맞았는지 난 내 맘에 꼭드는 내 또래의 한 소녀를 알게 되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친척집 근처에는 작은 분교가 있다.

지금엔 학생들이 모두 떠나고 없지만, 그래서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난 금새 신비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에 사로잡혀 있었다.

분교의 뒷동산에서 난 살아있는 자연을 느낄 수 있었고 그속에 피어나는 이름모를 꽃들을 많이 접했다.

난 그순간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무언가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듯한 푸른 빛이 감도는 꽃을 보았다. 난 보는 순간 꺾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쁘다는 생각에 무심코 손은 꽃으로 향해 있었고 그때 누군가가 “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난, 얼핏 들었기에 잘못 들은 말이라며 무시하고 꽃을 꺾으려 했으나 이내 “애!”하는 소리가 이번엔 좀 더 확실히 들

---

렸다. 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흰색 치마에 하늘을 연상케하는 파란색의 윗옷을 입은 있는 처음보는 소녀였다.

그 소녀는 나에게로 다가와 물었다.

“너, 지금 뭐 하는거니?”

난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말도 하지 못한 채 앞에 보이는 나뭇잎 하나만 만지작 거렸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소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다.

“나도 이 꽃을 좋아하지만 나만 보기 위해서 꺾진 않았어.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고 다른 사람들중 이 꽃을 보지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옳은 말이라는 건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소녀 때문이었으리라.

마치 자기는 자연을 한 번도 훼손한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소녀와 첫 만남에서의 느낌은 그랬다. 오히려 그곳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정말 그 소녀는 자연에 대해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그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다. 그 소녀는 자연의 신비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산에 가서 맑은 계곡에 손을 담그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 쉬기도 했다.

계곡의 물을 볼때면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도시에서는 일 년 내내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이 물을 여기서는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뭇가지 새들이 지저귀는 것은 노래를 한다고 해도 적절한 표현이 될 듯 싶었다. 난 오히려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싶다. 울창한 숲 사이로 흘러나오는 새들의 노래.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다.

---

그곳에서의 소녀와의 마지막 만남이 있던 날.

난 가슴아픈 일을 맛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슬픔도 동시에 밀려 들어왔다. 소녀와 난 시장엘 갔다. 우리는 구경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사먹기도 했다. 오후 2시쯤 논 길을 걸어오는데 논가에 무엇인지 하얀새가 하늘을 날기위해 발버둥을 치는것을 보았다. 소녀는 백로라며 놀라서 급히 달려가 백로를 안았다. 소녀의 눈에선 금방 무엇인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난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오히려 난 당황을 해서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소녀는 한참 뒤에야 눈물을 머금고 일어서서 백로를 안고는 어딘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소녀는 말했다.

백로가 죽은 건 자연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난 그말을 듣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나는 이곳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백로가 자연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소녀의 말을 듣고 실망감도 없지않아 있었다. 이 마을도 어디선가 점점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문득 백로를 안고 울었던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흘린 눈물이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자연의 안타까움 때문이었나 보다.

나의 눈에도 그 눈물이 맺힌다. 우리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외딴곳에 그 백로를 물어 주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그 죽음은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백로는 두 번째 죽음이었다.

몇 달전에 이미 한 마리의 백로가 자연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니, 자연이 그 백로를 외면했다고 해야 더 옳은 표현인 것 같다.

백로를 물어주고 돌아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고가지 않았다. 침묵의 연속일 뿐이었다.

버스를 기다렸다. 처음 대화가 오고갔다.

“미안해. 그런 걸 봐서 기분만 이상해지고...”

소녀가 말했다.

“아니야, 오늘 일로 더 많은 걸 알게 됐어. 다음에 또 올게. 그때도 나랑

---

놀아야 돼. 알았지.”

나는 말했다. 그리고 웃음지으려 했지만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소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버스가 왔다. 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느라 무척 힘들었다. 창문 밖으로 비춰지는 소녀의 마지막 모습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맴돌았다.

처음 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손을 흔들며 그렇게 헤어졌다.

난 그곳에 다녀온 뒤로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 자연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도 보호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좀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생활했으면 하는게 하나의 바람인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소녀가 순수했던건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인것 같다.

우리 모두 그 소녀처럼 순수해질 수 있을텐데...

<수필부문 고등부 최우수작>

## 할머니의 유산

기린고등학교 2학년  
고 해 숙

“아유, 어머니 또예요. 이젠 제발 그만좀 하세요. 집이 온통 박스에 빈병 투성이예요. 이러다 아예 집이 고물상으로 변하겠어요.”

“아니, 이게 뭐 언제서 그러냐. 원 애라구두. 모두들 버리기만 하니 그렇지. 아직 쓸만한 것도 죄다 내다버리기만 하니 원. 그것도 그냥 곱게 버리면 좀 좋아. 쓰레기통도 허다한데 왜 꼭 길바다에다 버리누. 에미두 뭐 함부로 버리지 말구 좀 애끼구 그래라. 그거 아껴서 큰 부자되는 건 아니지만, 아! 우리 강산이 드러워지잖어!”

다른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우리 가정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루라도 집이 깨끗할 날이 없다는 엄마의 불평섞인 푸념과 요즘것들은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길바다에 죄다 쓰레기를 버려 밖에 나가면 쓰레기에 치여 정신이 없다는 할머니의 따끔한 세태 비판으로.

할머니. 단 한번도 샴푸로 머리를 감으신 적이 없고 가루비누를 쓰는 엄마를 호통치시는 우리 할머니의 쓰레기 줍기는 새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침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휘적휘적 거리로 나가셔서 자루에 쓰레기를 모아담고 박스를 수집하며 빈 깡통을 주우신다. 당신의 키보다 한 자나 더 큰 쓰레기 자루는 동네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시거나 청소부 아저씨를 드리고 차곡차곡 접어 묶은 박스와 찌그러트린 깡통 자루는 양옆에 끼고, 개산장군처럼 위풍당당히 집으로 돌아오신다.

대문을 여는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않음에도, 할머니는 아랑곳 없이 가지고 오신 박스와 깡통을 뒷뜰에 쌓아 놓으신다.

---

할머니가 살아내신 세월의 무게만큼 쓰레기가 쌓이면. -정확히 보름에 한 번-

우리 가족은 총출동해 뒷뜰에 모인 박스와 캔, 빈병 따위를 앞마당으로 옮겨 놓는다. 고물상에서 차가 오기 때문이다.

수염이 덩수룩하고 옷이 께제제한 고물상 아저씨는 이렇게 장한 할머니는 이 장사한지 20년만에 처음이라 하시며 오시기만 하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신다.

“누군가 할 일. 누구나 해야 할 일. 할 일 없는 늙은이가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 그러누.”라고 하시는 할머니.

그러나 그것은 분명 뿌듯함이 똑똑 베어져 나올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할머니가 이런 고물들을 팔아서 얼마를 받으시는지 여태 받으신 돈은 다 무엇을 했는지 정말 그런 형편없는 쓰레기들을 팔아도 돈이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간혹 대문 옆이나 화장실에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꼬깃한 돈을 세고 계시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어깨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제와서 얘기지만 우리는 별로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는 세제를 마음대로 못 쓴다고 불만이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샴푸를 사용하지 못해 정말이지 죽을 맛이였다.

게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학생을 마구 호통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거리에서 보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완전히 스타일 구겨지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다고 아우성쳐도, 창피스럽다고 말려도 매일 거리며 강, 유원지로 돌아다니시며 쓰레기를 주우시던 할머니. 이 장사 20년 만에 이런 할머니는 처음이라는 고물상 아저씨의 말씀에 가슴 뿌듯해 하시던 할머니.

꼬깃해진 돈을 침을 발라가며 세시던 할머니가.

개도 짓지 않고 소쩍새도 울지않던 그 새벽. 아무리 쿵쾅거리고 아무리 통곡을 해도 할머니는 두 번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다.

제일 많이 다투고 제일 많이 불평하던 엄마. 제일 많이 우시고 제일 서러워하셨다.

---

할머니가 떠나신 후 동네 사람들은 얘기한다.

‘누더기 할머니(할머니의 별명)’가 안 계시니까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 못 살겠다고. 있을 땐 늙은이가 힘도 좋아 청승이려니 했는데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다고.

그러니 무엇보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운 변화를 보인것은 엄마다.

이 고물들만 없으면 두 다리 쪽퍼고 살겠다고 엄마가, 가루비누나 마음대로 넣고 트리오나 실컷 짜서 설거지좀 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엄마가 이젠 밀가루로 설거지를 하시고 빨래비누로 빨래를 하신다.

할머니.

강물을 퍼마셔도 아무런 탈이없고 그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놀아도 피부병이 걸리지 않던 시절을 사셨던 우리 할머니. 누구네 처럼 수 백억의 재산을 물려 주시지도 않으셨고 또 누구네 처럼 어마어마한 땅을 물려 주시지도 않은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깨달으셨던 것 같다.

이 강산 이 강토가 다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땅이란 것을. 나 하나라도 작은 일에 뜻을 두고 실천하면 온통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강산을 조금이나마 치료할 수 있으리란 것을.

<수필부문 고등부 우수작>

## 환경보존 우리의 책임

인제종합고등학교 2학년

오 미 진

이제껏 자연은 인간에게 모든것을 주어오고 우리 인간은 그런 자연을 아무런 대책없이 개발해왔다.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기를 희망했고, 그러기 위해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필요해졌고 과학의 발달과 경제성장 그리고 거침없는 개발이 이루어졌다.

큰 길이 뚫리고 여기 저기에 공장들이 들어섰다. 쏟아져 나오는 운명의 이기속에서 인간의 삶은 풍요로운듯 했다.

하지만 풍요로운 삶만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자연은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인간들이 많은것을 원할수록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

맑은 물속을 자유로이 누리던 물고기들 대신 탁하고 악취나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 참으로 슬픈일이다.

심지어는 강 바닥까지 썩어가고 있다.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던 물을 팔아먹던 사람들도 생겨났다. 언젠가는 공기도 사야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이 푸르고 물이 맑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명경지수란 말도 있지 않은가.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거울같다는 뜻이다.

그런데 늘어나는 쓰레기들과 세제 폐수로 인해 맑은 물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

우리는 '89년 한강 오염사건. 낙동강 폐놀오염사건. 영산강 오염사건 등 크고 작은 강물 오염사건 등이 터지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약수를 길어다 먹고 심지어는 비싼 광천음료수를 사서 마시기도 한다.

누구나 깨끗한 물을 원하지만 깨끗한 물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은 물 마실 자격조차도 상실해 가고 있다.

맑은물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아껴쓰는 일이고 가정에서는 항상 세제의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니, 노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겐 흐르는 물조차도 보여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오염되어 현대인들은 가짜 무공해 식품에도 감격할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무던하던 자연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오랜 노력뒤에 인간이 얻은것은 무엇인가.

쓰레기더미 위에 앉아 부자놀이 하는것이 참다운 풍요로움일까?

옛날에는 생활양식이 바뀐 지금 현대사회에서 쓰레기문제는 환경문제 못지않게 심각성을 띄고 있다.

쓰레기의 종류또한 대단하고 그 양은 엄청나다.

쓰레기는 크게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로 구분된다고 한다. 산업쓰레기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은채 매립되면 그것의 사후대책이 이만저만 어려워운게 아니라고 한다. 기업들이 비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자연을 생각한다면 쓰레기 처리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해야할 것이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재활용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에대한 환경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대인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일회용품의 홍수에 묻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일회용이라 부르기조차 어색한 이름들 나무젓가

---

락, 컵라면, 음료수캔, 세면도구 심지어는 속옷까지 그 대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것들은 대부분이 비닐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땅에 묻혀도 분해되지 않고 결국 토양오염을 일으킬 뿐이다. 이로인해 시달린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결국은 농약으로 뒤범벅 될 것이다.

쓰레기 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이 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쓰레기에 묻혀 버릴지도 모른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야 말로 우리가 모두 앞장설 수 있는 환경보호 운동의 가장 쉬운 실천이다.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더욱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늦기전에 지금 우리모두 환경보호에 앞장섭시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내손으로 밝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시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수필 일반부 최우수작>

## 우리들의 푸른침터

기린면 현2리 3번

김정복

이른 새벽. 남편과 함께 샘터를 향해 아침 산보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실내의 탁한 공기 속에서 빠져나와 문 밖으로 나서면 어깨위로 내리는 찬 이슬마저도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젠 잠시후에 아침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면 고요한 산 속 마을의 맑은 공기는 더욱 투명한 빛깔로 우리가 숨쉬는 공간을 감싸 안을것이다.

좁은 오솔길을 벗어나 한길쪽으로 걸어 나가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선 이웃들의 구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길 옆으로 흐르는 진동천 물줄기는 수천년의 긴 세월동안 어는 한 곳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 맑은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또 하루의 시작을 위해 쏟아지는 새벽잠을 애써 쫓아내듯 소리내며 흐르고 있다.

군데군데 자리잡은 민박집 마당에는 벌써 외지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쉬고 있는듯 낯선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다.

옛부터 인적이 드문곳에 살아온 이 마을 사람들에게 외지의 차량과 손님들은 늘 반가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민박집의 낯선 차량들이 반갑게 여겨진다.

오염이나 공해라는 흔한 말들이 조금도 실감이 나지않는 우리들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근래에 들어 더욱 더 축복받은 땅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소양강 줄기의 발원지인 내린천이 있고 금세기 최후의 원시림으로 남아 있다는 진동천 계곡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이곳은 새로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 특유의 경치와 소산물로 산과 들이 장식되는 곳이기도 하다.

---

온 마을을 고요로 덮은듯한 은백색의 눈이 겨울을 장식해 주고 봄 기운에 밀려 떠나갈 즈음이면 추운날을 인내했던 진달래의 화사함이 동산을 뒤덮고, 봄을 거쳐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는 취나물, 두릅, 고사리 등 이름만 들어도 식욕이 돋우어지는 산채들이 풍성하다.

검푸른 숲과 뜨거운 태양빛이 어우러지는 여름이면 집집마다 옥수수 삶는 냄새가 구수하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향그러운 송이버섯 내음을 싣고 온 가을은 어느새 산줄기 자락마다 원색의 화려한 수채화를 그려놓기도 한다.

밀바다의 작은 모래 알갱이 까지도 흰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 속에는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열목어를 비롯한 물고기 왕국의 가족들이 무리지어 행복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다.

더운 계절이면 물밀을 기어다니는 다슬기를 주우며 동네 아이들은 소박한 정서를 키운다.

청소년 비행이니 청소년 문제니 하는 말들이 온통 세상을 들쭉거리도 이곳의 청소년 아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의연한 자세로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자라나고 있다. 그들의 올바른 성장은 평온하게 감싸주는 아름답고 깨끗한 대자연의 환경속에서 숨쉬며 생활하고 있는 덕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온갖 생명체들에게 우리의 자연은 안락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사해주고 고마울뿐이다.

그러나 얼마전 부터 먼곳 도회지로 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혼탁한 바람은 우리의 깨끗한 터전을 자꾸 넘보고 있다.

숲이 우거진 곳에 몇 백년째 뿌리를 내리며 그늘을 드리우던 거구의 나무들이 애처롭게 몸통이 잘려지고 굳건한 자존심으로 계곡을 지키던 덩치 큰 바위는 포크레인 이라는 거대한 괴물앞에 사정없이 파헤쳐져 나뒹들고 있다. 그것들이 내어쫓긴 자리에는 평평하게 집터가 다듬어지고 외양이 번듯한 집채가 하나씩 세워진다.

어떤곳은 농가주택으로 위장한, 있는 사람들의 별장으로, 때로는 간판도 그럴듯한 고급 음식점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그리고, 집밖으로 일단 흘러 내보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마구

---

잡이로 그들이 흘려보낸 오수는 맑은 물에 자꾸 희석되어지고 그런만큼 우리의 소중한 젓줄은 오염되어 갈 것만 같다.

이제 불별 더위가 쏟아져 내리는 여름이 오면 공해와 피로에 지친 도회지의 많은 이들이 잠시동안의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게 되리라고 짐작된다.

사람들이 그리운 이고장 사람들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찾아오는 이들이 혈육이든 지인이든 아니면 낯선 이들이든 사람을 반기는 이고장 사람들이 소박한 인정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마음껏 쉬었다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해마다 여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조물주에 의해 인간에게 맡겨진 신비로운 대자연의 품안에서 외지인과 토박이들 모두 함께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말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사람이 북적대던 여름이 저만치 밀려가고 나면 우리는 많은 피서인파가 어우러져 생기가 넘치던 물가나 산계곡 여러 군데에서 실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는 한숨을 짓게된다. 물 아래에 두껍게 가라앉아 고여있는 음식찌꺼기와 먹고 마시고 버린 빈병조각, 빈깡통, 엉켜진 비닐, 종이뭉치, 쓰고버린 일회용 아기기저귀 등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쓰레기더미들이 악취를 풍기며 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내놓은 오물은 모든사람 하나 하나가 잘 마무리 하고 떠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양의 쓰레기가 쌓아서 썩어지고 있지는 않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고, 버리고 간 쓰레기만큼이나 많이 내동댕이 쳐진 그들의 양심도 그 마음속 어느 구속에서 부패되어 가고 있을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인상깊게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몇 년전의 일이었다.

안양에서 유리점을 하시는 외삼촌께서 이웃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친구분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피서를 오셨었다. 가까운 내린천변에 자리를 잡고 며칠을 보내신 외삼촌과 친구분의 가족들은 떠나실 차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가지고 왔던 짐보따리들을 한 가지씩 차에다가 챙겨 넣으신 외삼촌 친구분은 미리 준비해서 차 안에 넣어 두었던 현 푸대자루에 비닐

---

봉지 봉치들을 차곡차곡 담고 계셨다.

먹다남은 부식거리들을 챙겨놓고 있으려니 생각하며 바라보는 내게 외삼촌은

“저 사람, 저 버릇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니까”하고 웃으면서 한 마디를 던지셨다.

알고보니 그 분은 며칠동안 가족들이 쓰고난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분리해서 올망졸망 봉지에 담아 두셨던 것이다.

썩혀서 화단의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채나 과일껍질과 음식찌꺼기,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빈병이나 캔종류, 아주 버려야 할 것 등 가지가지로 분류해서 담아 두었던 것을 챙기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가 처리할테니까 두고 가시라는 만류를 끝내 뿌리치고 차 속 구석자리에 쓰레기자루를 넣어 가지고 싣고 떠나시던 아저씨의 모습은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가끔 외삼촌과 전화통화를 할때면 그분의 안부를 묻게된다. 여행을 즐기시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가는곳마다 종량제 봉투와 푸대자루를 동반하신다. 언제이고 자신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곳이므로 어느 곳이든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시는 분이란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면 모두 한결같이 더럽혀 놓고만 훌쩍 떠나버리는 몰지각한 사람으로만 알고있던 잘못된 내 인식을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기도 했다.

잠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건다보니 저만치로 샹터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로먼저 마시라며 조롱박 바가지에 물을 받아 권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정겹기만 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과 어우러진 푸른 숲 골짜기에서는 여름을 쏟아내는 뽕묵새의 노래가 싱그럽다.

어디를 둘러보나 생동감이 넘치는 곳. 우수수 아카시아 꽃잎을 떨구어 흩날리고 지나가는 한줄기 바람에서도 즐기차게 흘러가는 물에서도 모든 것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누구나 깨끗한 터전을 보존하고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리라.

---

도시의 회색빛 하늘아래 탁한 공기속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달려와 쉬었다가 새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찾는이와 맞이하는 이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쓰는 세제, 한 방울이라도 절제하여 쓸줄알며 무심코 흘려 보내는 생활하수 한 대야에 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어떨까? 생각 없이 구겨서 휴지통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얇은 광고지 한 장이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재활용품으로 놓을 수 있도록 배려해 본다면 어떨까?

깨끗한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눈에 띄게 거창하고 요란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작은 것 한가지, 자칫 하찮게 여겨져서 슬쩍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에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는것이 아닐런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소중한 환경은 보존될 것이고 오늘처럼 이웃들의 아침인사가 정겹게 흐르는 샴터로의 산책길도 오래도록 지속되리라고 기대를 해본다.

<수필 일반부 우수작>

## 무소유

제3821부대 일병  
심우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 훈련중 이름모를 어느산에 텐트를 치고 잠들었다가 이른 새벽 새소리에 일어나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눈물이 나도록 눈이 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아침공기가 내 가슴을 부풀게 할 때 내가 살아숨쉬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하늘이 된 모양으로 세상이 모두 내것처럼 기분이 으쓱해지기도 한다.

이른 아침 눈을 뜨지않은 산 속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안고 있다. 이슬 맺힌 풀잎 이름은 모르지만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산새소리들...

발 밑으로 서서히 흐르는 안개. 그 광경을 혼자만 느낀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이 아침의 산 속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마저도 나뭇잎이 흔들릴까 그 사이로 휘돌아 나간다. 산의 잠을 깨우기 싫어서리라.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을 듯한 이 광경은 뻑뻑한 나뭇가지 사이로 조금씩 얼굴을 내밀던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추고 잠에서 깬 사람들의 소리로 사라져 버리고 산허리에 걸쳐있던 구름이 햇살에 녹아 내리면서 이 산의 아침은 끝이난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면서...

눈을 떠버린 산은 더 이상 영원한 신비는 아니다. 먹고 버린 음료수병 하나가 눈에 띄면서 부터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평화롭던 모습은 이내 사라지고 여기 저기 버려져서 마치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듯 산의 색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의 흔적들. 팔 다리가 부러지거나 예리한 무엇인

---

가에 의해 허리가 잘려버린 나무들, 땀흐린 사람들의 말라버린 목조차도 축여줄수 없게 변해버린 계곡의 물들... 이런 모습들이 아침 산의 모습 위로 떠오르면서 하늘이 된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것 같았던 가슴은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옷을 모두 벗어 버리고는 누가 볼까 부끄러울 듯...

산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금씩 죽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런 것도 모르는채 웃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면 산은 혼자남게 된다. 그들의 흔적을 짚어지고... 그래도 산은 아무말이 없다. 오히려 그들의 흔적들을 감싸안고 든 자신의 잘못된 듯 숨겨준다. 햇살은 어느덧 머리위로 올라 땀흘리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리쬐고 산은 기지개를 펴고 하지만 사람들이 버려두고 간 허물 때문에 쉽지 않은 듯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만 같다.

사람들은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허물들이 진짜 산의 모습이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원함’오랫만에 느껴본다. 따사로운 햇살아래 계곡에 발을 담그고 느끼는 여유로움이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산의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것 같다.

언제부터였을까? 아직 어린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서 더 커보이는 내 발 옆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놀고 있다. 도망갈 줄도 모르고...

아직도 사람이 신기한가 보다. 하지만 저 작은 물고기도 자기가 사는 이 조그만 계곡을 파괴하는 것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신기해 보이는 사람이란 존재란 걸 알게되면 아마 떠나 버릴 것이다. 어쩌면 그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허물속에 묻혀 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잊혀져 버릴 것이다. 물론 작은 물고기 한마리가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대자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는 것 같다. 무심코 꺾어 버리는 나뭇가지 하나가 대 자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 사라져 버린 작은 물고기나 꺾여버린 나뭇가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연이 끊어지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도 똑같은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

바람이 끝나는 곳에서 부터 노을이 산을 덮는다. 햇살은 나무위로 올라 오면서 부터 사람들의 허물로 덮혀버린 산을 드러내 보이더니 저 노을 뒤로 사라지면서 산을 어둠속으로 몰아 넣는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흔적들은 조금씩 가리워지지만 그건 단지 어둠이라는 옷으로 가리는 것이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이 남긴 사람들의 허물은...

그리고 그 흔적들은 어둠이 온다고 해서, 산의 그림자로 가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까지고 산이 사람들의 그런 허물들을 감싸 숨기며 소리없는 비명만을 지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산은 언젠가 더이상 그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사람들 곁으로 쏟아 놓으면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트린다는 것이다.

어둠... 산이 죽어버린 것일까?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작은 오솔길을 빼고는 사방이 온통 암흑이다. 아침에 보았던 모습들은 두고라도 숨쉬는 소리조차도 느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버려두고 간 흔적들이 산을 덮어버린 것 때문일까? 산이 죽어버린 것, 덮어버린 것 때문일까? 산이 죽어버린 것 같다. 새소리... 이름모를 이 새소리가 산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유일한 위안이 된다. 아직은 죽지 않고 잠들어 있는 이 산...

아침이 되면 다시 태어나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넓은 가슴으로 하늘처럼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안아 주려 소리없이 서있는... 지금까지 참아온 산에게 너무 큰 바람일까?

사람들은 소유한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스럽게 생각했다. 소유속에 더불어 산다는 뜻이 들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같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들을 소유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걸까? 산에 가면 꼭 산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소유’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유하면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하늘이 된 것같은 넓은 가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함께 살아야만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않지만 소중한 진리를... 그리고 갓지 않는

---

것이 모든것을 갖는 것이라는 이 작은 진리를... 아마도 이것이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 □ 요약정리 ‘무소유’

살아있다는 것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삶을 더욱 가치있게 하는 것은 내가 서는 공간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산속의 아침은 내가 살아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산이지만 내가 마치 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산이 눈을 뜨고 난 후 사람들의 무감각한 소유욕으로 인한 흔적이 하나 둘씩 눈에 띄면서 죽어 가는 산의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이고 어찌면 우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이 저지른 무의식적인 행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가 안타깝게 생각된다. 산너머로 부터 노을이 시작되면 사람들의 흔적들로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는 듯한 산을 본다. 새소리... 어둠속에서 산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다시 산속의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 정말 필요해서 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내것인것 처럼 허물을 벗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서는 모든것을 책임져야 하고 더불어 공존할때야 말로 소유가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무소유” 갖지 않은 것이 모든것을 갖은 것이라는 이 작은 진리가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수필 일반부 가작〉

## 우리와 함께 한 자연

제3821부대 병장

노 득 희

나는 무척이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중에 한명이다. 그 이유는 내 고향 하동에는 산중의 명산 지리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그렇게 멀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나 많은 볼거리와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학생시절이나 직장인이 되었을 때나 여행이라면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다. 자매부대 방문 여행까지도 참가했었다.

오천년의 긴 역사와 작지만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기에 그 자연을 보고 싶어서였다. 비단을 깔아 놓은듯한 금수강산이었기 때문이다. 그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어느새 부터인지 아주 가끔씩 내귀에 들렸고 입산금지, 취사 행위금지라는 글귀와 말이 나의 눈과 귀에 아주 자주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 또 모 강을 살리자, 모 산을 보존하자 등의 문구가 신문이나 T.V 등 여러 정보매체에서 흘러 나왔다. 이러한 마스크때문이 아니라도 흔히 볼 수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집과 지리산은 불과 한 시간 거리이고 너무나 유명한 산이라 자주 기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인파와 누구의 손에의해 버려졌는지 모를 쓰레기가 바위틈에서 썩어가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 국립공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또 여기 저기 어느새 건물들이 세워졌고 교통시설 편리란 목적으로 깎여진 산은 수 많은 자동차의 잦은 왕래로 인한 배기가스로 단풍이 이상 야릇하게 변하고 있으며 쉽게 볼 수 있었던 다람쥐도 예전과 달리 그 수가 줄었다고 한다. 어찌 지리산 뿐이겠는가.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남해. 풍부했었던 수산물이 조금씩 고갈되고 사라지면서 어부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

---

을 것이다. 또 크고 작은 깨끗한 해수욕장에 쓰레기, 오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물빛마저 퇴색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연 몇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백 년? 십 년?

꼼꼼히 생각해 보면 불과 몇 년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파헤치고 세우면서 신도시 개발, 공업도시 육성 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자연훼손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헤쳐지고 오염된 물을 우리가 살려서 보존해야 할 시기가 왔다.

쓰러진 경제를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일으켜 세웠듯이 자연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 세대가 부를 이어받았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인제.

우리 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라고 선정된 축복받은 곳에서 밖에서 해보지 않았던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자연 정화운동 이러한 행동을 습성화시켜 사회 생활에서도 꼭 실천하는 사회인이 된다면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6월 달에 환경 보전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역시 그런 사람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6월 5일 환경 보전의 날!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나 이었다.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만큼 환경보전 즉 나와 함께한 자연을 등한시 했다는 증거이다. 늘 무슨날이면 생각해보는 습관을 버리고 항상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이 글을 쓰면서 다짐해 본다.

내가 즐겨찾는 자연을 위해 꼭 필요한 다짐인 것이다. 맑고 깨끗한 산을 찾아가기 위해 푸르고 투명한 바다를 찾아가기 위해 그리고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휴식처이자 안식처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을 주고 먹는 물이 아닌 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날을 위해서이다.

서울, 경기, 인천 하늘에 생성된 검은뒨를 벗겨내고 오염된 물을 되살리고 파헤쳐지고 파손된 산을 더이상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불과 몇 년전의

---

산하로 만드는데 그리 오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호주의 깨끗함과 스위스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느끼려면 독일 국민과 같은 환경보전에 너와 내가 없는 그리고 아주 작은 쓰레기 분리수거 부터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정착이 되는 날 우리의 수식어인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들려질 것이라고 믿는다.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오페수의 정화, 쓰레기 분리수거, 버리지 않고 가져오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므로써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사용을 통해 자연훼손을 줄이는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것은 기초에서 출발하고 작은것이 모여 큰 덩어리가 되듯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이 모든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쓴 글이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얼마나 무관심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줄만 아는 인간이었지 지킬줄은 모르는 나였음을 깨달으면서도 모광고에 나오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문구를 떠올려 본다.

<시 초등부 최우수작>

## 힘을 모으자

인제남초등학교 2학년

김은성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부터 가꾸 오신 산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부터 살아오신 들

친구들아 힘모아  
가꾸어 가자

옛날 모습, 맑은 모습  
물려 주도록

친구들아 힘모아  
보존해 가자.

〈시 초등부 우수작〉

## 보러오세요

인제남초등학교 2학년  
장 하 니

하늘이 맑은 우리 마을에  
마음이 맑은 친구들이 살고요

산이 푸르른 우리 마을에  
몸이 건강한 친구들이 살지요

하지만 자꾸 걱정이 되요  
하늘도 산들도  
아프다고 한답니다.

하늘이랑 산이랑  
다시 건강해지도록

우리 친구 모두는  
노력하지요.

〈시 초등부 가작〉

## 사람들의 무관심

인제초등학교 6학년

임연신

내 이름은 지구예요.  
온 몸이 병이 들어  
나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생명체가 있는 지구는  
중요하다고 말 하면서

왜 지구가 병드는 건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면  
살 수 없다는걸 알면서...

〈시 초등부 가작〉

## 작은 생명

한계초등학교 6학년

이 윤 희

얼마전까지  
깨끗하던 물이  
이제는 고약한 냄새가 나요.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들이  
물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과

살랑살랑 헤엄쳐 다니던  
물고기들도  
이제는 썩어서 서서히 죽어가요.

비록 작은 생명이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는

이 작은 고기의 생명을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시 초등부 가작〉

## 환경보호

서화초등학교 6학년  
김지희

물이 있어도  
물고기가 뛰어놀지 않는다면

산이 있어도  
산새가 없고, 나무가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늘이 있어도  
하얀 구름이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깨끗한 환경  
우리 손으로 가꾸어야지.

〈시 중등부 가작〉

## 아이에게

원통중학교 3학년

박 경 원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진 아이야

그 맑은 눈으로  
깨끗한 세상을 보니

강물에 떠 다니는 세제를  
비누방울로 보고

길거리 바람에 실린  
너저분한 쓰레기를  
바람개비로 보니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난 걱정이 된단다.

이 탁한 공기와 매연 속에  
호흡기 곤란의 사태를  
겪고 있을까

소독약 냄새만 풍기는  
수돗물만 마시진 않을까

---

만약 그러하다면  
세상 대신  
내가 사과 할까

미안해, 아이야.

너의 눈과 대조되는  
이세상은  
언제쯤 깨끗해 질런지

네가 커서  
너와 같은 아이를  
볼때쯤 일까

세상속에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바보인가 보구나

네가 어서 커서  
좀 가르쳐 주련?  
어서 어서, 빨리

우선 너와 나  
우리 둘부터 고치고, 그렇지?

〈시 일반부 가작〉

## 실개천

제3821부대 상병  
김 윤 섭

나 어릴적 살던 곳에  
아주 작은 실개천이 흘렀다.

아이들이랑 손잡고  
함께 종이배 띄우던  
작은 실개천이 있었다.

꿈, 희망, 사랑  
한아름씩 실은 종이배를  
조금조금 옮겨주던  
작은 실개천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내 나이 서른  
종이배를 날라주던 실개천도 이제 서른

난 아직 젊은데  
내 고향 실개천은 운명하고 있다.

<시 일반부 가작>

## 꿈먹는 비둘기

제3821부대 일병

김 종 규

달빛밤 도도히 흐르는 강을 보며  
한 수의 시조를 읊조리던  
태공망의 우아함은  
무심히 흘린 폐수에 퇴색되고

꾸밈없는 양 흐르던 구름에  
꿈을 먹던  
비둘기의 작은 바람은  
뿔어내는 매연에 희미해지며

한 줌의 청토에  
고사리 생명을 의지하던  
들국화의 아름다운 자태는  
무심코 버린 비닐에 빛을 바랜다

비둘기는 바랜다  
꿈 담을 하늘을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 인 제 문 화 원 임 직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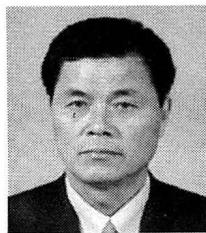
원장 박 해 순



부원장 김 현 래



감사 길 호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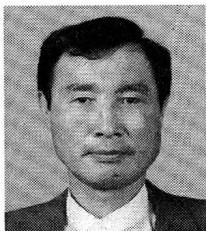
감사 이 지 형



이사 조 봉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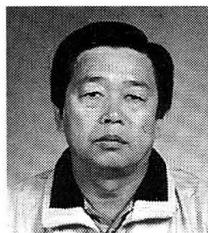
이사 황 범 식



이사 유 석 호



이사 임 성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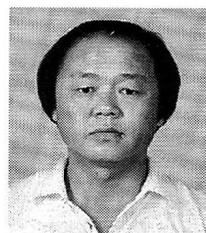
이사 김 진 태



이사 정 재 복



이사 조 철 환



이사 안 승 규



이사 서 성 호



사무국장 이 만 철



간사 장 미 향

## 인제문화원 회원현황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송 병 선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서화중학교 근무)	462-4006
심 준 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2반(의료보험 근무)	461-2248
이 정 순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인제유통)	462-1615
한 상 문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인제군청 근무)	460-2472
문 원 태	인제군 남 면 신남 4/5반(인제군청 근무)	460-2491
박 명 순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인제군청 근무)	460-2425
최 태 홍	인제군 인제읍 남북 2/2반	461-4984
박 성 실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낙원APT	461-1500
임 혜 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5리 극동연립	461-1242
차 애 선	인제군 인제읍 상동 2/6반 군인APT 206호	461-6285
임 정 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 4/1반	461-0717
한 용 운	인제군 인제읍 상동 4/1반	461-2623
최 병 현	인제군 인제읍 상동 4/6반(인제군청 근무)	461-0788
장 정 섭	인제군 인제읍 남북 1/7반	461-0580
이 정 순	인제군 인제읍 합강 2/7	461-0936
이 정	인제군 상남면 미산 2/2반	461-6871
조 해 숙	인제군 서화면 천도 4/10반	462-0337
김 실 권	인제군 인제읍 남북 1/3반	461-2877
김 신 향	인제군 북 면 원통 2/1반	461-3437
이 상 각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461-0799
심 정 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 3/1반	461-2248
정 규 련	인제군 북 면 원통 5/3반	462-1864
이 정 복	인제군 북 면 한계 2/2반	461-4142
강 인 석	인제군 북 면 한계 2/2반	461-6927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김 봉 준	인제군 서화면 천도3리	462-4017
손 동 열	인제군 북 면 용대리	462-4901
이 상 도	인제군 북 면 용대리 구만동 401번지	461-4050
이 운 철	인제군 인제읍 합강3리	461-4050
이 은 자	인제군 기린면 현1리	461-1230
황 영 일	인제군 귀둔리 설낙원	461-0993
백 창 우	인제군 서화면 천도3리	462-6897
전 송 규	인제군 북 면 한계 2/2반	461-4142
최 정 규	인제군 북 면 용대리	462-5098
김 기 호	인제군 인제읍 상동 1/7반	461-2851
최 태 석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461-4541
전 영 환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반	461-2372
김 은 식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인제군청 근무)	461-4401
오 성 현	인제군 인제읍 상동 5/3반	461-4793
한 성 산	인제군 인제읍 남북2리(인제우체국 근무)	461-8173
손 흥 기	인제군 서화면 천도 2/1반	462-4147
김 영 주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군인 APT	461-9003
김 종 각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마동 201호	461-0316
김 종 호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반	462-3334
최 은 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4/5반	461-8802
고 금 녀	인제군 북 면 원통 8/1반	462-0389
최 경 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461-2736
이 재 화	인제군 북 면 원통 3/5반	462-3344
황 민 숙	인제군 북 면 원통 6/4반	461-8431
강 순 복	인제군 인제읍 상동5/4반 구연립 212호	461-4879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분남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5반	461-4651
조인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461-0766
송순천	인제군 인제읍 상동5리	461-4166
김경운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반	461-1798
조창구	인제군 남면 어론 1/1반	461-6191
이연우	인제군 인제읍 상동 4/3반	461-4843
길순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3/6반	461-8862
정순덕	인제군 인제읍 합강 1/4반	461-4300
전민아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	461-2050
박종윤	인제군 남면 어론 1/4반	461-6370
장현귀	인제군 인제읍 상동 4/5반	461-7209
박경옥	인제군 인제읍 상동 3/1반	461-4817
이수영	인제군 인제읍 상동 1/5반	461-2784
김진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 4/4반	461-3734
김두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 4/4반	461-2832
유석호	인제군 인제읍 상동 2/6반	461-2832
하광수	인제군 인제읍 남북 2/4반	461-2039
최광일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반	461-7064
오혜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461-1430
김도완	인제군 인제읍 상동 3/6반	461-0364
노필예	인제군 인제읍 상동 3/6반	461-0364
김정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5/4반	461-2195
백정흠	인제군 인제읍 상동 5/3반	461-2767
박귀임	인제군 북면 원통 7/2반	461-4898
장재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462-3669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허 영 숙	인제군 북 면 원통 서호APT	462-1873
강 여 숙	인제군 북 면 원통 서호APT	462-6329
강 현 정	인제군 북 면 원통 서호APT	462-8939
엄 규 완	인제군 상남면 상남 3/2반	462-6789
전 상 규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	461-4289
전 광 규	인제군 인제읍 상동 2/6반	461-
김 관 빈	인제군 상남면 상남 1/3반	462-6734
박 용 구	인제군 서화면 천도 2/1반	462-4042
심 상 우	인제군 서화면 천도 4/3반	462-5187
김 은 필	인제군 기린면 현 1/5반	461-5155
정 병 석	인제군 기린면 현 1/2반	461-5063
김 영 선	인제군 인제읍 상동 2/5반	461-4208
김 성 자	인제군 인제읍 상동 4/3반	461-1036
김 영 숙	인제군 인제읍 합강 3/2반	461-4050
최 은 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 4/5반	461-9623
이 영 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5/4반	461-4758
이 희 자	인제군 인제읍 상동 4/7반	461-3578
안 미 영	인제군 인제읍 상동 4/2반	461-2920
김 영 옥	인제군 인제읍 합강 3/1반	461-5060
황 영 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2리	461-2473
강 순 옥	인제군 인제읍 남북 1/3반	461-2877
한 길 자	인제군 인제읍 합강 2/2반	461-2414
심 정 미	인제군 기린면 현 5/8반	461-6968
이 춘 녀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낙원APT	461-0818
김 경 애	인제군 인제읍 상동 1/7반	461-9910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유 지 너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461-2985
변 순 자	인제군 인제읍 상동 1/2반	461-8770
마 용 봉	인제군 기린면 서1리	461-5611
김 대 식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461-2868
정 광 벽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461-2686
김 상 혁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	461-0309
장 성 만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461-6754
심 상 용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461-
방 효 정	인제군 인제읍 남북 2/6반	461-5050
이 동 수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2반	461-2974
박 형 석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61-1045
박 장 훈	인제군 북 면 원통 6/4반	461-8418
신 정 수	인제군 북 면 원통 6/1반	461-9423
임 준 호	인제군 북 면 원통 2/3반	461-3156
엄 덕 영	인제군 북 면 원통 6/4반	461-9337
박 근 성	인제군 북 면 원통 6/2반	461-7526
최 해 석	인제군 북 면 원통 8/1반	461-6250
김 동 섭	인제군 서화면 서흥 2/3반	462-7843
심 재 회	인제군 북 면 원통 1/4반	461-3545
이 순 실	인제군 북 면 원통 7/2반	461-3183
박 동 일	인제군 북 면 원통 6/4반	461-8418
김 민 호	인제군 북 면 원통 6/4반	461-8418
이 승 현	인제군 북 면 원통 6/4반	461-8418
정 태 환	인제군 북 면 원통 6/4반	462-2274
김 진 하	인제군 북 면 용대 2/3반	462-5164

## '96년 문화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기간(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마을농악기보급	96. 3. 26	문화사랑방	30	7개 마을에 전수
신춘음악회	96. 3. 30	문 화 관	400	연주 및 성악
문화학교운영	96.4.1~9.30	문화원전시실	144	꽃꽂이강좌
	96.4.1~9.30	문화사랑방	135	홈패션강좌
	96.4.1~11.30	문화사랑방	180	풍물강좌
	96.4.1~9.30	문화사랑방	155	플룻강좌
	96.4.1~11.30	문화사랑방	88	전통의례강좌
	96.4.1~6.30	문화사랑방	145	주부가요교실
문화유적지순례	96.4.29~30	경 주	45	문화원 임원및 회원
문학예술제	96. 6. 18	문화원전시실	25	시화전
	96. 6. 18	문화사랑방	150	문학강좌
전통예술단초청공연	96. 7. 1	문 화 관	400	지방자치 1주년 기념
민속예술발굴	96.9.1~17	갯골운동장	60	같이남박만들기 연습
	96. 9. 20	칠 원 군	45	같이남박만들기 경연
합강문화제	96. 10. 10	충혼탑/주택단지	600	백일장 및 사생대회
	96.10.10~11	문 화 관	120	미술,사진,서예,수석, 공예전시
청소년문화강좌	96.10.1	문 화 원	150	
청소년어울마당	96.1.1~6월	인제,원통,기린 서화,중고교및 문화원	2,000	연주회,음악회,가면극 놀이마당
가을예술제	96.10.25~28	문 화 관		음악회,문학강좌,미술초 대전,영화감상,연극공연
사료조사및수집	96.1.1~12.30	관 내 일 원	5	마을제,인물,시장조사
문화지11집발간	96. 12. 30	문 화 원	1,000	
사료조사보고서 발간	96. 12. 30	문 화 원	1,000	

## '97년 문화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장 소	행 사 내 용	
마을농악기보급	2월	문화원	관내 6개 마을에 농악기 전수	
신춘음악회	3월	문화관	연주단 및 성악가 초청공연	
문화유적지순례	4월	관·내외	문화원가족 대상으로 순례	
경로위안잔치	5월	문화관	국악인 및 연주단 초청공연	
효행상시상	5월	문화관	관내 숨은 효행자 발굴시상	
청소년문화강좌	5월	문화관	명사초청 특강	
합창단초청공연	6월	문화관	관·내외 합창단 초청공연	
예술단초청공연	7월	문화관	지방자치 2주년 기념공연	
명사초청특강	8월	문화관	저명한 강사 초청강연	
합강문화제예술행사	9월	문화관	미술, 사진, 수석, 서예, 공예, 꽃꽂이 전시	
민속예술발굴	9월	관 내	향토민속발굴 재현	
가을예술제	10월	문화관	음악회, 연극공연, 미술초대전 강좌 등	
문화지발간	12월	문화원	인제문화 제12집 발간	
사료집발간	12월	문화원	97년 사료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 학교 운영	꽃꽂이 강좌	4월~9월	문화원전시실	지역주민대상
	홈패션 강좌	4월~9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대상
	풍 물 강 좌	4월~9월	문화원전시실	지역주민 대상
	플 룿 강 좌	4월~9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 대상
	전통의례강좌	4월~9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 대상
	명 화 감 상	4월~9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 대상
향토사료조사	년중	관·내	관내를 순회하며 향토사조사	
향토사료수집	년중	관내·외	민속생활용구 및 문헌등 수집	

## 인제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인제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실 회원(문화가족)을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 회원자격 : 인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 ▶ 신청서류 : 1) 입회원서 1부(문화원에 있음)  
2)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처 : 인제문화원(461-6678)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에 직접오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사 연구회 회원모집 안내

인제문화원에서는 향토사연구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고장에 묻혀있으며 찾아내지 못한 향토사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여 기록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고자 함은 우리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본원에서는 97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향토사연구회를 발족하여 우리고장 전통사에 뿌리를 찾고 연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깊은 애향심으로 향토사연구회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실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연락처 : 인제문화원 [☎ (0365) 461-6678/461-417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에 직접 오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후기

그 어느 날과 같이  
지나간 날들과 같이  
지역 주민의 보살핌에서  
문화를 사랑하는 성원에서  
함께 동참하는 사랑에서  
가르침과 지도편달에서  
이처럼 인제문화지는 성숙되어  
인생의 진리와 삶의 가치를 듬뿍신고  
지혜로운 소양을 밝혀가며  
아름다운 영혼의 빛을 남기고 있다.  
이토록 보내주신 귀한 옥고에  
거듭거듭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다음을 위해  
더욱 땀흘려 노력함을 다짐해 본다.

장미향·이만철

## 麟蹄文化 / 第11輯

---

발행인 : 박 해 순

편집인 : 이 만 철

발행처 : 인 제 문 화 원

전 화 : (0365) 461-6678

F A X : (0365) 461-4173

인쇄처 : 태 원 출 판 사

인 쇄 : 1996. 12. 20

행 : 1996. 12. 27

---

〈비매품〉

금 지원을 받아 발간 하였습니다.

